

성경 공과

제4권

성장반 (Advance Class 1)



삼손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책

아니타 돌 지음 / 배제형 편역

도서 출판 벽옥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성경 공과

제4권

Advance Class 1



아니타 에스. 돌 지음
배제형 편저

도서 출판 벽옥

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은 성경의 깊은 뜻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신 스스로 이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2-6명 정도의 성경 그룹 모임이라면 혼자 만의 이해보다는 비슷한 연령, 비슷한 학력, 또는 비슷한 전문 직업이 모이는 관계로 각자의 의견 교환으로 인해 보다 더 빠른 이해의 속도와 흥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영문판인 Anita S. Dole여사의 Bible Study Notes는 기념 출판용인지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6권의 책으로 편집되고 있으나 한국어판은 저자의 취지 그대로 매주 1회 4년을 성경 공부의 한 주기가 되도록 4권으로 재편집하였는데, 다시 각 권에는 6반(수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 4권 제4반, senior class만을 가지고 성장반, Advanced Class 1으로 명칭을 바꿔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책을 잠깐 읽었을 때 자기의 수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책을 먼저 읽기 바랍니다.

성서는 지상의 우리를 하늘에 닿게 해주는 사다리입니다.(창세기 28장 12절) 따라서 성서를 꾸준히 읽는 것, 베껴보는 노력은 너무나 중요한 작업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이유가 성서의 글자는 예수의 걸옷자락 처럼 주님의 권능이 발휘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

정성어린 성서 읽기라 할지라도 성서가 불합리하게 기록된 듯 여겨지는 부분은 피할 수 없이 발견되고 이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당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성서를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성서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면 하느님의 말씀(the Word)의 기록에 사용한 언어인 상응(correspondence)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성심있는 성서 읽기를 계속하시는 분들에게 얼마간의 상응 지식을 전달하여 성서 글자가 함유한 속뜻을 살필 기회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영혼으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면서 결국 주예수의 품위가 여러분의 심정과 지성 그리고 생활에 있게 해주리라 확신합니다.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성서, 즉 읍기, 잠언...바울 서신 등등은 여러분 스스로의 이해의 범주에 있어 선견자의 도움이나 어느 누구에 의한 별도의 강론이 필요 없는바 각자 열심을 내어 읽어 숙지하기 바랍니다.

이 책은 공동번역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읽기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입니다. 그러나 상응에 의한 해석에는 직역이 필요한바 다른 성경도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www.baysidechurch.org 사이트에서 찾아 보기 바랍니다.

제 4권 차례

1. 창조(이렛 날)-----창세기 2장 1-7절-----9
2. 카인과 아벨-----창세기 4장 1-5절-----13
3. 바벨탑 이야기-----창세기 11장 1-9절-----18
4. 아브라함과 천사들-----창세기 18장-----22
5. 이삭과 아비말렉-----창세기 26장 1-33절-----29
6. 야곱의 귀향-----창세기 35장-----35
7. 요셉의 아들들-----창세기 48장, 50장 22-26절-----41
8. 과일절-----출애굽기 12장-----47
9. 르비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출애굽기 17장-----54
10. 금 송아지-----출애굽기 32장 1-24절-----59
11. 아론의 가지-----민수기 17장 16-28절-----65
12. 길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여호수아 5장-----71
13. 거룩한 땅의 분할-----여호수아 18장 1-10절-----76
14. 판관 삼손-----판관기 14장-----81
15. 왕을 요구하는 백성-----사무엘상 8장-----87
16. 아각 왕을 살려둔 사울----사무엘상 15장----92
17. 다윗과 예언자 나단----사무엘하 12장 1-25절----98
18. 솔로몬의 최후----열왕기상 11장 1-13, 26-43절----104
19. 엘리사와 나아만 ---열왕기하 5장-----110
20. 시드키야와 예레미야--열하24장,25:1-12;예야 21장--116
21. 말씀에 관한 시편-----시편 119편-----123
22. 벨사살 왕의 잔치-----다니엘 5장-----140
23. 사자굴에서의 다니엘-----다니엘 6장-----147
24. 성전 재건에 관한 예언-----즈가리아 4장-----153
25. 요나와 아주까리(박녕쿨)-----요나 3,4장-----158

26.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요한복음 1장-----164
27. 가나에서의 기적-----요한복음 2장 1-11절-----171
28. 주님과 니고데모-----요한복음 3장 1-21절-----176
29. 야곱의 우물가에서의 주님---요한복음 4장 1-42절---181
30. 베짜타 못-----요한복음 5장 1-16절-----187
31.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요한복음 9장-----192
32. 선한 목자-----요한복음 10장-----199
33. 다시 살아난 라자로-----요한복음 11장 1-46절-----205
34. 종려주일(4)-----요한복음 12장 12-50절-----211
35. 포도나무의 비유-----요한복음 15장-----217
36. 부활절(4)-----요한복음 20장-----222
37. 여자와 용-----요한 계시록 12장-----229
38. 두 짐승이 정복되다--요한 계시록 13장, 19장 11-21절--234
39. 요한의 환상의 끝---요한 계시록 22장 8-21절---240
40. 새 교회의 날----요한 계시록 21장 1-12절----245

1

창조 - 이렛날

머리말

성경에 기록된 자연계의 창조의 목적을 간략히 설명하고, 성경의 첫 번째 책의 첫 구절을 강조하면서 육일간의 창조를 재조명한 후 이렛날을 살펴보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2장 1-7절

2장: 1. 이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2. 하나님께서는 엿새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3.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로 지으시고 이렛날에는 쉬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4.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순서는 위와 같았다. 야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였다. 5. 땅에는 아직 아무 나무도 없었고, 풀도 돋아나지 않았다. 야훼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던 것이다. 6. 마침 땅에서 물이 솟아 온 땅을 적시자 7. 야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교리 요약

- * 우리가 주님에 관하여 인식해두어야 할 첫째 사항은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이심이다.
- * 말씀은 인간의 발달에 관한 것으로 시작된다.
- * 거듭남은 점진적인 과정이며 어떤 질서에 의거한다.
- * 하나님을 아는 능력은 마음의 보다 높은 평면에 해당되며, 그 능력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되게 해준다.
- * 휴식이라는 안식의 상태는 주님의 진리를 배워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써만 달성된다.

해설

본문은 창조이야기의 완성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창세기 2장 4-7절에 함축되어 있다. 하늘과 땅이란 우리가 가진 자연적인 사람이 되는 능력과 영적인 사람이 되는 능력을 뜻하고, 육일간의 창조란 우리속의 자연적인 능력이 교육되어져서 영적인 능력 밑에 복종됨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질서의 체계를 갖추어 가는 과정으로서 한마디로 거듭나는 과정을 뜻한다. 제 7절은 이에 대하여 한층 더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다. 진흙이란 우리속의 자연적인 수준의 능력을 상징하며, 이러한 자연적인 속성이 발달되는 때가 곧 주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는 때인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셨다.” 이는 우리속의 자연적인 사람이 주님에 관한 지식과 그에 따른 믿음을 획득하는 시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은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란 우리의 전 인생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되는 때를 의미하며, 이것이 곧 진정한 사람의 의미이다. 또한 창조 이야기는 첫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 즉 태고교회로의 발달되는 과정도 그려주고 있다.

이렛날의 쉼은 거듭남 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그려주되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쉼이란 천적인 수준에 도달됨을 의미한다. 우리 속에 천적인 사람이 살아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진리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바른 생활이 힘겨워서 몸부림치거나 그로 인해 고통 받지 않게 된다. 그 이유는 올바르게 행동함이 곧 우리의 행복이 됨과 더불어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 때문이다. 태고교회는 천적 수준의 교회여서 그 교회에는 진리에 대한 직접적인 지각력이 주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태고교회도 그러한 높은 수준에서 하향하기 시작하자, 즉 그들의 의지가 악용되어 가자 그들에게 주어진 진리에 대한 지각력이 거둬지고 말았다. 이렇게 천적인 높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지상에 사는 인간들의 한계인 것이다. 그러나 천적인 상태야말로 우리가 분투에 노력을 더하여 이뤄야만 할 높은 이상이며, 우리 삶을 충분히 신실하게 엮어 가노라면 달성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적인 상태를 이루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뤄지거나 1-2년 사이 혹은 한번 참석한 부흥집회의 감명으로 딱딱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전 인생에 걸쳐서 아주 조금씩 이뤄져서 변화된 듯 여겨질 때도 있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듯 느껴지며 엮치락뒤치락하는 인생사를 통해서 시나브로 진행되어 진다. 안식일인 이렛날 이전의

육일의 창조가 바로 이러한 과정에 대한 자세하면서 상징적인 묘사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28장 10절에서 “명령에 또 명령을, 명령에 또 명령을, 규칙에 또 규칙을, 규칙에 또 규칙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쉽의 안식일은 오로지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된다. 성경의 글자상의 의미나 성경의 내적 의미에서 이 쉽의 확실한 것은 말씀에서 휴식이라는 것이 단지 게으르게 빈둥거리며 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안식일 또는 이러한 마음상태란 이기적인 생각과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의 성취를 위해 앞 뒤 가리지 않고 하던 투쟁을 이 날만은 한쪽으로 미뤄두고 전 심령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전심전력을 해야 하는 날이란 뜻이다. 주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어서 막연히 쉬는 날로 여기며 세월을 보내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더 지당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삶의 진정한 규칙은 “악행을 중지하고 선행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이 축복되고 거룩한 날로 정해진 것은 우리가 이 날에 악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선을 잘 행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리사이파인들은 안식일에 관한 많은 금지 사항을 더해놓아서 사람들에게 그 날을 아주 힘겨운 날로 만들고 말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함은 타당하다.”라는 말씀으로 이러한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금지사항들을 싹 쏘아 내셨다. 안식하는 상태란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마음상태이지 소극적이고 음성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주님에 관하여 배우는 것과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타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태초에 섭리해두신 가장 이상적인 상태 곧 천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우리는 어떤 책을 공부하는가?
- 2) 이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
- 3) 성경의 첫 권은 무엇인가?
- 4) 창세기란 무슨 뜻인가?
- 5)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는가?
- 6) 창조 첫날에 무엇이 세상에 주어졌는가?

- 7) 몇 일만에 창조가 완료되었는가?
- 8) 본문 속의 “날, day”은 24시간이라는 하루와 같은가?
- 9) 주님의 마지막 창조는 무엇인가?
- 10) 사람은 동물과 어떻게 다른가?
- 11) 인간에게 무엇을 정복하라고 했는가?
- 12) 창조가 끝나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그분은 이렛날에 무엇을 하셨는가?
- 14) 그분은 이렛날을 다른 날과 어떻게 구별되게 하셨는가?
- 15) “복 있다”란 어떤 뜻인가?
- 16)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동안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는가?
- 17) 그분 스스로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는가?
- 18) 천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19) 영적으로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질문의 답

- 1) 성전 2) 하느님 3) 창세기 4) 시작 5) 한 처음에... 6) 빛 7) 6일
- 8) 아니다 9) 사람 10) 하느님의 모습 11) 모든 땅 12) 참 좋았다 13) 쉬셨다
- 14)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15) 행복하게 만듭 16)선
- 17) 예배드리며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며 친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심
- 18) 1. 사랑으로부터 의를 행함 2. 진리에 의거 의를 행함
- 19) 시험과의 투쟁에서 쉽

2

카인과 아벨

머리말

에덴의 동산을 재고하면서 공부를 시작한다.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이유와 그로 인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는 것 등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4장 1-15절

4장: 1. 아담이 아내 하와와 한 자리에 들었더니 아내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외쳤다. “야훼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2. 하와는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카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3. 때가 되어 카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야훼께 예물로 드렸고 4.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만배의 기름기를 드렸다. 그런데 야훼께서는 아벨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시고 5. 카인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시지 않으셨다. 카인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야훼께서 이것을 보시고 6.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느냐? 7. 네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에 굴레를 씌워야 한다.” 8. 카인은 아우 아벨을 “들로 가자”고 피어 들에 데리고 나가서 달려들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9. 야훼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카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잡아떼며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10. 그러나 야훼께서는 “네가 어찌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고 하시면서 꾸짖으셨다.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11. 땅이 입을 벌려 네 아우의 피를 네 손에서 받았다. 너는 저주를 받은 몸이니 이 땅에서 물러나야 한다.

12. 네가 아무리 애써 땅을 갈아도 이 땅은 더 이상 소출을 내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13. 그러자 카인이 야훼께 하소연하였다. ”벌이 너무 무거워서, 저로서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14.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아주 쫓아 내시니, 저는 이제 하나님을 뵈지 못하고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15. ”그렇게 못하도록 하여 주마. 카인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일곱 갑절로 벌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훼께서는 누가 카인을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표를 찍어 주셨다.

교리요점

- * 주님은 미래를 알고 계시며 미래를 위해 설비해두신다.
- * 태초의 사람들은 자연속의 만물에 대한 상응을 알고 있었다.
- * 마음속에 사랑이 있지 않으면 주님을 예배함에 선함이 없게 된다.
- *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순종할 때 우리 안의 모든 사랑이 주님에게서 오게 된다.

상응 공부

카인 = 믿음(faith)
 아벨 = 선행(charity)
 땅 = 마음(mind)
 양 = 순진한 애착들

해설

카인과 아벨은 성경에서의 형제들 중 첫 번째에 해당된다. 성경에서 있어지는 모든 결혼들이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한 우리속의 바램과 생각이 하나를 이룰 때 이 둘은 우리의 심정과 지성 안에 결과들을 생산하게 된다. 남녀가 결혼해서 낳게 되는 아이들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결과에 해당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로운 바램들은 딸들로서 그리고 새로운 생각들은 아들로서 상징된

다. 그리고 우리의 바램이 이해성 안에서 의식될 때는 의지속의 것들이 아들로서 상징되기도 한다. 그래서 형제는 항상 새로운 발달에서의 의지와 생각 측면을 상징한다.

본문의 카인과 아벨은 각기 신앙과 선행을 상징한다. 카인과 아벨은 형제이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서로가 서로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진리가 그것에 따르는 삶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올바른 것을 행하고자 하는 바램이 무엇이 올바른지를 모른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앙을 표현하는 카인은 선행을 상징하는 아벨보다 먼저 우리 속에서 태어난다. 그 이유는 우리 삶의 전반에 있게 되는 새로운 진보의 각 단계는 이해성으로 들어오는 사상 또는 새로운 지식을 통하여 먼저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웨덴붉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각 진리 안에는 그것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의지를 주님께서 은근히 심어 주신다고 설명한다. 이것이 아벨의 출생 또는 선행이 의미하는 바다. 그리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양심의 기초이기도 하다.

땅의 소산인 카인의 제물이란 우리가 이해성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필수적이며 올바른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받아들여진 진리에 따라 살아 주지 않으면 그 진리는 무가치해지고 만다. 아벨의 제물은 의지에 의한 수용을 상징한다. 주님은 카인에게 “네가 잘 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라고 꾸중하셨다. 선행이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바램이 그분으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온 진리에 따라 사는 것 이상 다른 것은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으나 그것에 따른 삶을 이루지 않을 때 본문에서 카인이 아우 아벨을 살해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안의 선의지를 해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카인의 벌은 망명생활이요 방랑생활이었다. 우리가 배운 진리를 삶의 지침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치욕이나 처벌이라는 두려움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기초가 없어져 끊임없이 방황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종종 신앙이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도 무조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널리 퍼져있는 선행에 관한 정의는 가난한 자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새교회의 교리는 이에 대해서 아주 다르게 설명한다. 즉 신앙이란 우리 스스로가 진리라고 발견한 것을 믿는 것이요 이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선행이란 자아대신 주님과 이웃을 섬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말하는 것이다. 신앙이란 우리가 그에 따라 살지 않으면 신앙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삶의 인도를 위해 주님을 찾고 모든 선을 주시는 분으로 그분을 인식치 않으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선행은 실제로 선행이 아닌 것이다.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는 바는 신앙과 선행의 분리가 오늘날의 우리에게서도 발견되지만 사실 그것은 오래 전 태고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브에 대한 뱀의 말이 의미하는 바를 재고해 보도록 하자: 인간이 주님께서 주신 진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 세상에 속한 현상적인 것들을 기초로 하여 있어지는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고자 결심하는 인간의 첫 기우러 짐이 곧 태고교회가 하향하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다. 신앙과 선행의 분리는 우리 삶의 인도하심을 주님대신 자아에게서 찾겠다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있게 되는 인과응보인 것이다. 뒤의 참고문헌은 이 분리가 그 후의 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질문 정리

- 1) 누가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했는가?
- 2) 이 창조는 며칠(단계)에 있어졌는가?
- 3) 마지막 창조는 무엇인가?
- 4) 이렛날에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 5) 이렛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6)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는 무슨 뜻인가?
- 7) 이렛날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일요일을 어떻게 사용하도록 가르치는가?
- 8) 성경의 어떤 이야기가 지상의 첫 교회 사람들의 상태를 그리는가?
- 9)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금한 것은 무엇인가?
- 10) 그들을 불순종하게 유혹한 것은 무엇인가?
- 11) 불순종의 벌은 무엇인가?
- 12) 본문의 이야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가진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13) 카인의 직업은 무엇인가?
- 14) 아벨의 직업은 무엇인가?
- 15) 그들은 주님께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 16) 누구의 예물을 반기셨는가?
- 17) 카인의 예물은 왜 거절되었는가?

- 18) 카인의 진짜 인격을 드러낸 행동은 무엇인가?
- 19) 그의 별은 무엇인가?
- 20) 주님은 카인이 파괴됨으로부터 어떻게 해주셨는가?
- 21) 카인과 아벨은 각기 무엇을 표현하는가?
- 22) 카인이 아벨을 쳐 죽임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하느님 2) 6 3) 사람 4) 쉬셨다 5)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라
- 6) 행복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셨다 7) 다른 이를 행복하게 함, 예배드리는 날
- 8) 에덴 9)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10) 뱀 11) 동산에서 추방
- 12) 카인, 아벨 13) 농부 14) 목자 15) 곡식, 새끼 양 16) 아벨의 예물
- 17) 불성실 때문에 18) 아벨을 죽였다 19) 방황자 20) 표를 찍어 주셨다
- 21) 믿음, 선행 22) 올바른 것을 행함 없이 단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함

3

바벨탑 이야기

머리말

노아와 홍수에 관한 간략한 내용을 서론으로 삼는다. 홍수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여 있게 된 인과응보였다는 것과 창조한 인류의 보존을 위한 주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노아의 구원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인간의 자만과 우둔함으로 인해 역사가 다시 반복되어 본문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설명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11장 1-9절

11장: 1. 온 세상이 한 가지 말을 쓰고 있었다. 물론 낱말도 같았다. 2. 사람들은 동쪽에서 올라오다가 시날 지방 한 들판에 이르러 거기 자리를 잡고는 3. 의논하였다. “어서 벽돌을 빚어 불에 단단히 구워내자.” 이리하여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 4. 또 사람들은 의논하였다. “어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테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5. 야훼께서 땅에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이렇게 세운 도시와 탑을 보시고 6. 생각하셨다. “사람들이 한 종족이라 말이 같아서 안 되겠구나. 이것은 사람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에 지나지 않겠지. 앞으로 하려고만 하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7. 당장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쓰는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야겠다.” 8. 야훼께서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도시를 세우던 일을 그만 두었다. 9. 야훼께서 온 세상의 말을 거기에서 뒤섞어 놓아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고 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다.

교리 요점

- * 성경에서 동쪽이란 주님에게 가까움을 상징한다.
- * 성경의 첫 7장까지는 고대 말씀에서 취해진 순수한 상징적 이야기이다.
- * 말씀에서 온 진리 대신에 자기 사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건설된다면 우리에게는 항상 혼동이 있게 된다.
- * 다른 사람 위에 자신을 놓고 싶은 욕망이 멸망의 원인이다.

상응 공부

도시 = 교리
 탑 = 자아 숭배
 돌 = 진리
 벽돌 = 인위적인 진리
 역청 = 이기심

해설

태고교회인이 신앙과 선행을 분리시킨 결과로 인간의 마음에서 선행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인간들은 괴상한 악들을 더욱 발달시켜 왔는데, 창세기 6장 4절이 이에 대한 것을 전하고 있다. 여기서 “하느님 아들들”이란 태고교회에 전해 내려 온 진리들이고, “사람들의 딸들”이란 이기적인 욕망들이며, 이들의 결혼이란 진리가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 사용될 때 있게 되는 진리의 왜곡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리의 왜곡은 고대인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거대한 신체를 가진 거인이 등장했다. 우리는 이러한 거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널리 알려진 바산 왕 옥이나 갓 족의 골리앗을 포함한 모든 거인들은 태고교회의 악으로부터 파생된 존재들이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태고교회의 끝은 홍수의 이야기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인 고대교회의 건설이 방주로 구원되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무지개의 언약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 고대교회는 태고교회와는 그 특성이 달랐다. 태고교회인들에게는 그들의 마음 안에 존재했던 선에 의해 주도되는 방법인 내적인

지각으로 진리를 아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것이 상실되자 그들 속의 의지와 이해성도 분리되어졌다. 그래서 고대교회 사람들은 주님이 그들을 계발하실 수 있기 전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우리 안에 쌓여있는 것, 즉 기억적인 진리를 먼저 획득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고대교회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바른 방법으로 나아가는 동안에는 그 교회가 지혜로 가득하고 상응의 연구를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상응에 따라서 있어진 각종 아름다운 예배형식을 가진 교회로 발전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점차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지혜를 뽐내고자 하는 욕망이 커지게 되자 악이 그들의 삶이나 예배 속에 있었던 순수성을 서서히 침식시켜 갔다. 고대교회의 퇴보에 관한 역사는 창세기 10장에서 긴 계보로 설명되고 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계보의 인물들은 각각 어떤 새로운 종류의 악과 거짓의 발달을 그려주고 있다. 스웨덴붉은 우리가 10장을 읽다보면 생소하고 어려운 이름들이 계속되어 답답하고 지루하게 여길지도 모르나 사실 이 장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 이유는 설사 우리가 읽고 있는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는 천사들이 그 구절들의 속뜻을 이해하며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감명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벨탑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고대교회의 끝에 관한 것이다. 성경은 불과 아홉 절 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 굉장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동쪽에서” 옮겨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에서 멀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시날 지방 한 들판인 낮은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주님께에서 최대한 멀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 상태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 이사야 55장 9절의 “하늘이 땅에서 아득하듯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깊다.”하는 말씀이다. 그들은 거기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늘에 닿을 탑을 쌓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포부는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위대해지려는 욕심이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내가 혼자서 해냈어!”라고 떠벌리는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자. 어떤 일이든지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한 정말로 혼자서 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설사 눈에 보이지 않고 언뜻 보기에 혼자서 다 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힘이 모여져서 일이 성사되는 것이다.

제 3절은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쓰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돌이란 진리를 상징한다. 돌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다. 반면에 벽돌은 인간이 만든 것으로서 신성한 진리를 자신의 사상으로 대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인위적인 진리를 상징한다. 역청이란 자아사랑을 상징한다. 자아사랑을 지닌 사람들은 쌍방에게 있어질

이익이 같으면 한동안은 서로 어울리기도 하지만, 화가 나는 분함이 생겨서 거기에 조금만 열을 가하면 서로 어울린 고리는 녹아져 끊기고 만다. 인간이 만든 모든 삶의 철학이 바로 바벨탑이요, 낮은 차원에서 시작하여 하늘까지 닿아보려는 노력이 벽돌과 역청으로 허둥대는 것이다. 이리하여 주님께서 “사람들이 한 종족이라 말이 같아서 안 되겠구나.”라고 말씀하신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진리에 관해서 하나의 교리만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 상태는 깨져 버렸다. 인간이 자신에게서 진리를 찾으려 할 때는 진정한 표준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인간의 사상은 각기 다르며, 각각 자신의 이기적인 노선을 따라 생각하려든다. 따라서 서로 논쟁이 시작되고 다투며 이해해 보는 것까지 중단하기에 이른다. 그 이유는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사상 안에서만 흥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대교회는 “말이 뒤섞여” 또는 종교적인 사상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으로 다툼질하여 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실제로 고대교회 사람들이 온 지상에 흐트러진 것이다. 그래서 바벨이란 “혼동”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질문 정리

- 1) 카인과 아벨은 누구의 아들인가?
- 2) 그들의 직업은 무엇인가?
- 3) 그들은 주님에게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 4) 왜 카인의 예물은 거절되었는가?
- 5) 어떻게 주님은 카인을 보존하셨는가?
- 6) 본문에서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옮겨갔는가?
- 7) 그들은 어디에서 멈췄는가?
- 8) 그들은 무엇을 짓기로 했는가?
- 9) 탑을 쌓는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 10) 그들은 무엇을 건축 재료로 사용했는가?
- 11) 주님은 그 건축을 어떻게 멈추도록 하셨는가?
- 12) 사람들이 건축을 못하자 어떻게 되었는가?
- 13) 본문은 어떤 교회의 종말을 묘사하는가?
- 14) 이 탑은 무엇으로 불리는가?

- 15) 성경에서 그리스어의 어떤 말이 히브리어의 바벨과 같은 어원을 갖는가?
- 16) 바벨탑을 쌓는 것은 무엇을 그리는가?
- 17) 진리를 받는 측면에서 태고교회와 고대교회 사이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아담과 이브의 아들들 2) 농부, 목자 3) 곡식, 새끼 양 4) 불성실, 위선적이었다 5) 인(mark) 6) 동쪽으로부터 7) 시날(바벨론) 8) 탑 9) 하늘까지 닿기 위해
- 10) 벽돌과 역청 11) 언어를 뒤섞으셨다 12) 흩어졌다 13) 고대교회 14) 바벨
- 15) 바벨론 16) 이기심을 가지고 삶을 건설함 17) 지각, 양심

4

아브라함과 천사들

머리말

본문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중간 부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부분까지 있게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간략히 살펴보면서 본과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한다. 주님의 방향에 맞추려는 아브라함의 바램과 바벨탑 이야기에서의 사람들의 바램을 비교해 본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18장

18장: 1. 야훼께서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대낮에 천막 문 어귀에 앉아 있다가 2. 고개를 들어 웬 사람 셋이 자기를 향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천막 문에서 뛰어 나가 맞으며 땅에 엎드려 3. 청을 드렸다. “손님네들,

괜찮으시다면 소인 곁을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십시오. 5. 물을 길어 올 터이니 발을 씻으시고 나무 밑에서 쉬십시오. 5. 떡도 가져 올 터이니 잡수시고 피곤을 푸신 뒤에 길을 떠나십시오. 모처럼 소인한테 오셨는데, 어찌 그냥 가시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그렇게 하여 주시겠소?”

6.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고운 밀가루 세 말을 내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이르고 7. 소떼가 있는 곳으로 달려 가 살이 연하고 맛있어 보이는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종에게 맡겨 빨리 잡아서 요리하게 하고는 8. 그 송아지 요리에다가 영긴 젓과 우유를 곁들여서 손님들 앞에 차려 놓고, 손님들이 나무 밑에서 먹는 동안 그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9.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부인 사라는 어디 계시오?” 하고 묻자, 아브라함은 사라가 천막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10.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새싹이 돌아날 무렵, 내가 틀림없이 너를 찾아오리라. 그 때 네 아내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천막 문 어귀에서 이 말을 엿듣고 있었다. 11.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늙은이였고 사라는 달거리가 끊긴 지도 오래였다. 12.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내 남편도 다 늙었는데, 이제 무슨 낙을 다시 보랴!”하고 중얼거렸다. 13. 그러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사라가 다 늙은 몸으로 어떻게 아기를 낳으랴고 웃으니, 될 말이나? 14. 이 야훼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내년 봄 새싹이 돌아날 무렵에 내가 다시 찾아오리라. 그 때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15. 그러자 사라는 겁이 나서 웃지 않았다고 잡아뵈으나, 야훼께서는 “아니다. 너는 분명히 웃었다” 하시며 꾸짖으셨다. 16. 사람들은 길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도 그들을 배웅하느라고 같이 왔다. 17. 야훼께서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 “내가 장차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18. 아브라함은 강대한 민족이 되고 세상 민족들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 복을 빌 것이 아닌가? 19. 나는 그로 하여금 그의 자손과 그의 뒤를 이을 가문에게 옳고 바른 일을 지시하여 이 야훼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려고 그를 뽑아 세우지 않았던가? 그러니,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어야 하리라.” 20. 이렇게 생각하시고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아우성을 나는 차마 들을 수가 없다.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짓고들 있다. 21. 내려가서 그 하는 것들이 모두 나에게 들려오는 저 아우성과 정말 같은 것인지 알아보아야 하겠다.”

22. 그 사람들은 걸음을 옮겨 소돔 쪽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야훼 앞에 서 있었다. 23. 아브라함이 다가 서서 물었다. “당신께서는 죄 없는 사람을 죄인과 함께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

24. 저 도시 안에 죄없는 사람 오십 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 곳을 쓸어버리시렵니까? 죄 없는 사람 오십 명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25. 죄 없는 사람을 어찌 죄인과 똑같이 보시고 함께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라면 공정하셔야 할 줄 압니다.” 26. 아훼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 죄 없는 사람이 오십 명만 있으면 그 죄 없는 사람을 보아서라도 용서해 줄 수 있다.” 27.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다. “티끌이나 재만도 못한 주제에 감히 아뢰입니다. 28. 죄 없는 사람 오십 명에서 다섯이 모자란다면 그 다섯 때문에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훼께서 대답하셨다. “저 곳에 죄 없는 사람이 사십 오 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29. 아브라함이 “사십 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여쭙자 아훼께서 대답하셨다. “사십 명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30. 아브라함이 또 여쭙었다.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십 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삼십 명만 되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시자 31. 그가 또 다시 여쭙었다. “죄송하오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이십 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이십 명만 되어도 그들을 보아서 멸하지 않겠다.”하고 대답하셨다. 32. 아브라함이 다시 “주여, 노여워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열 사람밖에 안 되어도 되겠습니까?” 아훼께서 대답하셨다. “그 열 사람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33. 아훼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자리를 뜨셨다.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교리 요약

- * 주님께서는 강림하시기 전에 그분의 실재하심을 천사에게 채우심으로써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
- * 말씀에서의 역사적인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다.
- * 믿음은 진실로 마음속에 있다. 이해성은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 *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선행에 필수적이다.

상응 공부

아브라함 = 아주 어린 시절의 상태
 갈대아 땅 = 태어날 때의 자연적인 생태

가나안 땅 = 천국 또는 천국적인 인격
소돔 = 자아에서 온 악
고모라 = 자아에서 온 거짓
50 = 가득 찬 것 (선으로 가득 찬 진리)
10 = 아껴두신 것

해설

아브라함에게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부르심의 말씀은 각 개인의 삶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완전히 무지하며,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경향성에 의해 이기적으로 되려는 상태가 우리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태고교회와 고대 교회로부터 발달된 악과 거짓에 대한 경향성은 먼 옛날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좋지 않은 상속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상속물, 즉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하게 하여 영적인 진보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이기적인 경향성에 대한 “반작용적인 충동”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버릇없이 행동하는 대신 착하게 행동하는 습관이 좋을 수 있다. 즉, 창세기 12장 1절의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부르심을 주님에게서 받고 있는 것이다.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기심을 떠나라는 분부이고,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은 천국적인 인격이 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장차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은 유아기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있어지는 우리의 영적 발달을 그려준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주 어린 시절을 상징한다. 아브라함은 어린 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며 순종하듯이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상태를 표현한다. 앞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여행에 대해서 공부했다. 즉, 그의 형제인 나홀이 하란지역에 정착했음과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지역의 세겜과 베델에 도착했다는 것 그리고 롯이 기근으로 인해 이집트에서 잠시 체류했다가 가나안으로 되돌아 온 후 아브라함으로부터 분가했다는 것이다. 롯은 분가 당시 요르단 평지를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거주지로 산악지대를 선택했다. 그리고 롯의 이야기에서 그가 사악한 성인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 근접하여 거주한 결과 곤경에 빠졌음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뜻은 우리의 자연적인 경향성, 즉 세상에 매력을 느껴 쉽게 악에 빠져버리는 마음의 외적인 부분을 상징한다.

아브라함이 산악 지대에 거주지를 정하고 살던 때가 바로 본문에서 읽게 되는 부분이다. 그곳은 헤브론 또는 마르레로 불리는 지역이었다. 그는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든든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여 매우 부유해졌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라의 몸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못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제외하면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되며 그 상속자는 아내인 사라가 낳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오는 세 사람에게 의해 재확인되고 있다. 본문을 자세히 읽다보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었으나 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말해지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정중히 맞아들이고 그들이 주님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스웨덴본은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전 인간에게 나타나시되 그분의 내재하심을 천사에게 채우시는 것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사야 63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즉, “누구를 대신 파견하거나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친히 오시어”라는 구절을 읽고 이해하게 되면 스웨덴본의 설명이 말씀에 의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스웨덴본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에 관하여, “이 세 사람은 신성 그 자체와 신성한 인간 그리고 신성한 작용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 없이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삼위인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신이 있고, 삼위는 곧 하나임이 모든 이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천국의 신비 제 2149항).”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이 이야기를 주님의 아주 어린 시절에 대한 언급이라고 설명한다. 즉, 내적인 의미 속에서 취급된 주체는 여호와로서 이 여호와는 주님으로 나타났고 그분이 이를 지각한 것인데 이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졌던 나타남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보인 것은 역사적인 사실임과 동시에 신성한 지각을 표현하거나 주님께서 인성을 입고 계실 때 가지셨던 신성으로부터 온 지각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상속자를 주시겠다는 약속은 주님께의 순종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낳음을 의미한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사라의 웃음은 ‘선택하려는 노력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인가?’하고 의심하는 우리의 자연적인 경향성을 묘사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주님과 대화의 기술한 사건을 읽게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상속자의 약속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다. 숫자란 선택과 진리의 다양한 상태를 상징한다. 50이란 충분한 상태를

상징하고, 5란 언제나 “조금”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에 대한 기적을 베푸심을 생각해 보면, 숫자 5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빵 다섯 개란 우리 속에 있는 조금밖에 안 되는 선함을 상징한다. 5보다 5가 적은 45란 충분한 선과 진리의 상태에서 조금 덜한 선과 진리의 상태를 상징한다. 그리고 숫자 40은 일반적으로 시험을 상징한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상기해야 할 사항은 시험에 관한 주님의 섭리일 것이다. 즉, 설사 우리에게 시험을 겪겠다는 결심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시험에 저항할만한 힘이 보이지 않으면 주님께서 시험에 빠지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험은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자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어서 육체적 혹은 물리적인 것을 시험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숫자 30 역시 시험을 의미하지만 시험의 수준이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40이란 상태의 시험은 시험을 충분히 겪은 상태이나 30이 의미하는 시험은 아직 초반에 불과한 상태의 시험인 것이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받은 주님의 시험과 40일 주야로 내린 홍수를 상기해 보면 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이란 “무지의 선”을 의미하는데, 선한 가운데 있는 이들 중에서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이들 또는 대략 20세 미만의 사람들에 있는 선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선한 마음이 있으나 그 마음이 악과 거짓에 정면으로 부딪친 적이 없는 선으로서 이는 마치 전투경험이 없는 군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10이란 “아껴두신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는 주님이 우리들 속에 저장해 두신 좋은 것들로서 특별히 그분께서 우리의 어린 시절에 저장해 두셔서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 도움을 주게 되는 것들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위의 숫자들이 의미하는 선함의 상태 중 어느 곳에 해당되든지 간에 그 안에 구원의 요소가 들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 속에 영적인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를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습득한 어떤 진리든지 간에 그것을 꼭 붙잡고 그에 따라 살고자 최선을 다해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실수나 타락의 다소에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주님에 관해 배워가기를 멈추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인 파멸로 이르는 길에 접어드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아브라함의 첫 고향은 어디인가?
- 2) 주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3) 그의 마지막 정착지는 어디인가?
- 4) 어느 날 누가 그에게 왔는가?
- 5) 그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 6) 사실 그들은 누구인가?
- 7)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알려주었는가?
- 8) 왜 사라는 웃었는가?
- 9) 천사들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그들은 어디로 향했는가?
- 10) 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는가?
- 11) 아브라함이 주님께 묻은 첫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 12)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13) 아브라함은 몇 개의 질문을 물었는가?
- 14) 주님은 그 때마다 어떻게 답하셨는가?
- 15) 아브라함이 언급한 가장 작은 숫자는 몇 명인가?
- 16) 아브라함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도록 함은 무엇을 그리는가?
- 18) 아들의 출생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우르 2)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3) 헤브론(마브레) 4) 세 명
- 5) 귀중한 손님 대접 6) 천사들 7)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8) 자기가 늙었는데 어떻게 애를...의심했다 9) 소돔 10) 성을 멸하려고 11) 선한 이를 나쁜 자들과 함께 죽이시렵니까?
- 12) 만약 그 성에 죄 없는 사람이 오십 명이 있다면... 13) -5, 40, 30, 20, 10 (다섯 질문)
- 14)...하다면 멸하지 않겠다 15) 10 16) 단순한 신뢰와 순종의 상태
- 17) 이기적인 인생관을 떠나 천국적인 인격을 발달시키라
- 18) 새로운 지적 능력 또는 진리의 새로운 발달

이삭과 아비멜렉

머리말

이삭의 출생과 리브가와의 결혼 그리고 이삭의 삶을 먼저 살펴면서 공부를 진행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26장 1-33절

26장: 1. 그 지방에는 아브라함 당시에도 흉년이 든 일이 있었지만 그런 흉년이 또 들었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는 그랄로 가려는데 2. 야훼께서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 주는 땅에 자리 잡고 3. 그 땅에 몸 붙여 살아라. 나는 너를 보살피 주며 너에게 복을 내려 주리라. 네 아비 아브라함과 맺은 내 맹세를 지켜 너에게 복을 내려 주리라. 네 아비 아브라함과 맺은 내 맹세를 지켜 이 모든 지방을 나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4. 그리고 네 자손을 하늘에 있는 별만큼 붙어나게 하여 그들에게 이 모든 지방을 주리라.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네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5.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따라 내가 지키라고 일러 준 나의 계명과 규정과 훈계를 성심껏 지킨 덕이다.”

6. 이리하여 이삭은 그랄에서 살게 되었는데, 7. 그 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 이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이삭은 그가 자기의 누이라고 대답하였다.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곳 사람들이 리브가 때문에 자기를 죽이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어 자기 아내라고 하기를 꺼렸던 것이다.

8. 이삭이 그 곳에 자리 잡은 지 얼마 뒤의 일이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9. 이삭을 불러 들여 나무랬다. “그 여자는 분명히 네 아내다. 그런데 왜 네 누이라고 하였느냐?” 이삭이 아내 때문에 죽게 될 것 같아서 그랬노라고 대답하자 10. 아비멜렉은 “어찌다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하마터면 내 백성 가운데 누가 네 아내를 범할 뻔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쓸 뻔하지 않았느냐?” 하고 나무라고 나서 11. 온 국민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을 받을 것이다.”

12. 이사악은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그 해에 수확을 백 배나 올렸다. 야훼께서는 이렇듯 복을 내리셔서 13. 그는 부자가 되었다. 점점 재산이 불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14. 그는 양떼와 소떼와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사게 되었다. 15. 블레셋 사람들은 전에 이사악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 생전에 봤던 우물을 모조리 흙으로 메워 버렸다. 16. 한편 아비멜렉은 이사악에게 “너는 우리보다도 훨씬 강해졌으니 여기에서 물러 나가라”고 하였다. 17. 이사악은 그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천막을 쳐 자리 잡고 18.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 버렸던 우물들이다. 이사악은 그 우물들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19. 이사악의 종들은 그 골짜기에 우물을 파다가 물이 팔팔 솟는 샘 줄기를 찾았다, 20. 그런데 그랄에 사는 목자들이 그 물을 저희 것이라고 하면서 이사악의 목자들에게 싸움을 걸어 왔다. 우물을 두고 싸움이 벌어졌다고 해서 이사악은 그 우물을 에섹이라고 불렀다. 21.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은 그 우물도 탐이 나서 또 싸움을 걸어 왔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시트나라 하였다.

22. 그는 자리를 옮겨 우물을 또 하나 팠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 우물을 두고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사악은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부르며 “마침내 야훼께서 우리 앞을 활짝 열어 주셔서 우리도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다”고 소리쳤다. 23. 그는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올라 갔는데, 24. 그 날 밤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의 심복 아브라함을 보아

너에게 복을 내려 네 자손이 불어나게 하리라.“

25.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아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고 그 곳에 천막을 쳤다.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26. 어느 날 아비멜렉이 친구 아후삿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사악을 찾아 왔다. 27. 이사악이 그들에게 “내가 미워서 쫓아 낼 때는 언제고 왜 나를 찾아 오셨습니까?”하고 물으니 28. 그들이 대답하였다. “야훼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그대와 우리 사이에 조약을 체결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그대와 계약을 맺고 싶다. 29. 우리는 그대에게 손 하나 대지 않고 잘 대접해 주었으며 떠날 때에도 편안히 보내 주었다. 그러니 그대도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그대야말로 정녕 야훼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30. 이사악은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셨다. 31. 이튿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서로 서약하여 조약을 맺고 환송을 받으며 흐뭇한 마음으로 떠나갔다. 32. 바로 그 날 이사악의 종들이 저희가 파던 우물에서 샘 줄기가 터졌다고 와서 알렸다. 33. 이사악은 그 우물을 세바라 불렀다. 그래서 그 도시를 오늘날까지 브엘세바라고 부르고 있다.

교리 요약

- *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어린이로서의 우리를 발달시키시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 * 그 방법은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있다.
- * 말씀 속에는 결코 우연히 이뤄졌거나 불필요한 것이 없다.
- * 원하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의 교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 진정한 합리성은 말씀속의 진리를 배워 순종하고 싶은 바램에 기초한다.

상응 공부

이집트 = 기억속의 지식

블레셋 영토 = 교리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

해설

진정한 영적 진보는 이삭을 통하여 오는데, 이는 이삭이 영적으로 합리적인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이 진정으로 올바르게 발달하려면 아브라함으로 상징되는 유아기의 완전한 상태가 이삭으로 상징되는 합리적인 추론능력으로 무리 없이 발전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25장 5-9절에 기록된 바로 의미되고 있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죽게 된 후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브라함을 매장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인 에사오와 야곱을 가졌다.

이후 본문으로 이어진다. 과거 아브라함이 처음 그 지역에 왔을 때처럼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모습이란 우리의 어린 시절에 자연적인 지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삭은 주님께 의해 이집트로 가지 말도록 분부되고 있다. 그 대신 그는 블레셋 족의 땅으로 가라는 주님의 명을 받았다. 그 이유는 이집트로 상징되는 자연적인 지식은 영적인 추론의 기초가 아니기 때문이다. 블레셋 땅은 교리에 관한 지식을 상징한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브라함 역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과 그들의 영토에서 우물을 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은 후의 블레셋 사람들이란 교리를 배우고자 하나 그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유아적 상태를 상징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모든 자연적인 지식을 배우면서 말씀으로부터 오는 이야기들을 배우고 연장자들로부터의 이런저런 이야기에서 얻어진 교훈들도 습득하게 된다. 이런 교훈이 바로 아브라함이 판 우물에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는 자라면서 자신의 의지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우물들이 자신속의 세상적이며 이기적인 착상들로 덮어버려 쓰이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흔히 나타나는 양상은 교회에 굳이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태도 혹은 성경에 대한 것은 과거에 다 졸업했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이다. 심지어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는 것마저도 서슴없이 무시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도 자신을 돌볼 수 있다고 하는 과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삭이 우리 속에서 발달되는 때가 온다. 이러한 시기에 대한 흔한 표현중의 하나는 “세상일이 내 뜻대로 다 되질 않아.”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푸념 섞인 말로 끝맺게 되는 삶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있게 되는 때가 바로 우리 안에서 이삭이 발달되는 때이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깨닫고 이 세계에 뭔가 다른 뜻이 있지 않는가를 살필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리는 순간 우리들 속에서 즉시 이삭이 발달되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바로 영적인 흉년을 느껴서 블레셋 영토로 내려가 다시 우물을 파야만 하는 것이다. 설령 자신이 이렇게 다시 우물을 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우리속의 블레셋족이 그 동안 너무 강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우물을 파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자신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우물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다음 이삭은 과거 아버지와 아비멜렉이 맹세를 했듯이 그와 또 다른 맹세를 할 수 있게 된다. 브엘세바(Beersheba)란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다. 말씀 속에서 우물은 성경의 상징으로서 자주 사용된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을 퍼 올리듯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진리를 끌어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 나아가기를 작정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도록 해 줄 교리를 찾고 성경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보게 해 줄 교리를 발견할 때까지 그것을 찾는 일을 멈추서는 안 될 것이다.

본문의 일부는 종종 사람들을 당혹케 하는데, 이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아비멜렉에게 속인 구절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과거 사라에 관해 파라오를 속였고, 후에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속였다(창세기 12:11-20, 20:2-7). 성서 비평가들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된 것은 성서를 베꼈던 학자들의 실수였을 것이라고 하며 의문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제시하는 의문 자체가 본문 18절에 있는 바대로 아브라함이 꿰뚫은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훔으로 메우는 구절이 의미하는 것의 실제적인 예이다. 스웨덴북은 “똑같은 사건이 세 번씩 발생했고 게다가 세 번씩이나 말씀에 기록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안에는 아주 큰 비밀이 있음이 분명하다. 내적인 의미로 이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결코 알 수 없다”라고 말한다(천국의 신비 3386항). 누이는 내적인 의미로 볼 때 합리적인 진리를 상징하지만, 아내는 선과 하나를 이룬 진리를 상징한다. 블레셋으로 상징되는 것과 같은 마음 상태하의 사람들은 합리적인 진리를 배우는 데는 흥미를 갖고 있으나 습득한 합리적인 진리를 자신의 지침으로 응용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와 유사한 진리, 즉 그들이 행해야 한다고 표현되는 진리일 경우에는 차라리 그것의 근원을 파괴하려고 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상응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 우리는 과히 힘들지 않게 성서속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한다. 하지만 우리는 배우면서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오는 선한 충고를 언제나 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질문 정리

- 1)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은 누구인가?
- 2) 이삭의 아내는 누구인가?
- 3) 이 아내는 어느 지역 출신인가?
- 4)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 5) 주님은 이삭이 흉년을 맞아 어디로 가는 것을 막으셨는가?

- 6) 그 대신 이삭은 어디로 갔는가?
- 7) 블레셋의 왕은 뭐라고 부르는가?
- 8) 그는 이삭을 환영했는가?
- 9) 누가 과거 블레셋 영토에서 우물을 팠는가?
- 10) 블레셋사람들은 이 우물을 어떻게 했는가?
- 11)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파 놓은 우물의 몇 개를 못 쓰도록 방해했는가?
- 12) 이사악은 그들과 다투었는가?
- 13) 아비멜렉은 결국 이사악과 어떤 합의를 보았는가?
- 14) 합의가 이루어진 장소를 뭐라고 불렀는가?
- 15) 브엘세바란 무슨 뜻인가?
- 16) 이삭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우물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블레셋사람은 무엇을 그리는가?
- 19)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파 놓은 우물을 메워 버린 모습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이사악 2) 리브가 3) 하란 4) 에사오와 야곱 5) 이집트
- 6) 그랄 지방 7) 아비멜렉 8) 환영했다 그러나 후에 그를 두려워했다
- 9) 아브라함 10) 우물을 흙으로 메워 버렸다 11) 두개 12) 다투지 않았다
- 13) 평화의 맹세 14) 브엘세바 15) 맹세의 우물 16) 영적인 추론력
- 17) 말씀 18) 진리를 알고자 하나 그에 따라 살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
- 19) 주님의 안내를 받는 것보다 자신의 의견을 선호하는 것

6

야곱의 귀향

머리말

야곱의 출생이 언급되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장까지의 이야기를 기억하면 본문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25장부터 34장까지 시간을 내어 읽은 후 본문의 공부를 시작하기 바란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35장

35장: 1.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이러고 있지 말고 베델에 올라 가 거기에 자리를 잡아라. 네가 형 에사오를 피해 갈 때 너에게 나타났던 이 하느님에게 제단을 쌓아 바쳐라.” 2. 야곱은 곧 그의 온 가족과 그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있는 남의 나라 신들을 내버려라. 깨끗이 몸을 씻고 옷을 갈아 입어라. 3. 이제 우리는 여기를 떠나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나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호소를 들어 주시고 내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보살피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자 한다.” 4.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남의 나라 신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모두 물었다. 5. 그리고 그들은 그 길로 떠났다. 그러자 신비한 두려움이 주위에 있는 도시들을 휘어잡아서 아무도 야곱의 자손들을 추격하지 못했다. 6. 야곱은 자기에게 딸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루즈에 이르렀다. 6. 이 루즈가 곧 베델이다. 7.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 하였다. 야곱이 형을 피해 갈 때 하느님께서 그 곳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이다. 8. 베델 아래쪽 상수리나무 밑에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묻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곳을 알론바곳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9. 야곱이 비탄아람에서 돌아오는데 하느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20. 말씀하셨

다. “네 이름이 야곱이었지. 그러나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리하여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되었다. 11. 하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다. 너는 많이 낳아 번성하거라. 너에게서 한 민족이, 아니 여러 민족이 모인 집단이 나리라. 네 후손 가운데서 왕들이 태어나리라. 12. 아브라함과 이사악에게 주었던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또한 너의 뒤를 이을 후손에게 준다.” 13.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14.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그 곳에다 석상을 세웠다. 그는 그 돌기둥 위에 술을 붓고 또 기름을 부었다. 15.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그 곳을 베델이라 이름하였다. 16. 그들이 베델을 떠나 가는 도중, 에브랏까지는 아직 얼마 더 가야 하는 데서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다. 난산이었다. 17. 아이를 낳지 못해 고생하는데 산파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아들입니다”하고 위로하는 것이었다. 18. 마침내 라헬은 죽게 되어 숨을 거두면서 야기 이름을 벤오니라고 불렀다. 그러나 야기 아버지는 베냐민이라 불렀다. 19. 라헬은 에브랏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다.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다. 20. 야곱은 라헬의 무덤 위에 비석을 세웠다. 그것이 이날까지 라헬의 묘비로 알려져 있다. 21.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떠나 므달에텔 건너편에 이르러 천막을 쳤다. 22.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고 있을 때였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소실 빌하를 범하였는데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귀에도 들어갔다.

야곱에게는 아들 열둘이 있었다. 23. 야곱이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맏아들 르우벤, 그 아래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싸갈, 즈블룬이었다. 24.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25.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얻은 아들이요, 26. 가드와 아셀은 레아의 몸종 질바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이들은 야곱이 바탄아람에 있을 때에 얻은 아들들이다.

27. 야곱은 마침내 아버지를 찾아 키랏아르바라고도 불리는 마므레에 이르렀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사악이 몸붙여 살던 헤브론이다. 28. 이사악은 백 팔십 세나 살았다. 29. 이사악이 이렇게 명이 다하여 숨을 거두고 죽어 세상을 떠나 선조들 곁으로 가자, 아들 예사오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교리 요약

- * 주님은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주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의 이기심까지도 사용하신다.
- * 말씀속의 어떤 것도 우연히 이뤄지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 * 모든 것은 먼저 지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는 생각이나 행동의 첫 원인이다.

상응 공부

에사오 = 자연적인 선한 의도
야굽 = 진리를 자연적으로 이해함
타국의 우상들 = 세상적인 포부들
리브가 = 교리적인 진리를 사랑하는 것
리브가의 유모 = 유전적인 악
금 귀걸이 = 우리가 순종했던 이기적인 자극들

해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굽과 요셉의 이야기들은 천적인 의미로 볼 때 주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뒤 유아기로부터 성인이 되실 때까지 발달되는 그분의 내적인 삶에 관해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분이 발달시킨 인간으로서의 삶과 우리의 삶은 아주 유사하여 우리에게도 상당부분 적용된다고 덧붙이고 있다. 주님은 마리아로부터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것, 즉 태생적인 인간의 유전성을 입으셨다. 그리고 주님은 이 유전성이 삶에서 주게 되는 시험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남의 표본이 되시기도 한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시대 뒤 에사오와 야굽의 시대로 이어진다. 야굽과 에사오를 주님과 관련시켜 보면 우리 삶의 평면 중에서 자연적인 평면을 상징한다. 야굽은 진리의 측면에서, 에사오는 선의 측면에서의 자연적인 평면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서 자립적인 삶을 꾸리기 시작하는 시점과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아브라함으로 표현되는 아주 어린 시절의 우리는 마음의 이상적인 두 상태인 순진과 신뢰를 잠재의식 속에서 경험하고 저장해 두게 된다. 그 다음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표현되는 어린 시절의 우리는 지식들을 습득하면서 그것들로 추론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추론능력의 발달 초기에 외면적이며 피상적인 안목만 지니게 되지만, 차츰 가치라는 개념에 비중을 둔

보다 진정하고 깊은 안목으로부터 추론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후 우리는 청년기 시절에 이르러 자립적인 삶을 시작하면서 세상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몰두한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이 시기에 이르면서 거룩한 땅을 등지고 서서 지극히 세상적인 일상생활속의 실용적인 문제들에 자신을 헌신한다고 말할 수 있을 지경에까지 이른다. 이런 상태가 바로 본문의 앞장에서 전개되는 하란에서의 야곱의 장기체류가 의미하는 바다.

그러나 하란은 우리의 진정한 고향을 상징하지는 않는다.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는 우리의 삶이 본격화되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삶의 이상이 언제나 움츠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용적이라는 삶의 굴레에 불만족하게 되면 우리의 얼굴은 본향을 향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본문 이전의 야곱과 같이 천천히 여행하고, 삶의 낯은 사상을 되돌아보며 점검하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란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기축 때들까지 끌고 본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고향으로의 도착이 지연 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비록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본향의 경계선에 도착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본향에 실제로 진입하기 전에 우리안의 야곱과 에사오의 재회가 먼저 있어야에만 한다. 이는 천국적인 삶이 주님을 섬기는 면에서 우리의 의지와 이해성이 결합할 때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 다음 본문이 시작된다.

여기서 베델과 연관 지어 상기해 볼 사항은 과거 야곱이 형 에사오의 분노를 피해 집을 떠날 때 그에게 용기를 준 첫 사건인 사다리의 꿈이 이곳에서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 때 야곱은 주님께서 자신을 잘 돌봐 주시고 무사히 귀향하도록 해 주시면 그분을 섬기겠노라고 약속했다. 이제 본문에서 주님의 약속이 모두 성취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야곱이 번성하여 부유함과 함께 평화스럽게 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베델로 되돌아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기 전 가족들에게 그들이 소유한 타국의 우상들을 버리고 옷을 깨끗하게 하도록 명령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천국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느낌과 생각 그리고 행동들을 바꾸며 주님께 등을 돌리는 분단된 충절이 있어지지 않도록 한다면 지켜야할 사항이다. 야곱의 모든 식구들은 그들이 가진 우상들과 귀에 걸었던 귀걸이까지도 야곱에게 내어놓았다. 남의 나라 신들인 우상은 그런 대로 이해되지만 귀걸이까지도 벗어 놓아야 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귀나 귀걸이가 순종과 순종에서 있게 되는 기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이것들은 자기 고집에만 귀를 기울여서 행동하려는 우리의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야곱은 베델로 가기 전 이 모든 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다. 스웨덴붉은 상수리나무 아래에 뭔가를 매장함이란 묻은 것들을 영원히 거절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세겜에서 일시 체류하는 야곱의 모습은

그가 평화로운 상태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노력하는 목표가 서로 나누어져 있는 동안에 우리는 위의 야곱이 갖게 되는 평화의 상태에 이를 수 없다. 이를 가장 명확히 가르치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의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다. 이리하여 야곱이 베델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 다음 구절에서는 난데없이 리브가의 유모가 베델에서 죽었고 상수리나무아래 매장되었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리브가의 유모는 창세기 24장 59절에서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에게 팔려 보내고”라고 적힌 부분에서 짧게 등장되는데, 과거 아브라함이 그의 심복을 하란으로 보내 아들 이사악의 아내를 데려오는 이야기에서 잠깐 언급된 여인이다. 그렇다면 왜 갑작스럽게 과히 중요하지 않은 리브가의 유모가 매장되어 있다고 이 구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일까? 이 구절의 글자적인 의미만으로는 이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이 구절에는 오묘하신 주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 즉, 우리속의 악들은 우리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되 갑작스럽거나 단번에 또는 하루아침에 제거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자신 안의 악을 끊임없이 거절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도록 허용된다는 섭리인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24-30절의 밀 사이에서 자라도록 놓아두신 가라지의 비유를 읽어보면, 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베냐민은 베들레헬에서 태어났다. 그가 그곳에서 태어난 까닭은 우리 삶 중에서 자연적인 삶이 실행할 수 있는 선 가운데 가장 높은 종류의 선을 그가 상징하기 때문이다. 베냐민으로 상징되는 선은 거룩한 땅으로 귀향하기 전에는 생산될 수 없는 선이기도 하다. 물론 이 선으로 이끌어 주는 진리인 요셉은 거룩한 땅 곧 우리가 목표하는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태어나지만 그 진리의 결과물이 되는 선은 아직 생산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라헬의 죽음은 사라가 죽음과 같이 우리의 발달 단계 중 어느 한 단계의 끝을 상징한다. 이 끝남이란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에 더욱 흥미를 갖게 되면서 과거의 경험들이 그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뒷자리로 물러서는 때를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라헬이나 사라 등과 같은 여자들의 죽음이 갖는 의미이다.

이사악의 죽음은 우리의 영적 발달을 보다 큰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볼 때 마지막 단계, 즉 사건이다. 이 사건이란 유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성인에 이르는 성숙의 상태로서 발달의 완료됨을 의미한다. 창세기 49장 31절을 읽어보면, 이사악과 리브가가 막벨라 동굴에 안장되었고 그 뒤 야곱과 레아도 그곳에 안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야곱의 첫사랑은 라헬이었다. 사실 야곱으로서의 레아와 역지로 결혼했기 때문에 야곱과 라헬이 그곳에 안장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레아가 열조들에 소속되어 있었는가를 궁금해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라헬은 진리의 내면을 사랑하는 마음을, 레아는 진리의 외면(외적인 진리)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징한다. 따라서 야곱이라는 자연적인 이해성의 이상향은 라헬이었으나 이런 이해성에 실질적으로 걸 맞는 짝은 레아 일 수밖에 없다. 이삭은 앞서 공부한 바대로 우리의 영적인 추론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삭의 죽음이 영적인 추론을 포기함을 뜻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야곱은 이삭의 모든 것을 소유하였고,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 열조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삭이 우리의 자연적인 삶 곧 일상생활 속으로 흡수되어 이미 하나가 되어 흐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 이삭이 흡수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매일의 각종 사건과 생각이 매일 목상하는 말씀 속에서 꺼낸 진리에 의거해서 분석되고 생각되며 행동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진정으로 선한 외적인 삶이란 삶 속에 아브라함의 순진과 신뢰 그리고 이삭이라는 영적인 가치 개념에 관한 합리적인 이해까지 모두 다 함유하고 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기억하길 바란다.

질문 정리

- 1) 왜 야곱은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갔는가?
- 2) 그는 그곳에서 얼마나 체류했는가?
- 3) 그가 결혼한 두 여자는 누구인가?
- 4) 하란에서 몇 명의 아들이 그로부터 태어났는가?
- 5) 아들 중에서 누가 가장 어렸는가?
- 6) 열 두 번째 아들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 7) 그의 이름은 무엇인가?
- 8) 야곱이 하란에서 귀향할 때 그는 어디로 향했는가?
- 9) 그가 베델에 도착하기 전 멈춘 장소는 어디인가?
- 10) 야곱은 세겟에서 그의 식솔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했는가?
- 11) 누가 베델에 이미 묻혀 있었는가?
- 12) 야곱은 베델에서 무엇을 했는가?
- 13) 주님은 거기서 그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가?
- 14) 야곱은 이삭을 어디서 발견했는가?
- 15) 야곱과 예사오는 어디에 이삭을 안장했는가?

- 16) 리브가의 유모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17) 리브가의 유모가 죽고 매장되었다는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에서 언급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2) 20여 년 3) 레아, 라헬 4) 11명
 5) 요셉 6) 베들레헴 근처 7) 베나민 8) 세겜
 9) 남의 나라 신들과 귀걸이를 버려라 11) 드보라
 12) 돌로 제단을 쌓았다 13) 큰 국가의 선조가 되게 하리라
 14) 헤브론(마르레) 15) 막벨라 동굴 16) 유전적인 이기심
 17)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귀향할 때 우리에게 있었던 이기적인 동인들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7

요셉의 아들들

머리말

요셉의 생애를 간략하게 재조명 한 후 공부를 시작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48장, 50장 22-26절

48장: 1. 이런 일이 있는 뒤 요셉은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는 두 아들 므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다. 2. 아들 요셉이 문병 왔다는 말이 야곱에게 전해지자, 이스라엘은 기력을 가다듬고 침상에 일어나 앉았다. 3. 야곱이 요셉에게 일렀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가나안 땅 루즈에서 나에게 나타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4.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이 생겨 불어나게

하여 많은 민족이 모인 집단을 이루게 하리라. 또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어 길이 차지하게 하리라.’ 5. 그런데 내가 너를 만나러 이집트로 오기 전에 네가 얻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나쎄는 이제 르우벤이나 시므온과 같이 내 아들 항렬에 들어야 한다. 6. 그 아이들 다음으로 난 아들이 네 자식이 되는 것이다. 그 아이들은 형들이 차지할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7. 내가 바탄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길을 가는 도중에 네 어머니 라헬이 죽었다. 에브랏 채 못 미친 길가에 나는 네 어머니를 묻었다. 그 에브랏이 곧 베들레헴이다.”

8.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물었다. “애들이 누구냐?” 9.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곳에서 저에게 주신 제 아들들입니다”하고 요셉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리로 가까이 오게 하여라. 내가 그 아이들에게 복을 빌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10.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앞을 못 보는 처지였다. 요셉이 그들을 가까이 데려 오자 야곱은 그들에게 입을 맞추며 끌어안고 11.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네 얼굴을 보리라고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네 아이들까지 보게 해 주시는 구나.”

12. 요셉은 자기의 아들들을 아버지의 무릎에서 받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했다.

13. 그리고 요셉은 두 아이 가운데 에브라임은 오른 손으로 이끌어 이스라엘의 왼쪽에, 므나쎄는 왼손으로 이끌어 이스라엘의 오른 손 쪽에 가까이 가게 했다. 14. 그러자 이스라엘은 손을 엇갈리게 내밀어 아우인 에브라임의 머리에는 오른손을, 맏아들인 므나쎄의 머리에는 왼손을 얹고 15. 이렇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사악이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아 주신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이날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16.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내준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조상들의 이름 아브라함과 이사악이

이 아이들에게 살아 있기를.

이 세상 한복판에서 왕성하게 불어나기를 빕니다.

17.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는 못마땅하게 여겨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아버지의 손을 므나쎄의 머리에 옮겨 놓으려 했다. 18.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아뢰었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오른손을 이 아이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19. 그러자 거절하며 대답하였다. “아들아, 나도 안다. 왜 모르겠느냐? 이 아이도 한 족속을 이룰 것이다. 크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아우가 형보다 더 커져 그의 후손은 술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20.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의 덕을 입고 살며

‘하느님께서 너를 에브라임처럼

므나쎄처럼 세워 주시기를 바란다’ 하리라.” 이렇게 그는 에브라임을 므나쎄보다 앞세웠다.

21. 그리고 나서 그는 요셉에게 다시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겠지만 하느님께서 너희를 보살피 주시어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22.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 손에서 빼앗은 세겜 하나만은 네 형제들에게 주지 않고 너에게 준다.

50장: 22. 그 후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서 살다 보니 요셉의 나이 백 십 세가 되었다. 23. 그는 에브라임의 후손 삼 대를 보았다. 그리고 므나쎄의 아들 마길의 낳은 아이들도 자기 무릎에 받아 아들 향렬에 들었다. 24. 요셉이 일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을 터이지만 하느님께서서는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어 이 땅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시마고 맹세한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25. 다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서약을 시켰다. “하느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너희는 그 때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그리로 올라가거라.”

26. 요셉이 백 십 세에 죽자 사람들은 그를 썩지 않게 만들어 관에 넣어 이집트에 모셨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마리아로부터 인간성을 입으시고 그 인간성을 신성화 하셨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주님은 인간성을 통해 오게 된 시험들을 극복해 내셔서 인간성을 신성으로 만드셨다.
- * 말씀의 가장 깊은 의미 또는 천적인 의미는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동안 있어진 그분의 내적인 삶을 기술하고 있다.
- * 주님은 우리 속에 저장된 어릴 때의 믿음의 형태를 보존하셔서, 그것을 차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초로 삼으신다.
- * 선을 행할 수 있기 전에 올바른 것을 배워야할지라도 선의지는 반드시 먼저 실제해야 한다.

상용 공부

에브라임 = 우리가 요셉을 수단으로 하여 배우는 진리
므나쎄 = 진리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

해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삶을 시작할 때 세상의 것을 따르는 대신에 주님께 순종하는 쪽, 즉 흔히 말하는 땅의 이치보다 하늘의 이치를 택해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각 사람 안에 교회가 시작되는 때이며, 이때로부터 진정한 영적 투쟁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게 된다. 우리속의 모든 이기적인 사고나 습관들은 우리의 이러한 새로운 각오와 그 영향력에 저항하려고 일제히 일어서게 된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속의 회미한 곳, 즉 우리 자신도 알아채기 힘든 우리 속 깊은 어딘가에 우리의 “요셉”을 보존해 두시면서 그를 위대하고 능력 있게 발달시켜주신다. 그리하여 주님은 기근의 때 곧 실제 시련이 닥쳐오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요셉을 재발견하도록 해주시고 이집트에 있는 그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다. 이때로부터 우리는 가장 진지한 역사를 시작한다. 그 역사란 주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에 대한 진정한 배움이 시작된다는 말이다.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의 보호와 보살핌 하에 스스로를 맡겼던 성경의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앞서 공부했던 에사오와 야곱의 이야기를 연상케 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야곱이 비록 쌍둥이 중의 맏이는 아니었지만 에사오로부터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서 가계를 계승했다는 것이다. 므나쎄와 에브라임 형제도 에사오와 야곱처럼 선과 진리를 상징한다. 그러나 그들이 상징하는 선과 진리는 에사오와 야곱과는 수준이 다르다. 에사오와 야곱이 상징하는 선과 진리는 거듭나지 않고 있는 자연적인(인간적인) 평면에서의 선과 진리, 즉 단순히 선택지고자 하는 의향과 생기가 넘치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란에서 있게 되는 야곱의 체류와 베델로의 귀환 그리고 요셉이 봉기하여 권력을 쥐게 되는 사건들은 우리의 영적인 전진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지점까지 그리고 선행을 지적으로나마 경험한 지점까지 도달하게 된다.

스웨덴북은 “교회의 지적인 것”과 흔히 말하는 “지적인 것” 사이를 명확히 구분 짓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뒤의 참고 문헌에서 언급되고 있다. 에브라임과 므나쎄는 하느님과

관련이 없는 선에 대한 우리의 의지 혹은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교회의 지적인 것과 그 교회의 선을 표현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러한 선이나 진리가 자칫 영적인 수준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 선과 진리는 자연적인(인간적인) 평면에서 존재한다. 그 이유는 므나쎄와 에브라임의 본적지가 이집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므나쎄와 에브라임이 상징하는 선과 진리는 우리 영혼의 보다 높은 곳에 근원을 둔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근원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접촉되는 장소임을 유념해할 것이다.

므나쎄는 에사오처럼 만아들이었다. 즉, 항상 의지가 먼저라는 말이다. 우리는 의지가 발동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으며 손 발 하나도 까딱거리지 않게 된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는 올바른 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고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시점으로 우리가 이르도록 우리의 심정에 좋은 자극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우리 안의 선한 의도가 방향을 잃어버린 듯이 보이거나 심지어 일을 선하게 처리하려고 의도했으나 막상 일을 하다 보니 남을 다치게 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흠칫 놀라게 되는 일 등이 흔하다. 우리의 선한 의도가 올바른 행동을 낳게 하려면, 우리는 먼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생각해야만 한다. 이런 이유로 야곱이 형 에사오를 밀치고 형의 역할을 하는 것, 즉 앞서기가 허용된 것이고, 본문에서 에브라임이 므나쎄보다 앞서도록 허락된 것이다. 요셉은 본문 18절에서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만아들입니다.”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말한다. 이는 우리의 내적 지각인 요셉이 의지가 먼저 있어야 함을 알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9절에서 야곱은 “아들아, 나도 안다. 왜 모르겠느냐?”라고 대답한다. 즉, 우리의 “실용적인 본성”은 우리의 이해성이 먼저 심사숙고함을 가져야만 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야곱은 이렇게 아들들에게 분부하고 나서 침상에 바로 누워 마지막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이 49장의 마지막 구절 말씀이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었다. 하지만 그의 유언에 따라 그의 아들은 그의 시신을 아브라함과 사라, 이사악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묻혀 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 동굴에 안장했다. 요셉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참동안 더 생존했지만, 그 역시 이집트에서 죽었다. 그는 야곱처럼 즉시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백성들이 모두 돌아갈 것임을 예견하고 그들이 돌아갈 때 “너희는 그 때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그리로 올라가거라.”하고 일가 사람들에게 서약을 시켰다. 하지만 요셉이 죽은 후로도 이스라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상당한 세월동안 머물렀다.

위의 글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반화된 모습이다. 즉, 우리가 부단히 노력한 결과 영적인 건강이나 위안이 특별한 노력 없이도 우리에게 보증되어 진다고 생각하는 때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업이 번창하고 모든 가족이 교회에 참석하며, 이웃을 전도하면서 교회의 일에 협조하고 있으니 별 근심이나 걱정이 없어.”라고 생각하며 안심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유사하다. 그리고는 “나는 구원 받았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심지어는 ‘나는 교회 활동에 협력하고 열심을 내니까 이제 교회 내에서 존경받을 만한 완전한 인격자가 되었을 거야.’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은 “그 동안 말씀을 너무 많이 읽었으니까 다른 것도 좀 읽어야지”, “이제 성경이 뇌리에 박혀있어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될 거야.”. 혹은 “내 양심대로 해도 선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중단기도 한다. 이런 궤변적인 태도가 바로 출애굽기 제 1장이 표현하고 있는 바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이집트에 체류하는 기간에 상관없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요셉이 백 십 세에 죽자 사람들이 그를 썩지 않게 만들어 관에 넣어 이집트에 모셨다”라는 구절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요셉이 언젠가 제자리로 복귀될 때를 위해 이집트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말한다. 즉, 주님께서 과거 우리의 영적 지각을 보존하시어 우리가 그 지각을 다시 필요로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이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사항은 주님의 섭리가 우리의 외적인 삶 곧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넘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지각의 필요성을 깨우치도록 우리에게 닥치는 경험(고난)을 허락하시는 섭리(출애굽기 11장)를 하심을 알아야 한다.

질문 정리

- 1) 왜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로 가게 되었는가?
- 2) 요셉은 그의 가족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 3) 이집트에서 요셉으로부터 태어난 두 아들은 누구인가?
- 4) 요셉의 큰아들은 누구인가?
- 5) 왜 요셉은 야곱의 임종이 다가오자 그의 아들을 데려 왔는가?
- 6) 요셉은 그의 아들 중에서 누가 먼저 축복 받아야 한다고 예상했는가?
- 7) 야곱은 누구에게 첫 축복을 내렸는가?

- 8) 야곱은 어떤 특별한 혜택을 요셉의 아들에게 내렸는가?
- 9) 야곱은 어디에 매장되었는가?
- 10) 그 매장지에는 야곱 외에 누가 더 매장되어 있었는가?
- 11) 요셉은 죽을 때 가족에게 어떤 약속을 받아 냈는가?
- 12) 요셉의 시신은 어떻게 보관되었는가?
- 13) 므나쎄와 에브라임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4) 왜 야곱은 둘째 아들에게 첫 축복을 내렸는가?

질문의 답

- 1) 기근 2) 먹을 것과 집을 제공했다 3) 므나쎄, 에브라임 4) 므나쎄
- 5) 축복 받기 위해 6) 므나쎄 7) 에브라임 8) 그들을 자식으로 삼았다
- 9) 막벨라 동굴 10) 아브라함, 사라, 이사악, 리브가, 레아
- 11)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자신의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는 것 12) 미이라
- 13) 에브라임 = 교회에 대한 지식, 므나쎄 = 교회의 지식에 따라 살고 싶은 바램
- 14) 우리에게 항상 첫 번째로 있어야 할 사항이 올바른 것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8

과 월 절

머리말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변화와 모세의 출생 그리고 그를 부르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다. 그리고 본문에 있는 마지막 재앙인 열 번째 재앙과 과월절을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12장

12장: 1. 야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2.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고, 달수를 이 달에서 시작하여 계산하여라. 3. 너희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알려라. 이 달 십일에 사람마다 한 가문에 한 마리씩, 한 집에 한 마리씩 새끼 양을 마련해 놓아라. 4. 만일 식구가 적어 새끼 양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생각하여 옆집에서 그만큼 사람을 불러다가 먹도록 하여라. 5. 흠이 없는 일년 된 수컷이면 양이든 염소든 상관없다. 6. 너희는 이 달 십사일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해질 무렵에 잡도록 하여라. 7. 그리고 그 피를 받아, 그것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문 상인방에 바르라고 하여라. 8. 그 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도록 하는데, 9. 날로 먹거나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10.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 두어서도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살라 버려야 한다. 11.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나 야훼에게 드리는 과월절이다. 12. 그 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전국에 있는 만이들을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조리 치리라. 또 이집트의 신들도 모조리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다.

13. 집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것이 너희가 있는 집이라는 표시가 되리라. 나는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를 보고 너희를 쳐 죽이지 않고 넘어 가겠다. 너희가 재앙을 피하여 살리라.

14. 이 날이야말로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야훼께 올리는 축제일로 삼아 대대로 길이 지키도록 하여라.

15. 너희는 칠 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아예 첫날에 집안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 버려야 한다.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 든 빵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제명된다.

16. 첫날 거룩한 모임을 열고 칠 일째 되는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그 날에는 그 동안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 말고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17. 너희는 무교절 축제를 지켜야 한다. 이 날은 바로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날이니,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영원한 축제일로 정하고 지키도록 하여라. 18. 정월 십사일 저녁부터 이십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19. 칠 일간 너희 집안에서 누룩이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누룩이 든 음식을 먹은 자는 외국에서 와 사는 사람이든지 본 고장 태생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제명되리라. 20. 누룩이 든 것은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너희가 어디에 머물러 살든지 누룩 없는 빵만을 먹어야 한다.”

21.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다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집집마다 양을 한 마리씩 끌어다가 과월절 제물로 잡으시오. 22. 우슬초뭉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받은 피를 묻혀 문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시오. 아침까지 아무도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오. 23. 야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며 지나가시다가 문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는 그 문을 그냥 지나가시고 파괴자를 당신들의 집에 들여보내어 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실 것이오. 24. 당신들은 이것을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을 위하여 길이 정해 놓고 반드시 지켜야 하오. 25. 당신들은 야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가게 되거든 이 예식을 지키시오. 26. 당신들의 자녀들이 이것이 무슨 예식이냐고 묻거든 27. 이것은 야훼께 드리는 과월절 제사라고 일러 주시오.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그냥 지나가시어 우리의 집을 건져 주신 야훼께 드리는 것이라고 일러 주시오.” 이 말씀을 듣고 백성은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

28.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서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29. 한밤중에 야훼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만아들을 모조리 쳐 죽이셨다. 왕위에 오를 파라오의 만아들을 비롯하여 땅굴에 갇힌 포로의 만아들과 짐승의 만배에 이르기까지 다 쳐 죽이셨다.

30. 그러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한밤중에 모두 일어났다. 이집트에서는 곡성이 터졌다. 초상나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31. 파라오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들어 말하였다.

“너도 이스라엘 백성도 어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 가거라. 너희가 말하던 대로 가서 야훼를 예배하여라. 32. 너희가 요구한 대로 양도 소도 모두 끌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 다오.”

33. 이집트인들도 자기네가 모두 때죽음을 당하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떠나 달라고 재촉하였다. 34. 그들은 빵 반죽이 부풀기도 전에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 메고 나섰다.

35.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일러 준 대로 이집트인들에게 은붙이와 금붙이와 옷을 내라고 하였다.

36.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집트인들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인들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내어 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인들을 털었다.

37.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라므세스를 떠나 수곳으로 향했는데, 딸린 식구를 빼고 장정만도 육십 만 가량이 되었다. 38. 그 밖에도 많은 잡식구들이 따라 나섰고 소와 양 등 가축들도 떼지어 따랐다.

39.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누룩 없는 빵 반죽으로 과자를 구워야 했다. 이집트에서 경황없이 나오느라고 먹을 것을 미처 장만하지 못했던 것이다. 40.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머무른 것은 사백 삼십 년 동안이었다.

41. 마침내 사백 삼십 년이 끝나던 바로 그 날에 야훼의 군대는 모두 이집트 땅에서 빠져 나왔다. 42. 그 날 밤, 야훼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밤새워 가며 지켜 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대대로 야훼를 생각하며 이 밤을 새워야 하는 것이다.

43.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과월절을 지키는 규칙은 이러하다. 외국인은 아무도 제물을 같이 먹지 못한다. 43. 다만 돈을 주고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자이면 같이 먹을 수 있다. 45. 머슴이나 몸 붙여 사는 사람도 같이 먹지 못한다. 46. 어느 집이든지 한 집에서 먹어야지 고기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뼈를 꺾어도 안 된다. 47. 이스라엘 회중은 누구나 과월절 축제를 지켜야 한다. 48. 너에게 몸붙여 사는 사람으로서 야훼께 과월절 제물을 드리려면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함께 먹을 수 있고 같은 본토민처럼 되는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같이 먹을 수 없다. 49. 본토민이든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사람이든 이 법 앞에서는 동등하다.” 50.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51. 바로 이날에 야훼께서는 부대를 편성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던 것이다.

교리 요점

- * 우리는 악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 과월절은 말씀에서 거듭 반복되어져 우리에게 기억되는 사건이며, 말씀의 각 책을 한 권의 책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준다.
- *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은 영적인 용도에 충당될 수 있다.
- * 말씀에서 배운 것을 즉시 실행하는 영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상응 공부

첫 배 = 믿음
어린 양 = 순진
누룩(이스트) = 거짓
쓴 나물 = 시험

해설

우리는 본문으로부터 성경의 두 번째 책에 접어들게 된다. 단어 출애굽이란 히브리어로 “나감”이란 뜻이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50장 24절에 있는 요셉의 예언이 약 200년이 지나서 성취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 본문 4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머무른 것이 430년 동안이었다”고 함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에 머물렀었던 때로부터의 햇수이다.

창세기 46장 26-27절을 보면 야곱에게 딸린 모든 식구가 칠십 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본문 37절에서와 같이 과월절 밤에 이집트를 빠져나간 숫자는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60만 명이나 되었다. 이집트인들은 이러한 인구증가를 두려워하여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만들고 말았다. 이로 인해 히브리인들의 이집트 생활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이집트에 머문 시기란 우리가 기억 속에 지식을 획득하는 시기를 표현한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위해서 말씀의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들 속에 든 내적 의미를 토대로 이뤄진 교리까지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될 때 그것을 우리의 삶에 사용하는 것을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기근이 끝나자마자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아갔었어야 함이 의미하는 바다. 반면에 우리가 지식을 습득해서 사용하려는 노력 없이 계속 기억 속에 담아 놓기만 하면, 우리는 “이집트 안에서 노예”가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요셉의 보호 곧 영적인 힘에 의해서 보호되지 못한다. 이 내용이 1장 8절에서의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왕이 새로 이집트 왕이 되어”가 의미하는 바다. 이리하여 우리는 이스라엘의 후손들 같이 하느님의 이름, 즉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보기마저 잊어버리게 된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까지 이르게 되면, 주님은 우리 안에 형성된 세상욕과 무신론의 극렬한 결과를 보여 주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 이것이 바로 장자를 죽이는 재앙으로 극에 달한 이집트에 대한 열 가지 재앙들이 의미하는 바다. 장자는 믿음을 상징한다. 어떤 이가 파라오같이 세상적이고 악한 과정의 나쁜 결과를 누차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계속 저항한다면, 결국 그는 믿음속의 참 가능성마저 파괴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리하여 이스라엘로 표현되는 영적 삶 속에 든 모든 것이 그로부터 빠져나가게 되고, 그가 습득한 지식 속에 든 가치 있는 것들도 영적인 것과 함께 빠져나가게 된다. 이것이 파라오에게 닥친 재앙들의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진군하고 있다. 이 백성들은 모든 재앙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인들이 당한 대 황폐를 목격하면서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빠져나갈 준비를 갖추었다. 모세란 신성한 법을 상징한다. 그들은 다른 아홉 가지의 재앙들과 달리 마지막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뿔기를 해야만 했다. 즉, 그들 스스로 주님께 순종하며 그분께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인정하는 무언가를 행동으로 보여야 했다는 말이다.

과월절의 어린 양은 순진을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의 참고 문헌을 읽어 보면 이해될 것이다. 어린 양의 피란 순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는 진정한 생각들을 의미한다. 각 집의 문설주란 마음의 문을 상징한다. 그래서 거기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순수한 애착에서 솟아나는 진정한 생각으로 마음의 문을 거짓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킴을 의미하게 된다. 주님께서서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그것을 “불에다 구워 먹고, 삶거나 날로 먹지 않도록” 명하셨다. 그 이유는 선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단지 정신적 관념차원에서 선에 대한 흥미를 갖고 즐기거나 단순히 인정하는 식으로 선을 대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누룩 없는 빵이란 케케묵은 거짓 사상과 혼합되지 않은 근본적인 선함을 표현한다. 그 당시의 누룩(이스트)이 오래된 빵가루이었음을 생각해보면 위의 내용이 이해될 것이다. 쓴 나물이란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고 극복해야 할 시험들을 상징한다. 끝으로 우리가 위의 사항들을 이행할 때(먹을 때), 우리는 여행할 채비 곧 허리에 띠를 띤 채로 먹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새로운 원리를 사용해야겠다고 결심한 즉시 실행해야 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새 잎이 솟아나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여행을 출발함에 있어서 이집트에서 가치 있는 것들인 금과 은 그리고 의복을 모두 챙겨 가지고 떠나야 한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습득한 가치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식 모두를 챙겨서 새로운 삶의 길로 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과거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체류하다가 귀향할 때 금과 은 그리고 가축 떼를 많이 가진 부자가 되어서 귀향했음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제자들과 함께 그분의 마지막 만찬인 과월절 음식을 드시며 그 날을 기념하셨다. 그분은 이 기념식에서 모든 제자와 기독교회를 위해서 과월절 대신 기념해야 할 새 축제를 제정하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성만찬인 것이다. 주님의 성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는 어린 양의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대신하고 있다. 성만찬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옥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것은 주님이 율법과 예언을 성취시키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질문 정리

- 1) 요셉이 죽은 후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무엇이 발생했는가?
- 2) 누가 이 후손을 이집트에서 꺼내도록 세워졌는가?
- 3) 무엇이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이 후손들을 떠나가도록 만들었는가?
- 4) 몇 개의 재앙이 이집트인들에게 내려졌는가?
- 5) 마지막 재앙은 무엇인가?
- 6) 장자가 죽지 않도록 이스라엘 후손에게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가?
- 7) 이집트인들은 이 후손들이 빠져나가는데 무엇까지 제공했는가?
- 8) 이 후손들은 이집트를 떠나기 직전 무슨 축제를 가졌는가?
- 9) 왜 이 축제가 과월절이라고 불리게 되었는가?
- 10) 어린 양의 고기는 어떻게 요리하도록 지시되었는가?
- 11) 그 고기와 더불어 무엇을 먹었는가?
- 12)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떤 차림으로 먹었는가?
- 13) 먹고 남은 어린 양의 고기는 어떻게 했는가?
- 14) 이집트를 떠날 때 이 후손의 인구는 얼마였는가?
- 15) 그들은 과월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회상했는가?
- 16) 이 축제는 일 년에 몇 번 준수되었는가?
- 17) 기독인은 과월절 대신 어떤 축제를 지키는가?
- 18) 이 축제는 언제 그리고 누구에 의해 제정되었는가?
- 19) 어린 양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20) 순진이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노예가 되었다
- 2) 모세
- 3) 재앙
- 4) 10
- 5) 장자가 죽는 재앙
- 6) 문에 어린양의 피를 바르라
- 7) 금, 은, 의복
- 8) 과월절

- 9) “그 피를 보고 너희를 쳐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10) 불에 구웠다
 11) 누룩 없는 빵, 쓴 나물
 12)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13) 불에 살랐다 14) 60만 15) 노예로부터의 해방
 16) 매해 한 번씩 영원히 17) 성만찬
 18) 예수님께서서 목요일 저녁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19) 순진
 20) 해치지 않음, 주님의 인도를 기뻐함

9

르비딴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머리말

우리에게 친숙한 출애굽기에서의 몇 가지 사건들인 홍해를 건넜던 것,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되었던 것, 엘림에서의 휴식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음 등을 간략히 언급하면서 본문을 시작한다. 앞서 했던 공부와 본문의 요점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해주셨던 것이라고 사료된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17장

17장: 1.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썩 광야를 떠나 야훼의 지시대로 진지를 옮겨 가면서 전진하였다. 르비딴에 이르러 먹을 물이 없는 것을 보고, 2. 백성들은 모세에게 먹을 물을 내라고 들이대었다. 모세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느냐?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하고 말했지만, 3. 백성들은 당장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었으므로 모세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어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 내 왔느냐? 자식들과 가족들과 함께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4.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저를 돌로 쳐 죽일 것만 같습니다.” 5.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 오너라.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오너라. 6. 내가 호렘의 바위 옆에서 네 앞에 나타나리라. 네가 그 바위를 치면, 물이 터져 나와 이 백성이 마시게 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켜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7.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들었다고 해서 이 고장 이름을 트리바라고도 하고 “야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하며 야훼를 시험했다고 해서 마싸아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8.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 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움을 벌였다. 9.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다. “장정을 뽑아서 내일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나는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 10.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다.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언덕 위에 올라 가 있었다. 11. 모세가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후르는 모세의 팔을 좌우에서 각각 붙들어 떠받치니 해가 질 때까지 그의 팔은 처지지 않게 되었다. 13.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쳐 이겼다. 14.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후세에 남겨 두어라. 그리고 내가,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늘 아래에서 전멸시키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똑똑히 일러 주어라.” 15. 모세는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 니씨라고 이름을 붙이고 16. “야훼의 사령기를 향해 손을 들자. 야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 주시리라”하고 외쳤다.

교리 요점

- * 우리는 주님께 꾸준히 도움을 간구할 때 우리의 시험들을 극복할 수 있다.
- * 우리가 어떤 삶이 올바른가를 모색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한다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 *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실제로 믿고 있지 않는 것이다.
- * 우리를 낙심 속에 빠지게 하려는 악은 언제나 우리 속 깊은 곳에 드러누워 있다.
- * 낙심은 이기심의 발현이다.

상용 공부

바위 = 근본 되는 진리
 물 =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진리
 모세 = 신성한 법
 여호수아 = 싸우는 진리
 아말렉 =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

해설

우리는 간혹 “만약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그곳에 있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구름(불)기둥이 나를 인도해 주는 것을 경험하며 마라의 쓴물을 맛본 뒤 기적으로 바뀐 단물을 마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는 경험들을 했다면, 나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께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을 거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있게 되는 경험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임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말씀은 항상 우리 앞에 있으며, 구름(불)기둥처럼 앞장서서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한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며 먹여 주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이나 시험이 닥치게 될 때마다 “하느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하는 태도를 보이며 불평하고 의심하기 시작한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따라 남쪽으로 여행하고 있다. 그들의 여로는 시나이 산을 향하고 있었지만 내륙으로 돌아가는 길로 가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르비딤이라고 불리는 좁고 메마른 계곡을 통과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목말라 죽겠노라고 불평을 터트렸다. 목마름이란 진리의 결핍을 뜻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정말 좋은 교인처럼 보였던 사람이 극심한 곤경에 처했을 때 “내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왜 내가 이런 곤경에 처해야 하는 것일까?”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순식간에 주님을 잊은 듯한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본문의 4절에서 ‘당장 돌로 쳐 죽일 것만 같이’ 모세에게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의미하는 바다. 이 순간 주님은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 오너라. 나일 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오너라.”라고 대답하신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인정하신 원리들 중 얼마를 취하여 과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셨던 모든 것에 관한

기억을 찾아내고 그렇게 얻은 원리와 기억들을 동원해서 당면한 문제에 응용해 보라는 것이다. 주님은 6절에서 “내가 호렙의 바위 옆에서 네 앞에 나타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호렙의 바위란 우리가 발견한 진리 중에서 특별히 말씀 속에서 발견한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네가 그 바위를 치면, 물이 터져 나와 이 백성이 마시게 되리라.”하고 말씀하신다. 지팡이로 바위를 친다고 함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을 진실로 우리의 삶에 응용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말씀으로 나아가려는 주님의 분부인데, 이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진리 곧 생명수를 주실 것이라는 의미이다.

위와 같이 주님은 우리가 곤경에 처하게 될 때 우리 안의 숲 속에 잠복해 있는 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신다. 게다가 우리가 이러한 적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들과 싸워 보기 전까지는 어떤 영적인 진보도 이루지 못함도 알고 계신다. 그 적이란 바로 아말렉이다. 아말렉이란 이름은 “계곡에 거하는 자”라는 뜻이다. 창세기에 따르면 아말렉은 에사오의 손자로서 아브라함의 가계에서 파생된 분과 중 하나다. 아말렉이란 우리가 인생의 초기에 자아 의지나 자기 이익만을 추구함에 따라 파생되는 결과를 표현하는데, 이 결과는 그 저항성이 아주 강한 것이 특징이다. 신명기 25장 17-18절에서 알 수 있듯이 아말렉족은 숲 속에 잠복해 있다가 등 뒤에서 공격하며 심지어 뒤쳐지는 허약한 병사만을 해치워 간다. 따라서 우리가 지치고 실망할 때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튀어나오는 과거의 낡고 잘못된 습관들을 말한다.

여호수아는 본문에서의 전투에서 지도자로 처음 언급되는 인물인데, 그는 후에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다. 여호수아란 싸우는 진리를 표현한다. 사실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리더십만으로 전투를 승리로 이끌 만큼 잘 훈련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체계도 없는 상태였다. 예를 들어, 젊은 시기의 전투들 곧 자신이 지닌 진리를 어떤 논쟁에 사용하려고 할 때 그 논쟁이 타인과의 사이에서나 자신속의 이기적인 느낌과의 사이 또는 진리를 사용하는 면에서의 경험 미숙으로 상대방이나 자신속의 악에 말려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본문에서 아주 교활한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신다. 이시기의 우리는 아직 모세, 즉 계명에 단순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다. 이러한 순종은 주님의 권능을 우리 삶 안으로 가져다준다. 모세는 언덕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향해 그의 팔을 들어 올렸다. 즉, 우리가 계명에 대한 우리의 순종심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싸우고 있는 낮은 심정 상태에서 들어 올려 극복해낼 힘을 주님께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모세가 힘이 빠지자 그는 바위위에 앉았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지치게 되면 잠시라도 주님 안에서 휴식해야 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론과 후르는 모세의 팔을 떠받쳐 주었다. 본문의 모세와 아론 그리고 후르는 세 가지 수단을 상징한다. 주님은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여금 지치고 실망할 때 공격해오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탱시켜 주신다. 모세란 우리가 말씀에서 직접 받는 진리이며, 아론이란 교회의 교리를 통하여 받는 진리이다. 그리고 후르란 교회나 주일학교 또는 부모나 선생님들을 통해 받는 진리로서 우리가 진리를 삶에 적용시키 고자 할 때 상당한 도움을 준다. 출애굽기 24장 13-14절에서의 모세는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오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백성들에게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아론과 후르에게 판단해 달라고 일러두고 있는데,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바로 위의 말에 대한 예가 될 것이다. 우리가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진리를 꾸준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시험이 끝나는 때 곧 이기적인 욕구가 솟구치는 것을 의미하는 “해가 질 때까지” 우리에게 하여금 참고 견디게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마침내 시험을 정복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승리의 영예를 자신에게로 돌려서는 안 된다. 16절에서 모세가 주님께 제단을 쌓아 승리한 장소를 표시해 두어 기억하려고 했듯이, 우리 역시 주님을 찾을 때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가?
- 2) 무엇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는가?
- 3) 본문에서 이 백성들이 도착한 지명은 무엇인가?
- 4) 그들은 왜 불평했는가?
- 5) 주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6) 모세가 바위를 치자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 7) 이후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 8) 누가 전투를 위해 지도자로 임명되었는가?
- 9) 모세는 무엇을 했는가?

- 10) 누가 모세와 더불어 언덕에 올라갔는가?
- 11) 모세는 전투 상황을 어떻게 좌우할 수 있었는가?
- 12) 그가 지치자 누가 그를 도왔는가?
- 13) 모세는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 14) 바위에서 물이 솟아남이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아말렉은 무엇을 그리는가?
- 16)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한 이스라엘이 승리했는데, 이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본문에서의 아론과 후르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홍해가 갈라짐 2) 구름(불)기둥 3) 르비담 4) 물이 없어서
- 5) 바위를 치라 6) 물이 솟아났다 7) 아말렉 8) 여호수아 9) 언덕위로 올라갔다
- 10) 아론과 후르 11) 팔을 들고 있음으로 12) 아론, 후르, 돌 13) 계단
- 14) 팍팍한 진리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기울임 15) 실망, 유전적인 자아 의지에 기초를 둠
- 16) 하나님쪽으로 생각을 들어올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분의 도우심을 회상함
- 17) 아론 - 교회의 교리, 후르 - 성경학교, 교회, 부모님, 선생님에게서 배운 생각들

10

금 송 아 지

머리말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출애굽기 19장과 20장 그리고 24장을 읽은 후 시나이 산에 도착해서 본문까지의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기억되도록 한다. 모세는 계명을 받기 위해 여러 번 산을 오르내렸

다. 특별히 24장 18절은 32장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된다. 모든 백성들이 산에서 오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고 몇 번씩이나 그분께 순종하겠노라고 약속해왔던 점을 상기하면서 본문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자.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32장 1-24절

32장: 1. 백성은 모세가 오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몰려와 청하였다. “어서 우리를 앞장설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 온 그 어른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 아론이 그들에게 “너희 아내와 아들 딸의 귀에 걸린 금고리를 나에게 가져오라”하고 대답하자 3. 백성이 모두 저희 귀에 걸린 금고리를 떼어 아론에게 가져왔다. 4.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수송아지 신상을 부어 만들자 모두들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 내 온 우리의 신이다.” 5. 아론은 이것을 보고 그 신상 앞에 제단을 만들고 “내일 야훼 앞에서 축제를 올리자”하고 선포하였다.

6.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친교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나서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정신없이 뛰놀았다. 7.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당장 내려 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에서 데려 내 온 너의 백성들이 고약하게 놀아나고 있다. 8. 저들이 내가 명령한 길에서 저다지도 빨리 벗어나 저희 손으로 부어 만든 수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 내 온 우리의 신이다’라고 떠드는구나!” 9. 야훼께서 계속하여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이 백성을 잘 안다. 보아라,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나? 10.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진노를 내려 저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너에게서 큰 백성을 일으키리라.”

11. 모세는 그의 하느님 야훼의 노기를 풀어 드리려고 애원하였다. “야훼여, 당신께서는 그 강하신 팔을 휘두르시어 놀라운 힘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 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이토록 화를 내시옵니까? 12. 어찌하여 ‘아하, 그가 화를 내어 그 백성을 내다가 산골짜기에서 죽여 없애 버리고 땅에 씨도 남기지 않았구나’ 하는 말을 이집트인들에게서 들으시려 하십니까? 제발 화를 내지 마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려든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13. 당신의 명예를 걸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다 너의 후손에게 주어 길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겠다’고 맹세해 주셨던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14. 이 말을 들으시고 아훼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15. 모세는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돌아 서서 산에서 내려 왔다. 그 두 판 양면에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새겨져 있었는데, 16. 그 판은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었다. 그 판에 새겨진 글자도 하느님께서 손수 새기신 것이었다. 17. 백성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하였다. “진지에서 들려 오는 저 소리를 들으니 전쟁이 터졌다 봅시다. 18. 모세가 말을 받았다.

“그것은 승리의 노래도 아니요,

패전의 곡성도 아니다.

나 듣기에 저것은 화답하는 노랫 소리다.”

19. 모세가 진지에 가까이 이르러 보니, 무리가 수송아지를 둘러싸고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격분한 나머지 손에 들었던 두 판을 산 밑에 내던져 깨뜨렸다. 20. 그는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끌어다가 불에 태우고 빵아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하였다.

21. 모세가 아론을 나무랐다. “이 백성이 당신을 어떻게 했기에, 당신은 그들이 이토록 큰 잘못을 저지르게 하였소?” 22. 아론이 변명하였다. “우리의 영도자여, 노여워 마시게. 이 백성이 얼마나 악에 젖어 있는지 당신도 잘 알지 않는가 23. 그들이 나에게 와서 우리를 에집트 땅에서 데려 내 온 그 어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앞장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조르더군. 24. 그래서 내가 금을 가진 사람이 없느냐고 했더니, 금을 가진 자들이 몸에서 금을 떼어다가 주기에 그것을 불에 넣었지. 그랬더니 이 수송아지란 놈이 나오더군.”

교리 요점

- * 주님 외에 다른 어떤 대상물이 삶의 첫 번째에 놓이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속해야 한다.
- * 주님은 성경에서 사람들의 약함을 보여 주시는데, 실상 우리의 약함을 보여주고 계신다.
- * 우리 역시 감각적인 경험만을 의존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기가 쉽다.
- *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은 우리를 올바르게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상용 공부

40 = 시험이 가득 찬 상태
송아지 = 외적인 선을 사랑함

해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석 달 동안의 광야여행 끝에 시나이 산 밑에 도착하여 진을 치게 되었다. 성서 역사학자들은 십계명이 모세 이전 시대에 이미 고대인들의 법속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어떤 이들은 십계명이 시나이 산으로부터 주님에 의해 주어지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자체를 믿지 않으려고 든다. 그러나 십계명은 주님께서 주신 법칙으로서 인간 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질서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십계명이 주님의 법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실상은 십계명의 원칙에 의해서 세워진 사회의 기본 법칙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어떤 국가적인 형태 없이 노예 생활을 해 온 터라 자기들의 진정한 하느님의 이름까지도 잊어버린 상태였다. 그들은 지상적인 삶에서의 만족 외에 어떤 다른 바램도 갖지 않게 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영적인 자유를 간섭하지 않고서도 그들의 역사를 인도하실 수 있었다. 그들의 관심사가 오로지 외적인 것들에만 있어서 주님께서서는 장차 그들의 역사가 상응의 의미를 가져서 성경 속에 담겨지도록 하셨다.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외적인 예배형태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분을 따르면 보상이라는 희망을 주실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분을 배반하면 처벌이라는 체벌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인도하실 수 있었다.

본문은 위의 사실들을 상징적인 형태로 말해주고 있다. 또한 본문은 우리가 세상적인 상태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도 알려준다. 모세는 신성한 법을 상징한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진리를 표현한다는 말이다. 모세는 성막의 관리와 건축을 위한 지침을 받기 위해 산으로 불려 졌고, 여호수아가 그와 동행하도록 허락되었다. 그리고 아론과 후르는 백성들의 사건을 담당하기 위해 백성들과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모세는 산꼭대기의 구름 속으로 사라져서 그곳에서 사십 일을 주야로 지냈다. 우리에게도 이와 아주 유사한 일이 일어난다. 즉,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의 권능과 그분의 직접적인 리더십에 대한 느낌들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여겨지며 종교 훈련이나 습관적이고 도덕적인 규약들만 남아 있는 듯 여기는 때이다. 우리는

이러한 때, 즉 우리의 영적인 삶이 아주 퇴보된 듯 여겨지는 때에 세상적인 생각이나 사랑에 몰입되기 쉽다. 사십 일 주야란 이런 시험이 우리 안에 가득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소란 세상적인 용도인 사업, 전공분야, 예술, 음악, 학문 그리고 과학 등에 빨려드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다. 이런저런 세상적인 용도가 주님과 이웃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선한 용도임을 틀림없는 사실이다. 단지 그것들 자체를 신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송아지란 이런 세상적인 용도들에 관한 지식을 사랑함을 상징한다. 따라서 본문에서 송아지를 예배함이란 세상적인 성공을 삶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의미하게 된다. 좀 더 설명하자면, 우리가 자신의 전공을 살리기에 바빠서 또는 자신의 사업이 일요일에 특별히 더 잘 되어서 또는 일요일에는 친구들이 모일 수 있어서 등의 핑계를 내세워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거나 교회에 갈 수 없다고 할 경우에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총만해지면(6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상태는 신성한 법의 심판에 갑자기 노출되고 만다(19절).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양손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새긴 계명의 두 돌 판이 들려 있었다. 이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신성한 법 곧 행복한 삶의 기본법이 계명임을 명시해 주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지상적인 것들 외에는 어떤 것에도 가치를 부여할 수 없게 변해 있었다. 19절에서 이룬바 “송아지를 둘러싸고 춤을 추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첫 돌 판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세워 놓았던 우상이 먼저 파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태의 사람, 즉 이기적인 사랑에 의해 자신의 삶이 점유되도록 방치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진리란 더럽혀진 형태의 진리 곧 거짓화된 진리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20절에서의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끌어다가 불에 태우고 뺏아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 마시게” 한 구절이 뜻하는 바다.

모세는 첫 돌 판과 송아지가 부서지고 백성들에 대한 처벌이 끝난 후에 다시 산으로 부름을 받았다. 주님은 모세에게 산 아래서 돌을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오면 첫 돌 판에 새겼던 계명을 그대로 다시 새겨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34:1-4). 사람들은 종종 성경을 읽다가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되 드높은 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가혹하고 거친 어찌면 야만적인 느낌까지 들 정도의 방법들을 쓰셔야만 했을까?”라고 의문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한 답은 본문에 따른 주변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첫 돌 판은 주님이 산꼭대기에서 친히 다듬으셨다. 이는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나아오는 진리의 형태, 즉 높은 형태인 영적인 진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백성들은 주님을 예배함에서 돌변해있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들

혹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일 것이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은 영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첫 돌 판은 깨어질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방법이 동원되었다. 즉, 인간이 산 아래로부터의 돌을 가지고 돌 판으로 다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두 번째 돌 판에도 똑같은 계명이 주님에 의해서 새겨 졌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들의 상태에 걸 맞는 낮고 세속적인 상태에 잘 채용되는 수준으로 주님의 계명을 받아야만 했다. 그래서 34장 마지막 문단인 30절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쳐다보니 그의 얼굴 살결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으므로 모두들 두려워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된 것이 다. 그리고 3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쳐다보면 그 얼굴 살결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야훼와 대화하기 위하여 들어갈 때까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어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우리가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마음 상태 안에 있으면 드높고 아름다운 형태로서의 진리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방법 곧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위협을 동반하는 거칠고 호된 명령이 있어야만 그나마 질서가 지켜진다는 것이다.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상태는 순수성 속에 든 진리를 쳐다볼 수조차 없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 후손은 시나이에서 얼마나 오래 야영했는가?
- 2) 백성들은 주님께서 시나이산 꼭대기로부터 말씀하시는 무엇을 들었는가?
- 3) 주님은 그 외의 어떤 지시를 백성들을 위해 모세에게 주셨는가?
- 4) 모세는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 어디로 갔는가?
- 5) 본문에서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가?
- 7) 백성들은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 8) 아론은 백성에게 무엇을 내놓으라고 했는가?
- 9) 그는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었는가?
- 10)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었는가?
- 11) 모세는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백성을 보자 무엇을 했는가?
- 12) 그는 이 송아지를 어떻게 했는가?
- 13) 아론은 자신을 어떻게 변명했는가?

- 14) 금송아지는 무엇을 그리는가?
 15) 첫 돌 판과 후에 산 아래서 다듬어졌던 둘째 돌 판의 상이점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거의 일년 2) 계명 3) 행동 지침의 법, 예배에 관한 사항 4) 산꼭대기
 5) 40일 6) 영원히 갔다고 7) 신들 8) 금귀고리 9) 송아지 10) 두 돌판
 11) 돌판을 깨트렸다 12) 불에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렸다
 13) 불 속에 금을 던지니 송아지가 나왔다 14) 세상적 성공과 육의 쾌락을 사랑함
 15) 첫 돌판 = 율법의 높고 영적인 형태
 둘째 돌판 = 세상적인 사람의 수준에 적합한 율법의 형태

11

아론의 가지

머리말

앞서 공부했던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서 아론에 관한 부분인 출애굽기 28장 1-4절과 40-43절을 먼저 읽고 민수기 33장을 참고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길을 기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의 열 두 스파이, 특히 14장 26-35절을 읽고 그 내용을 상기하면서 본문을 공부하기 바란다.

성 서 본 문: 민수기 17장 16-28절

17장: 16. 아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17.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각 가문에서 나뭇가지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되, 각 가문별로 어른들이 하나씩 가져오게 하여라. 이렇게 가져온 열 두 가지에 각기 자기 가문의 이름을 새기게 하되 18. 레위 가문의 가지에는 아론의 이름을 새겨라. 각 가문마다 그 가문의 어른에게 나뭇가지가 하나씩 있어야 한다. 19. 그것들을 내가 너를 만나는 만남의 장막 안 증거궤 앞에 놓아 두어라. 20. 내가 택한 사람의 가지에서 싹이 돋으리라.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너희를 향하여 불평하지 아니하리라.”

20.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전하자 각 가문별로 대표들이 나뭇가지를 하나씩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온 열 두 가지 중에는 아론의 가지도 있었다. 22. 모세는 그 가지들을 증거의 장막 안 아궤 앞에 놓아두었다. 23.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 가 보니 레위 가문을 대표한 아론의 가지에 싹이 돋고 꽃이 피었으며 감복송아 열매가 이미 익어 있었다. 24. 모세가 그 가지들을 아궤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데로 내오자 그들은 저마다 자기 가지를 찾아 가지고 돌아갔다. 25. 아궤에서 모세에게 이르렀다. “아론의 가지는 증거궤 앞에 다시 가져다 보관하고 두 반역자들에게 경계가 되게 하여라. 그리하면 나에게 불평을 하다가 죽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리라.” 26. 모세는 아궤에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27.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호소하였다. “이젠 끝장이요. 영광없이 망했소. 모조리 망하게 되었소. 감히 아궤의 성막에 나갔다가는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아주 망해야 한단 말이요?”

교리 요약

- *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다는 정도는 인식해야 한다.
- *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징조는 우리를 위한 징조도 된다.
- *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측량된다.
- * 자아로부터 행해진 것 속에는 순수한 선이 하나도 없다.

상응 공부

열 두 지파 = 우리의 모든 선한 애착과 생각
 대성직자로서의 아론 =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선함

나뭇가지 = 힘 또는 권능
감복숭아 열매 = 생활의 선

해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0장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시나이를 떠나지 않고 있음을 본다. 그들은 제일 먼저 성막을 지어 그 속의 가구를 갖추고, 그것을 세우고는 봉헌했다. 그런다음 주님이 명하신 예식에 따라 예배가 시작되었다. 주님은 아론을 대성직자로 임명하시고 (출애굽기 28장),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밑에서 성직자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성직자 직분은 아론의 가문만이 이어받도록 명하셨다. 레위기서는 모세와 아론의 지파인 레위지파를 가르치며 그들에 의해 집행될 상세한 법을 주고 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지파 별로 인구조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이 바로 민수기서의 시작이다. 민수라는 이름 역시 백성의 수를 센다는 의미이다. 성서지도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여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시나이에서부터 거룩한 땅 남쪽 경계인 카데스바르네아까지 직행해서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민수기 33장에서는 이 여정을 따라 진을 친 그들의 야영지역이 일괄적으로 나열되고 있다. 그들은 카데스에서 거룩한 땅을 정탐하기 위해 열 두 명의 스파이들을 뽑아 보냈다. 이들의 정탐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그 땅을 정복하고자 시도했던 것에서 실망하고 통곡하며 아우성을 쳤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를 거역하는 짓은 하지 맙시다... 야훼께서 우리의 편이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고 역설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충고에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나약하며 소극적인 선택을 했다. 주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나약했던 그들의 심정과 그분의 권능을 신뢰하지 못한 대가로 당시 선택(선거)권이 주어지는 나이인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주님께서 그들 모두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배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희망과 격려가 먼지처럼 흩어짐과 더불어 그들의 마음에 있던 이기심은 주님이 그들을 위해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하며 투덜거리도록 만들었다. 본문의 바로 뒷장은 코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에 합세하여 향을 피우고 나왔던 이 백 오십 명의 반역에 관한 이야기이다. 일반적으로 성서에서 향을 피운다 함은 주님을 모신다고 고백하는 마음을 상징한다. 하지만 주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분의 지시에 거역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 속에

들어있는 세상욕과 자아사랑이 그들을 집어 삼켜서 욕망의 불에 태워지는 처벌을 받게 된다. 주님은 이처럼 강렬한 교훈과 더불어 또 다른 징조를 백성들에게 주신다. 즉, 아름다운 모습 곧 주님만을 사랑하면 순수하고 오래 지속되는 열매를 생산할 수 있다는 진리에 대한 교훈도 주고 계신다. 열두 지파란 우리속의 모든 선한 애착과 생각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뭇가지는 힘을 상징한다. 대성직자로서와 성직자 지파의 지도자로서의 아론은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면서 그분의 뜻을 배워 행하려는 노력을 우리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 원칙에서 오는 힘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행복하며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본문에는 아론의 가지 외에도 열 한 개의 가지(지팡이)들이 더 있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가지들 역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대표자들의 가지이므로 영감된 가지가 아니냐고 반문할 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일을 많이 행하거나 이루게 되면 비록 그가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한 사람이라고 칭찬한다.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 인지해야 할 사항은 그 사람이 남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그의 인생 초반에 있었던 종교적인 영향이나 종교적인 훈련으로부터의 자극 또는 종교적인 근원에서 가치를 쳐서 나온 사회의 표준을 수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그가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 하느님을 인식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는 그 선의 근원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의 그 사람의 선함은 단지 외적인 면에서의 선일 뿐 순수한 선은 아닌 것이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복음서를 읽어보자. “한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왜 나에게 와서 선한 일에 대하여 묻느냐? 참으로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마태복음 19:16-17).” 주님은 이 이야기에서 그분만이 선을 행할 힘의 근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그분께 순종함을 사랑하는 것 외의 어떤 원리도 열매 맺을 수 없음을 본문에서 “만남의 장막 안 증거케 앞에” 가지들을 놓아 둔 뒤, 아론의 가지에서만 “싹이 돋고 꽃이 피었으며 감복송아 열매가 이미 익었다”는 구절로 우리에게 확실히 하고 계시는 것이다.

감복송아 나무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꽃이 풍만하게 피어난다. 그 꽃은 사랑스럽고, 그 열매는 풍미가 좋으면서 자양분이 많고 오래 보관된다. 초목의 꽃은 특별한 용도 혹은 대체적으로 선한 일에 관한 우리의 생각들을 표현한다. 그리고 그 열매란 선한 일 자체를 의미한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사랑함과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바램을 원칙으로 삼고 규율되어 진다면, 우리는

그분의 진리를 생각함에서와 그 진리를 특별한 상황에 응용하면서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섬기되 깊은 기쁨으로 오래 지속되는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놓여 질 그 날에 우리의 삶이 결코 빈약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주님이 이 같은 징조를 보여주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그들의 지도자로서 확신했던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을 확실하도록 해주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증거란 그분의 뜻을 실천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쁨이다. 우리는 이 기쁨과 만족을 보고 즐길 수 있을 때까지 사실상 자아로 되돌아서려는 시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위한 방파제가 바로 25절에 있다. 즉, 주님께서 주신 확신에 대한 꾸준한 되새김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론의 가지는 증거궤 앞에 다시 가져다 보관하여 두고 반역자들에게 경계가 되게 하여라. 그리하면 나에게 불평하다가 죽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리라”하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확신을 꾸준히 생각하기 위해서는 “궤 앞에 열매가 익은 가지”를 가져다 놓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법이 새겨져야만 죽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꾸준한 되새김은 언제 있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고난과 시험의 시기에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시기에 과거 주님께 순종함으로 인해 자신에게 있었던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위로 등의 각종 축복들을 상기하면서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변치 않아야 할 것이다.

질문 정리

- 1) 주님이 시나이에서 이스라엘 후손에게 주신 처음의 법은 무엇인가?
- 2) 주님은 그곳에서 그 외의 어떤 법을 주셨는가?
- 3) 왜 백성들은 모세가 아주 가버렸다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 4) 백성들은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 5) 아론은 그들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었는가?
- 6) 아론은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는가?
- 7) 모세는 산에서 가지고 내려 온 첫 돌 판을 어떻게 했는가?
- 8) 모세는 금송아지를 어떻게 했는가?

- 9) 주님은 누구를 이스라엘의 대성직자 로 임명하셨는가?
- 10)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이나 광야를 배회한 까닭은 무엇인가?
- 11) 이 백성들은 곤경의 탓을 누구에게 돌렸는가?
- 12) 모세와 아론에 반기를 든 사람에게 어떤 변이 발생했는가?
- 13) 본문에서 모세는 각 지파의 대표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했는가?
- 14) 열 두 가지는 어떻게 구분되었는가?
- 15) 레위지파의 나무에는 누구의 이름이 쓰여 졌는가?
- 16) 모세는 그 가지들을 어디에 두었는가?
- 17) 다음날 아침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 18) 이 광경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 19) 주님은 아론의 가지를 어디에 보관하라고 분부하셨는가?
- 20) 아론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21) 감복송이란 어떤 영적인 특질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십계명 2) 많은 부속법들 3) 40일 동안 가 있었기 때문
- 4)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5) 송아지 6) 귀에 걸린 금고리
- 7) 돌판을 깨트렸다 8) 파괴했다 9) 아론 10) 믿음의 결핍
- 11) 모세와 아론 12) 멸망했다 13) 가지 14) 가지에 이름들을 새겼다 15) 아론
- 16) 증거궤 앞 17) 아론의 가지에 감복송아 열매가 달렸다 18) 아론만이 대성직자 이다
- 19) 궤 앞에 보관 20)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사랑함
- 21) 영적 진리를 지각하는 것에 기초한 오랫동안 지속되는 선행

12

길갈에서의 이스라엘백성

머리말

본문을 읽어보면 지난 줄거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알 수 있다. 즉,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승계 그리고 주님이 내리신 여호수아의 임무(1:7-9)등이다. 요르단을 건넌과 길갈에 세워지는 열두 개의 돌에 관한 이야기는 본문과 연관 지어 기억해두어야 할 것이다.

성 서 본 문: 여호수아 5장

5장: 1. 요르단강 건너 서편 지역에 있는 아모리의 모든 왕과 해안 지역에 있는 가나안의 모든 왕은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르단강 물을 말리시어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모두 났을 잃었다. 2. 그 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3.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아랄못 언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4.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까닭은 이러하다.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 가운데 군인 연령에 이른 남자는 이집트를 떠나 오는 도중,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 5.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이집트를 떠나오는 도중 난 백성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 6. 이집트에서 나올 때 군인 연령에 이른 층이 다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사십 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다. 그들이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까닭에 야훼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우리에게 주마고 우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이 땅을 그들은

보지 못하리라고 다짐하셨던 것이다. 7. 그들 대신에 그들의 후손을 일으키셨는데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풀어 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이 아직 우멍거지였던 것은 도중에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8. 온 국민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 천막에서 쉬며 아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9.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인들의 수모를 벗겼다.” 그리하여 그 곳 이름을 지금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10.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쳤다. 그리고 그 달 십사일 저녁때에 예리고 평야에서 과월절을 지켰다. 11. 과월절 다음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맛보았다. 바로 그 날 그들은 누룩 안 든 떡과 볶은 곡식을 먹었던 것이다. 12.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멎었다. 그 후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당년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13. 여호수아가 예리고 지방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그가 고개를 들고 보니 자기 앞에 칼을 뽑아 들고 서 있는 것이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나? 우리 원수의 편이나?” 14.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야훼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이제 온 것이다.” 이 대답을 듣고 여호수아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물었다. “내 주여, 당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15. 야훼 군대의 총사령관이 지시하였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였다.

교리요점

- * 주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적을 대적하실 수 있다.
- * 말씀에서 언급되는 모든 지역명은 각기 특별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 우리가 거듭나기 시작할 때 영적인 진보를 계속 해가려면 지속적으로 성경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 * 할례란 자아사랑으로 더러워진 심정을 깨끗하게 함과 상응된다.

상응 공부

요르단 = 입문을 위한 진리들

할례 =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것에서 순수해짐

신발 = 선함에 관한 자연적인 사상들

해설

여호수아와 갈렙은 과거 40여 년 전 거룩한 땅을 정탐했던 열 두 스파이 중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겁에 질렸던 열 스파이들의 보고에 이견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모세의 지휘 하에 홍해를 건넜던 모든 성인들 중에서 거룩한 땅에 발을 딛게 될 유일한 자들이었다. 본문의 성인들은 새로운 세대로서 홍해에서 수행되었던 기적과 유사한 기적이 이 세대들을 위해서 수행되었다.

우리는 이 기적에 대한 설명을 제 9절에서 볼 수 있다. 길갈이란 굴림 또는 벗김이란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여행을 하는 동안 이집트로 되돌아 갈 궁리만 하면서 그곳에서의 좋은 것만을 회상할 뿐 그곳에서의 비참함은 모두 망각한 채 고난과 위험에 직면하게 될 때마다 반역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과 태도는 영적인 재구성을 단행해 가는 우리의 상태, 즉 신성한 법이 요구하는 질서에 우리의 행동 지침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때를 묘사한다. 이 시기에 우리는 과거 재구성을 시도하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즐겼던 어떤 쾌락을 회상하고 그리워하면서 재구성을 단행하게 해 준 어려웠던 체험은 망각한 채 우리를 이끌고 있는 원리들에게 종종 반기를 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반역적인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그 충동 자체를 차츰 죽여 가게 되면, 주님의 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가혹한 공사장의 십장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전진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지휘자로서 부상하게 된다. 이것은 모세가 죽고 싸우는 진리를 의미하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를 승계 받는 모습에 해당된다.

여호수아서는 거룩한 땅의 정복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측면에서 볼 때 거듭남의 시기에 해당된다. 즉,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땅 곧 천국적인 인격을 소유하기 위한 길가에 버티고 서 있는 우리 속 깊은 곳의 악과 거짓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주님의 권능과 그분의 이름을 내세우고 전진하는 하느님의 자녀임을 실지로 느끼게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언제나 완전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불순종으로 인한 극악한 모습과 그들의 소심함으로 인해 완전한 정복이 이뤄지지 못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집트로 상징되는 순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뒷걸음쳐 빠지는 일뿐만 아니라 광야에서와 같은 불평이나 반역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요르단 강을 건넌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다. 따라서 거듭남으로서의 진입이란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작에 앞서 명심해야 할 사함은 1장 7-9절에서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사함임에 틀림없다. 본문은 우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전진하게 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주님의 경고인 것이다.

본문 4장 19-24절에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을 뽑아 요르단 강을 건널 때 그 강 한 복판에서 열두 개의 돌을 메어다 놓으라고 분부하고 계신다. 열두 개의 돌들은 그들의 첫 숙역자인 길갈에 기적으로 요르단 강을 건너게 됨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로 세워졌다. 요르단 강물은 기독교 신앙으로의 입문을 위한 진리들을 상징한다. 기념비는 우리가 이 진리들을 명심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진리들을 계속 탐구해 나가야 한다.

본문의 서두는 거룩한 땅 내의 적들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르단을 건너도록 강물을 가르셨다는 소식을 듣고 냇이 빠졌던 일로 시작되고 있다. 즉,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권능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적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금방 인식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명령했다. 할례란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정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타고난 속성 안에는 오로지 악뿐이며 주님께 순종할 때만이 그분께로부터 선함을 받게 된다고 인식하는 것도 의미한다. 사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예식 중 하나였으나 광야생활 동안 그것이 소홀히 취급된 것뿐이다. 이는 우리가 재구성을 단행하는 동안 반역적인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우리의 태생적인 욕망들이 오로지 악뿐임을 기꺼이 인정하지 않게 됨을 보여준다. 뒤의 참고문헌을 보면 기독교회에서 할례 대신에 세례가 거행되는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으리라 보고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할례가 베풀어진 뒤 과월절이 기념되었다. 이는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항목인데, 그들이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도록 해 주신 분이 곧 주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기독교회에서는 과월절 대신 주님의 성찬이 거행된다.

과월절의 기념이 끝난 다음 날 만나의 공급이 중단 되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재구성되는 시기에 있을 때 빵으로 표현되는 선함(만나)은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힘이었지만 그 선함은 우리에게 의해 생산되거나 보존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 이유는 그 시기에 갖게 되는 우리의 욕망이 주님께 순종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자아와 세상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상태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게 되면,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선함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의 시험을 극복하도록 해 주시는 방법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우리는 매일 이른 아침마다 주님이 주시는 선함을 수집해야 하지만 그것을 저장해 둘 수는 없는데, 재구성의 상태에서는 그러한 까닭을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출애굽기 16장 15절을 읽고 만나의 뜻이 “이게 무엇이냐?”임을 알게 된다면 그 까닭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세월이 계속 반복되어 우리 속의 반역적인 생각이나 욕구들이 다 쓰러지고 새로운 것들로 다시 태어나게 될 때에 비로소 순수한 선함이 무엇인지와 그 선함이 어디서 오는가를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진리의 씨를 뿌려 가꿀 수 있게 되고 좋은 곡식도 먹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는 자신이 뿌리고 가꾼 선함이 설령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일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영원한 인격 속에 오래 오래 저장할 수도 있게 된다.

본문의 마지막 세 구절은 앞서 언급된 기억해야 할 사항들이 함축되어 있다. 군대의 총 사령관으로서의 주님과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여호수아의 환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를 향하여 그분의 진리를 수단으로 우리의 영적 진보가 꾸준히 있게 해주실 것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광야를 배회했는가?
- 2) 모세는 어디서 죽었는가?
- 3) 누가 모세를 대신하는 지도자가 되었는가?
- 4) 이 백성들은 어떻게 요르단 강을 건넜는가?
- 5) 그들은 강바닥에서 무엇을 취했는가?
- 6) 그들은 열 두 개의 돌을 취해 무엇을 했는가?
- 7) 거룩한 땅에서 이 백성들의 첫 숙영지는 어디였는가?
- 8) 길갈은 무슨 뜻인가?
- 9) 왜 길갈이 그렇게 불렸는가?
- 10)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어떤 예식을 지키도록 했는가?
- 11) 그곳에서 어떤 날을 기념했는가?

- 12) 그곳에서 만나의 공급은 어떻게 되었는가?
- 13) 왜 그들에게 만나가 필요 없게 되었는가?
- 14) 여호수아는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
- 15) 천사는 자신이 누구라고 말했는가?
- 16)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했는가?
- 17) 광야에서의 배회생활은 무엇을 그리는가?
- 18) 거룩한 땅으로의 진입은 무엇을 그리는가?
- 19) 모세와 여호수아가 표현하는 상이점은 무엇인가?
- 20) 세례와 성찬의 모양을 나타내는 길갈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은 각각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40년 2) 네보산 3) 여호수아 4) 기적 5) 열 두 돌
- 6) 기념비를 세움 7) 길갈 8) 굴림, 벗김
- 9)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인들의 수모를 벗겼다” 10) 할례
- 11) 과월절 12) 중지 되었다 13) 그곳에는 풍부한 양식이 있기 때문에
- 14) 칼을 뽑아 들고 서 있는 천사 15) “야훼 군대의 총 사령관”
- 16)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17) 개혁
- 18) 실제로 영적인 삶의 시작
- 19) 모세 - 두려워서 진리에 순종함, 여호수아 - 삶 속에서 진리가 싸워 나감
- 20) 할례(순수해침에 대한 예식), 과월절(구원해주심을 기억함)

13

거룩한 땅의 분할

머리말

본문은 거룩한 땅의 분할 이전인 그 땅의 정복에 관한 줄거리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의 정복에 따른 세 가지 작전과 명령을 살펴보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여호수아 18장 1-10절

18장: 1.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만남의 장막을 쳤다. 전 지역이 이미 그들에게 정복되었던 것이다. 2.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아직도 유산을 받지 못한 지파 일곱이 남아 있었다. 3.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렀다. “언제까지 너희 조상의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겠느냐? 4. 당장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출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어 분할 받을 땅을 답사하여 지적도를 만들어 오게 하리라. 5. 그들은 그 지역을 일곱 몫으로 나누는데, 유다는 그대로 남쪽 자기 영토를 차지하고 요셉 가문은 그대로 북쪽 자기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6. 너희는 그 땅을 일곱 몫으로 나누어 지적도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우리 하느님 야훼 앞에서 추첨을 하여 너희의 몫을 결정해 주리라. 7. 레위 사람들은 너희들과 어울려 한 몫 받지 못한다. 야훼를 섬기는 성직자 직분이 그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가드와 르우벤과 므나쎄 지파 절반은 야훼의 종 모세에게서 받은 대로 요르단강 동편을 유산으로 받았다.”

8. 이리하여 그들은 길을 떠났다. 지적도를 만들려고 떠나가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였다. “너희는 그 지방에 가서 답사하며 지적도를 만들어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야훼 앞에서 추첨을 하여 너희 몫을 결정해 주리라.” 9. 그들은 길을 떠나 각 지방을 돌아 다니면서 그 곳 성들을 일곱 몫으로 나누어 지적도를 만들어 가지고 실로의 진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10.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그들의 몫을 결정하려고 야훼 앞에서 추첨을 하였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몫 한 몫 때어 주었다.

교리 요점

* 제비뽑음이란 우리가 뭔가에 대한 결정을 주님께 맡긴다는 뜻이다. 추첨이라 할지라도 기회나

우연 같은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신성한 섭리에 의해 통제된다.

- * 말씀은 서로 긴밀하게 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자주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의미를 받게 된다.
- * 천국적인 인격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적을 우리 속에서 몰아 내야한다.

상응 공부

거룩한 땅의 남쪽 부분 = 우리속의 의지 또는 애착 부분

요르단 강 건너지역 = 우리의 자연적인 또는 외적인 삶

해설

에리고와 아이를 정복한 후 기브온과 우호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거룩한 땅을 정복하는 시작단계였다. 여호수아는 이 정복으로 인해 그 땅의 중앙 지역을 이스라엘의 통제 하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나눔과 정복”이 성경의 원리가 된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그 땅의 중심부분을 장악함으로써 그 땅의 세력권을 두 가지 전투 작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두 작전이란 하나는 남부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북부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모든 정복의 이야기에서 기적의 요소들을 발견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결코 잊지 않았다. 여호수아의 지휘아래 얻어진 정복은 우리의 거듭나는 과정의 초기 상태, 즉 우리의 신앙 상태가 광신적이라고 할 정도로 열정적이어서 자신의 결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공격하는 때를 그려준다.

그런 다음 본문이 연결된다. 거룩한 땅은 이제 정복되었다. 이는 우리 심정과 지성 안의 적들이 복종하는 상태에 놓여 지는 모습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11장 13절과 22절의 “이스라엘은 언덕에 서 있는 성은 하나도 불을 지르지 않았다”와 “그리하여 아나킴은 가자와 갓과 이스돗에 약간 남아 있을 뿐...”라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서, 많은 적들이 정복되었으나 일부의 적들이 살아남아 그들의 성 안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어찌됐던 완강했던 적들이 소탕된 상태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속의 완강한 악들과의 대대적인 충돌이 극복되는 때 일시적인

평화가 있게 됨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본 후 미래를 위해 질서 있는 계획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본문에서 각 지파가 할당된 구역을 가지고 정착할 준비를 갖추는 모습과 같다. 미가서 4장 4절의 “사람마다 제가 가꾼 포도나무 그늘, 무화과나무 아래 편히 앉아 쉬리라.”라는 말씀은 이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다.

정착한 후의 첫 작업은 그 땅의 중심인 실로(평화)에 성막을 세우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모두 동의할 것이다. 그 다음 과거 요르단 건너지역을 선택했던 2 1/2지파에게 그곳으로 되돌아가서 그 땅을 소유하도록 허락된다. 갈렙은 오래 전 여호수아와 더불어 그 땅을 정탐했다. 갈렙은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적들이 무척 강하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여 쳐들어가지고 백성들을 권고했었다. 그의 이러한 충절로 인해 특별한 상속이 약속되어진 바,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했던 헤브론이 그의 유업으로 주어졌던 것이다. 레위인들은 가나안의 전 지역에 48개의 성읍이 주어져 골고루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것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인도하도록 해 주었다. 아직 구역을 할당받지 못한 지파는 추첨에 의해 그 땅을 나누었다.

이 분할은 질서 있는 삶, 즉 우리의 모든 자질들이 제각기 한 장소를 맡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장 높은 자질인 영적인 자질이 중앙에 위치한다. 야곱의 마지막 두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이 영적인 자질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소위 일컫는 실용적인 삶보다 훨씬 늦게 발달한다. 시므온과 유다 지파는 남쪽에 위치했는데, 이 장소는 우리의 유아적 상태(아브라함의 고향인 헤브론이 남부지역에 있음)가 존속하는 곳 곧 우리 삶의 애착적인 부분을 상징한다. 그 외의 지파들은 우리의 지적인 삶에 관계되며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요르단 건너에 있는 지파들은 우리의 활동적인 평면을 말하는데, 위의 세 가지 형태는 활동 평면에서 필요하게 된다.

거룩한 땅에서의 단 지파의 위치는 매우 흥미롭다. 그들은 땅의 중심부분 근처이되 해안선을 따라 있는 지역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19장 47절에서 “그들은 영토가 좁아서 모두 살수가 없었다. 그래서 단 후손은 레셈으로 쳐 올라 가 칼로 무찌르고 그 성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다”라고 기술된 바대로 그들은 정복된 땅 중 최북단에 위치하게 된다. 단은 라헬의 하녀인 빌하가 낳은 아들로써 라헬로 그려지는 영적인 사랑의 첫 결실이되 간접적인 결실을 의미한다. 단이란 히브리어로 “판단함”이란 뜻이다. 스웨덴북은 “단이란 우리가 하느님을 믿어야 한다고 인정한 후 선한 삶을 이룩하겠노라고 확언할 때의 우리의 판단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어서 “확언함이나 인정은 거듭나려는 사람에게 첫 번째 되는 일반원칙이지만, 이는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나중이 되는 일반 원칙이다”라고 부연한다. 이것이 단지파가 처음에는 중앙부 근처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가 정복된 땅의 최북단 경계로 이동된 이유이다.

우리가 위의 서술을 근거로 정복이 다 끝난 것처럼 느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위험천만한 착각이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구역 내의 적들을 계속 정복하고 이미 정복된 적들을 복종시키는 상태도 잘 유지시켜야 한다고 각별히 명령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강제적인 명령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빠져드는 미묘한 시험 중의 하나는 자아에 심취되는 것, 즉 자신이 더 이상 악과 투쟁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아 만족에 빠지는 시험이다. 이런 시험의 결과들은 판관기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질문 정리

- 1) 여호수아는 몇 개의 작전으로 거룩한 땅을 정복했는가?
- 2) 이 작전은 어떤 순서로 수행되었는가?
- 3) 첫 작전과 익숙한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 4) 그 땅의 모든 적은 정복되었는가?
- 5) 항구적인 성막은 어디에 설치되었는가?
- 6) 실로란 무슨 뜻인가?
- 7) 누가 그 땅의 분할 경계를 그렸는가?
- 8) 각 분할 지역을 차지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 9) 제비를 뽑을 때 그 결정은 실지로 누가 하는가?
- 10) 그 땅의 중심부는 어떤 지파에게 돌아갔는가?
- 11) 요셉의 두 아들은 왜 이 땅을 분할하는 데에 자격이 있었는가?
- 12) 요르단 건너 지역에는 어떤 지파가 정착했는가?
- 13) 그 땅의 남부는 어떤 지파에게 할당되었는가?
- 14) 갈렙에게는 어느 성이 주어졌는가?
- 15) 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할 해주지 않았는가?
- 16) 그 대신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 17) 열 두 지파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18) 실로에 성막을 세웠다 함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3 2) 중심부-남부-북부 3) 예리고, 아이, 기브온 4) 그렇지 않다
- 5) 실로 6) 평화 7) 각 지파의 세 사람들이 지적도를 만들
- 8) 추첨 9) 주님 10) 요셉, 베냐민, 단 11)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양자로 삼았기 때문
- 12) 르우벤, 가드, 므나세 반쪽 13) 유다, 시므온 14) 헤브론
- 15) 예배를 관장하기 때문 16) 48개의 성읍 17) 모든 우리의 정신적인 자질들
- 18) 우리 삶의 정착된 부분의 중심에 예배를 놓아야 한다는 것

14

판관 삼손

머리말

본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실용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다. 본문은 삼손이란 인물의 부주의함과 자만심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꾸준히 필요함을 예증해준다. 삼손의 힘이 그의 머리카락에 있었음과 더불어 삼손이 내는 수수께끼의 의미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를 행하는 것에 행복이 있음도 언급한다.

성 서 본 문: 판관기 14장

14장: 1. 삼손은 담나로 내려 갔다가 거기에서 불레셋 처녀 하나를 보고 2. 부모에게로 돌아와서 청을 드렸다. “제가 담나에 갔다가 불레셋 처녀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처녀한테 장가들고

싶은데 얻어 주십시오.” 3.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러지 못한다고 하였다. “네 일족이나 네 겨레 가운데는 여자가 없어서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색시를 얻으려느냐?” 삼손은 아버지를 졸랐다. “그 여자가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색시를 얻게 해 주십시오.” 4.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모두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 줄 몰랐다. 그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였기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마련하시려는 것이었다.

5. 삼손이 담나로 내려가서 담나에 있는 한 포도원에 다다랐을 때의 일이다. 난데없이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것이었다. 6. 그 때 야훼의 영이 갑자기 내리 덮쳐 삼손은 양 새끼 찢듯 맨손으로 그 사자를 갈기갈기 찢었다.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7. 그 여인에게로 내려 가 이야기해 주었다. 그렇게 그 여인에게 빠져 있었다. 8. 얼마 후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가다가, 가던 길을 벗어나 죽은 사자가 있는 데로 가서 그 죽은 사자 몸에 벌이 꿀을 쳐 놓은 것을 보았다. 9. 그는 손으로 꿀을 줌 따가지고 길을 가면서 먹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얼마 따다가 부모에게도 대접해 드렸다. 그러면서도 그 꿀이 죽은 사자 몸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만은 하지 않았다. 10. 삼손은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젊은이가 장가갈 때 하는 풍속대로 잔치를 벌였다. 11. 그러나 그들은 삼손이 무서워서 들러리를 삼십 명이나 뽑아 함께 머물게 하였다.

12. 그 자리에서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수수께끼 하나를 낼 터이니, 잔치가 계속되는 이렛 동안 생각해서 맞춰 보게. 알아내기만 하면 내가 모시옷 서른 벌과 예복 서른 벌을 내지. 13. 그러나 맞춰 내지 못하면 자네들이 나에게 모시옷 서른 벌과 예복 서른 벌을 내야 하네.” 그들은 좋다고 하면서 수수께끼를 말해 보라고 하였다. 14. 그래서 그는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15.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15. 나흘째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울러메었다. “네 신랑을 피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서 알려 다오. 그렇지 않으면 네 일족을 불에 태워 죽이겠다. 네가 우리를 초대해 놓고는 홀랑 벗길 셈이냐?” 16. 삼손의 아내는 그에게 매달려 눈물을 흘리며 떼를 썼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 하고 있어요. 우리 동족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으셨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저한테마저 숨기실 건 없지 않아요?” 그는 “그것은 내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않았는데 어찌 당신에게라고 말하겠소?” 하면서 거절했지만

17. 잔치가 끝나기까지 이렛 동안 색시가 매달려 울면서 조르는 바람에 삼손은 이레째 되던 날 털어 놓고야 말았다. 색시는 그 수수께끼의 답이 무엇인지 제 동족들에게 일러 주었다.
18. 이레째 되는 날이 와서 삼손이 신방에 들려고 하는데, 그 성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고
 사자보다 힘센 것이 어디 있으랴?”
29. “자네들이 내 암소로 밭을 갈았구나 그래서 내 수수께끼를 알아맞힌 거지?” 삼손은 이렇게 말하고는 19. 야훼의 영에 사로잡혀, 아스클론으로 내려 가 거기에서 삼십 명을 죽이고 그들의 나들이옷을 벗겨 수수께끼를 알아맞힌 사람들에게 주고는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 왔다.
20. 일이 이쯤 되자 삼손의 아내는 들러리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에게 시집가고 말았다.

교리 요점

- * 삼손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는 주님의 권능을 표현한다.
- * 말씀의 힘은 말씀의 글자에 있다.
- * 블레셋이란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 따라 살고자 함을 소홀히 다루는 마음을 표현한다. 이것은 소위 “믿음만으로”라는 것에 해당된다.
- * 가슴속에서 사랑이 떨어져나가면 어떤 실질적인 힘도 없게 된다.

상응 공부

- 판관 =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시험에 대항하기 전에 강건케 되도록 주님께 의해 우리의 이해성에 세워진 특정한 진리
- 삼손 = 판단, 좋은 측면에서는 계시의 진리를 인식함
- 블레셋 = 진리에 따라 살겠다는 의도 없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
- 머리털 = 삶의 가장 바깥형태 또는 말씀의 글자
- 사자 = 힘
- 꿀 = 의를 행함에서 오는 기쁨 또는 달콤함

해설

판관기 2장 7절 이하에서는 판관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여호수아 생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줄곧 야훼를 섬겼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해 주신 큰일을 목격한 장로들이 살아 있는 동안은 줄곧 야훼를 섬겼다... 야훼를 모르는 새 세대,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모르는 새 세대가 비롯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들을 섬겨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못할 짓들을 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우리가 거둬나가는 삶을 막 시작하려 할 때는 광신적인 행동이 보일 정도로 주님을 섬기는 데에 열심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자신이 새로운 삶의 틀을 정립했다고 판단한 뒤 자기 확신으로 빠지거나 방심하는 버릇이 생겨 세상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느낌의 충동을 조금씩 허용하려고 든다. 그러면 우리속의 영적인 적들은 비좁은 틈을 타고 다시 강세를 얻게 되어 우리 인격의 통제탑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판관들은 주님께서 때 맞춰서 그 땅의 곳곳에 들어 세운 자들이다. 이들은 우리가 만나는 특정한 시험에 저항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상기시켜 주는 특정한 진리들을 상징한다. 판관의 시대란 우리가 자신의 약한 정도와 주님의 인도하심의 절실함을 경험으로 배우기 전에 있어지는 삶이 흔들리는 시기를 의미한다.

거룩한 땅의 남서부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은 블레셋이었고, 본문 시대의 판관인 삼손은 단 지파의 출신이었다. 좋은 의미에서의 단이란 우리가 하느님을 믿으며 선한 삶을 이룩하고자 하는 우리의 확신과 인식을 표현한다. 삼손은 나지르인이었다. 나지르인이란 “분리된” 사람 또는 주님을 특별하게 섬기도록 따로 떼어 둔 사람을 의미한다. 나지르인의 특징은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고 머리털을 깎지 않는 것이었다. 주님은 이 표시를 준행하는 한 그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뒤의 참고 문헌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블레셋 족이란 진리를 알고자 하나 알게 된 진리에 따라서는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표현한다. 따라서 위의 설명을 참조하면 블레셋을 휘어잡기 위해 단 지파 출신인 삼손이 등장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삼손의 이야기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이야기들 중의 하나이다. 삼손의 힘은 그의 머리털에 있었다. 즉, 삶을 규정하는 법에 순종함으로부터 힘이 있었다는 것이며 그의 힘이 단순한 인격 속에 있었다는 뜻이다. 삼손에게 닥친 시험은 두 여자였는데, 이 두 여인들은 모두 블레셋 출신이었다. 여자란 우리 삶의 의지 부분을 표현한다. 삼손의 주님에 대한 성실함은 삼손의 애착에다 대고 계속 줄라댄 두 여자의 호소력에 의해 좀먹어 들어가 닳아지고 만다.

삼손이 처음 블레셋 영토에 갔을 때 그에게 대든 사자란 삼손을 굴복시키려는 시험의 힘을 표현한다. 사자를 때려잡은 승리란 시험에 잘 견뎌내는 것은 주님의 도움으로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블레셋 영토에 내려가면서 죽은 사자의 몸에서 발견한 꿀이란 시험의 극복이 언제나 만족을 가져옴을 되새겨 주는 것을 말한다. 꿀이란 의를 행함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상징한다. 천국은 진리를 알고 그것에 따라 사는 기쁨의 상태로 이뤄진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한 땅(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하는 것이다. 사실 삼손은 위의 사자에게서 있었던 경험과 그 직후에 따라오는 여자와의 사건에서의 경험으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었어야 했던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익히 아는 바대로 삼손은 또 다시 같은 시험에 빠지고, 심지어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 이야기가 바로 세상에 잘 알려진 삼손과 델릴라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제 16장에 서술되어 있다. 델릴라는 삼손의 힘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갖가지 애교로 그를 미혹하여, 결국 그가 잠자는 동안 그의 머리털을 잘라 버렸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붙잡았고 그의 눈을 뽑아 버렸다. 이것은 우리가 계명의 글자에 대한 순종을 포기하는 쪽으로 배신되어 가고 있음을 모른 척하고 방치하면 갖가지 종류의 거짓 추론에 동여매어지게 되어 결국에는 옳고 그름을 식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상실하고 만다는 것을 의미한다. 철학이나 심리학의 모든 구조는 마치 블레셋 영토에 널려 있는 물고기 신상인 다곤의 모습과도 같이 인간의 지적인 것 그리고 그 지적인 것의 성취를 찬양한다. 이런 학문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혹은 단순 소박한 사람들을 여흥거리 정도로 여기며 자신들의 흥을 얻기 위해 사용한다. 이른바 16장 25절에서 “흥을 돋우게 삼손을 불러내라”고 하며 장님이 된 삼손을 블레셋이 여흥을 돋우는 도구로 사용하려드는 모습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16장 22절에서는 “그러는 동안 잘렸던 그의 머리가 점점 자랐다.”라고 전한다. 이 구절은 우리가 자신의 우둔함을 직시하여 삶의 원칙이 주님의 계명임을 받아들이는 곳으로 되돌아가 다시 한 번 전력을 다해 계명을 지키려는 각오로 돌진하게 되면 다곤 신전을 버티게 해주는 두 큰 기둥이 힘없이 주저앉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6장 28-30절에서 삼손의 마지막 소원기도와 노력을 읽으며 본문의 공부를 마무리 지어보자.

“주 야훼여, 한번만 더 저를 기억해 주시고 힘을 주시어 제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복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틴 기둥 하나에는 왼손을 대고 다른 하나에는 오른손을 대고 부르짖었다. ‘블레셋놈들과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밀자, 그 신전은 무너져 거기에 있던 추장들과 사람이 모두 깔려 죽었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질문 정리

- 1)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 후손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가?
- 2)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 3) 그들이 주님께 얼굴을 돌릴 때 그분은 어떻게 도우셨는가?
- 4) 삼손은 어느 지파에 소속되는가?
- 5) 그가 장차 어떤 신분이 된다고 그의 부모에게 말해졌는가?
- 6) 나지르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 7) 삼손이 사는 지역에서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위협했는가?
- 8) 삼손의 힘의 비밀은 무엇이었는가?
- 9) 그의 약점은 무엇이었는가?
- 10) 그가 처음 블레셋 여자에게 갈 때 드러난 그의 힘은 무엇이었는가?
- 11) 그는 두 번째 방문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12) 그는 어떤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었는가?
- 13) 그 이후의 삼손의 삶과 죽음은 어떠했는가 ?
- 14) 블레셋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삼손의 힘이 그의 머리털에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6) 삼손의 수수께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질문의 답

- 1) 하느님을 잊었다 2) 적들이 봉기했다 3) 판관들 4) 나지르인
- 6) 머리털을 깎지 않음 7) 블레셋 8) 머리털 9) 여인, 자만
- 10) 사자를 죽임 11) 꿀
- 12)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 13) 머리털이 잘리고 눈이 빠졌다
- 14) 진리를 알고자 하나 그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은 자
- 15) 말단적인 것들에 있는 권능 16) 행복은 투쟁으로부터만 비롯된다

15

왕을 요구하는 백성

머리말

먼저 사무엘 이전의 판관들과 판관인 사무엘의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무엘의 출생과 부르심을 살펴보면서 본문의 공부를 시작한다.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8장

8장: 1.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지자 두 아들을 판관으로 임명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2.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였다. 이들은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3.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 잇속만 차려 뇌물을 받고는 법대로 다스리지 못하였다. 4.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 곳에 모여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 가 5. 건의하였다. “당신은 이제 늙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으니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을 세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6. 사무엘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 주시오”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언짢아 야훼께 기도하니 7.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백성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 주어라. 그들은 너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모시기 싫어서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8.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려 내온 이후 이날 이 때까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런 짓을 해왔다. 너한테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다. 9. 그러나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 주어라. 그러나 엄히 경고하여 왕이 그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일러 주어라.” 10.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달라는 백성에게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낱알이 일러 주었다. 11. 사무엘은 이렇게 일러 주었다. “왕이 너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알려 주겠다. 그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대나 기마대의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12. 천인대장이나 오십인대장을 시키기도 하고, 그의 밭을 갈거나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보병의 무기와 기병의 장비를 만들게도 할 것이다. 13.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도 하고 요리나 과자를 굽는 일도 시킬 것이다. 14.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좋은 것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 곡식과 포도에서도 십 분의 일세를 거두어 자기의 내시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16. 너희의 남종 여종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좋은 소와 나귀를 끌어다가 부려 먹고 17. 양떼에서도 십 분의 일세를 거두어 갈 것이며 너희들마저 종으로 삼으리라. 18. 그 때에 가서야 너희는 너희들이 스스로 뽑아 세운 왕에게 등을 돌리고 울부짖겠지만, 그 날에 야훼께서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19.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 주었지만 백성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을 모셔야겠습니다. 20. 그래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다스려 줄 왕,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이끌고 나가 싸워 줄 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1.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나서 야훼께 아뢰니, 22. 야훼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 주어라”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모두들 자기의 성읍에 가 있으라고 일렀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각 상태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다.
- *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변화과정을 여실히 보여 준다.
- *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주시는 원리들을 이해하고자 함은 당연한 바램이다. 그러나 이런 바램의 혜택을 즐기려면 그 뒷면인 어려운 점을 반드시 인식해 두어야 한다.
- * 스스로 어떤 것을 해보고자 하는 선택에는 주님을 거절하는 면이 약하든 강하든 언제나 있게 된다.

상응 공부

사무엘 = 전체적인 면에서의 주님의 말씀

왕 = 통치하는 원리

해설

사무엘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님께 바쳐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그가 아주 어렸을 때 실로의 성막에 있는 늙은 대성직자 엘리에게로 그를 데려가 성막의 일을 도우면서 양육되도록 했던 것이다. 주님이 한밤중에 사무엘을 부르셔서 엘리에 관한 예언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 엘리는 사무엘이 주님의 특사라고 인식했다. 그리고 3장 20절에서 사무엘은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야훼께서 세우신 예언자로 받들게 되었다”라고 말해준다. 따라서 사무엘은 여느 판관들이 특정한 지역에서 지도자로 부상했던 것과는 달리 전 국토의 백성들에 의해 주님의 예언자로 인정된 판관이 된 것이다. 사무엘의 주거지는 실로와 후기 예루살렘이 있게 된 성읍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라마인데, 이곳은 거룩한 땅의 중심부이다. 그리고 그는 현대의 순회 판사같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고 판결해 주었다.

사무엘 지도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자기들을 인도하도록 선택한 한 사람을 통해 받게 되는 주님의 방침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쪽으로 복귀했다. 사무엘 이전의 판관들은 개별적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했던 개별적인 진리를 표현한다. 반면에 사무엘은 전체로서의 말씀을 표현한다. 우리는 자신에게서 영적인 판단과 힘이 나온다고 믿고 그것을 사용해 본 결과 시험을 이기는데 부적당함을 발견하여 주님께 의존하는 데로 되돌아간 후에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지시사항들을 큰 불만 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지시를 받는 것에 만족하게 된다. 이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채택해야 하는 태도임을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께서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구절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능력에 만족하게 될 때 그들 속의 자연적인 경향은 어린이와 같은 순종으로 주님께 단순히 순종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스스로의 생각대로 세상적인 방향뿐만 아니라 영적인 방향까지도 결정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갈망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제에 담긴

의미이다.

스웨덴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성한 선의 직능은 성직자로 표현되고 신성한 진리의 직능은 왕으로 표현된다.’고 설명한다. 사실상 선과 진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이고 하나로서 그분으로부터 나와 이러한 직능이 수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로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도록 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본문의 주역인 사무엘이라는 인격은 선과 진리가 하나 되어 있음을 표현한다. 그러나 위 문단에서 설명했던 바대로 우리 속에는 이 세상에만 집착하여 생각하는 경향성과 “제 잘난 멋에 사는 것 아니냐?”와 같이 스스로를 은근히 드러내고자 하는 경향성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 된 형태로서의 선과 진리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진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설령 우리가 진리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순간이라도 그렇다는 말이다. 즉,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 쪽으로 맞춰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경험을 통해 배워질 수밖에 없다. 경험이나 체험이라는 것은 펜을 가지고 종이 위에 쉽게 써내려가듯 쉽지는 않다. 경험은 고통과 험난한 여정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 맛볼 수 있는 인생의 모든 상황이 포함된 것임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의 본성을 다 알고 계신 고로 각자의 본성에 맞춰 인생을 설비해 주신다. 그래서 본문에서 백성들이 사무엘을 거절했다고 하지만 사무엘이 주님의 예언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말해지는 것이다. 주님은 사무엘에게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고 분부하셨다. 주님은 그들이 기꺼이 순종한 첫 왕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후 공부하게 될 것이다.

성직자의 직능에서 왕의 직능이 분리됨은 유대인의 역사에서 또 다른 시대로 시작됨을 의미한다. 우리는 성경의 각 시대 속에서 선과 진리 또는 선행과 믿음의 분리에 따른 표현물들이 있어 왔음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진리를 사랑할 때까지 진리에 의해 인도되어 야만 한다. 사실 인도라는 말보다 끌려 다녀야 한다는 표현이 더 옳을지도 모른다. 즉, 진리는 공사장에서 눈을 부릅뜨고 일을 독려하는 심장과도 유사한 것이다. 오직 주님만이 진리가 심장과 같음을 알고 계셔서 본문 9절에서 사무엘에게 “그러나 엄히 경고하여 왕(진리)이 그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알려주어라”하고 분부하셨던 것이다. 우리가 삶의 통치자로서 스스로 채택한 원리는 그것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희생, 즉 대가를 치러야 한다. 본문 11-18절에서 사무엘이 낱알이 언급한 사항들은 이와 같은 희생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그 희생을 일축하면, 우리가 그 원리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느낌과 생각 그리고 행동지침을

만족하는 여부에 관계없이 수정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진리가 단단해서 구부러지지 않고 그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질척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9장 24-26절까지의 “ ‘거듭 말하지만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러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보시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하고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을 보면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무엘은 이후 30년 이상을 더 살면서 이스라엘의 첫 왕과 둘째 왕에게 기름 부었다. 주님께서 그가 죽는 날까지 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바, 그는 계속해서 그 땅의 종교적인 지도자로 군림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놓으신 신성한 섭리의 제도적인 장치였다. 위의 이야기는 우리들 각자가 자신의 길에서 종교적인 원리의 진정한 이해를 발견하게 되기까지 예상되는 험난한 세월을 거침에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예비를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년이 된 후에도 여전히 어린 시절의 단순한 신뢰심을 계속 보유하는 상태가 바로 사무엘이 삼십 년을 더 살며 둘째 왕 다윗을 기름 부은 것임을 기억해길 바란다.

질문 정리

- 1) 누가 마지막 판관인가?
- 2) 그는 어디서 성장했는가?
- 3) 사무엘이 어릴 때 누가 대체사장이었는가?
- 4) 사람들은 사무엘이 예언자임을 어떻게 알았는가?
- 5) 사무엘과 다른 판관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6) 사무엘의 고향은 어디인가?
- 7) 그가 고령이 되어서 백성들을 불만족하게 한 일은 무엇인가?
- 8) 백성들은 무엇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는가?
- 9) 사무엘은 이 요구를 반겼는가?
- 10) 주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11) 사무엘은 백성에게 왕이 무엇 같다고 말했는가?

- 12)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은 마음을 바꿨는가?
- 13) 왕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4) 사무엘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사무엘 2) 실로 3) 엘리 4) 주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5) 종교적 지도자, 전 백성이 지도자라고 인정했다 6) 라마 7) 자기 아들에게 판결하게 했다 8) 왕 9) 반기지 않았다
- 10) 왕을 세워 주시오 11) 거친 감독 12) 바꾸지 않았다
- 13) 우리 삶을 통치하는 진리들 14) 전체적 측면에서 우리 삶의 질서를 잡아주는 말씀

16

아각왕을 살려둔 사울

머리말

사울의 기름부음, 제비로 뽑혀진 사울, 사울의 용모에 흠족해한 백성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전투에서의 승리 등을 언급하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의 첫 변절에 관한 10장 8절과 13장 8-14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15장

1.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였다. “야훼께서 나를 보내시어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소. 그러니 이제 야훼의 말씀을 들으시오. 2. 만군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한 짓 즉,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

을 공격한 그 일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로 하였다. 3. 그러니 너는 당장에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 재산을 사정 보지 말고 모조리 없애라.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여야 한다.”

4. 그래서 사울이 총동원령을 내리고 델라임에서 점호해 보니 보병이 이십 만이었고 유다측에서도 일만이 가담했었다. 5. 사울은 아말렉의 시에 이르러 골짜기에 군인들을 잠복시켜 놓고 5. 켄 사람들에게 전갈을 보냈다. “아말렉 편에서 떨어져 내려오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대들이 그렇게 잘해 주었는데 우리가 아말렉을 칠 때 그대들까지 치는 불상사가 일어나서야 되겠는가?” 이 말을 듣고 켄 사람들은 아말렉에서 떨어져 나왔다. 7. 사울은 아말렉을 공격, 하일라에서 시작하여 이집트 동쪽에 있는 수르까지 따라 가며 쳤다. 8. 그는 아말렉 왕 아각만 사로잡고 나머지 군대는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9. 사울이 거느리는 이스라엘군은 아각 뿐 아니라 양과 소 중에서도 좋은 놈, 기름진 짐승과 새끼 양들과 그 밖에 모든 탐스러운 것들을 없애 버리기가 아까워 그대로 살려 두고 쓸모없고 하찮은 것들만 없애 버렸다.

10. 이 일이 있은 후 야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내렸다. “나는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에게 등을 돌렸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애가 타서 밤새도록 야훼께 부르짖었다. 12. 이튿날 아침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나서자 누가 그에게 이런 말을 전해 주었다. “사울왕은 오는 길에 가르멜에다 자기의 승전비를 세워 놓고 그곳을 떠나 길갈로 내려 갔습니다.”

13.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 만나자 사울이 “야훼께 복을 받으십시오. 저는 야훼께서 시키신 대로 다 하였습니다”하며 인사를 하였다. 14. 사무엘이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이요? 또 소 우는 소리도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이요?”하고 물었다. 15. 사울이 “군인들이 아말렉에게서 빼앗아 온 것입니다. 양떼, 소떼 중에서도 좋은 놈을 살려 두었다가 선생께서 모시는 야훼 하나님께 잡아 바치려고 끌어 온 것입니다. 그 밖의 것은 모조리 없애 버렸습니다”하고 변명하자 16. 사무엘이 “그만하십시오. 지난밤 야훼께서 나에게 내리신 말씀을 전할 터이니 들으시오”하고 말하였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17. 사무엘이 입을 열었다. “그대는 본래 자신을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야훼께서 그대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다. 18. 야훼께서 그대를 출정시키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셨소? ‘가서 저 못된 아말렉족을 없애 버려라. 그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전멸시켜라’고 하지 않으셨소?

19. 그런데도 그대는 어찌하여 야훼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전리품에만 덤벼들어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소?” 20.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하였다. “나는 야훼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야훼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서 아말렉을 전멸시키고 아말렉 왕 아각만 잡아 왔습니다. 21. 단지 군인들이 죽여 없애야 할 짐승 가운데서 양과 소를 좋은 놈으로만 잡아 왔습니다. 그것도 길갈에서 선생께서 모시는 야훼 하느님께 잡아 바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22.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야훼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번제나 친교제 바치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그분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염소의 기름보다 낫소. 23. 그분을 거역하는 것은 짐장이 노릇만큼이나 죄가 되고 그분께 대드는 것은 우상을 위하는 것만큼이나 죄가 되요. 그대가 야훼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니, 야훼께서도 그대를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키실 것이요.”

24. 사울이 사무엘에게 빌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군인들이 무서워서 야훼의 명령과 선생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이 하지는 대로 하였습니다. 25. 이제 부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야훼께 예배를 드리러 돌아 갈 터인데 함께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26. “같이 갈 수 없소. 그대가 야훼의 말씀을 저버렸으니, 야훼께서도 그대를 이스라엘 왕위에서 밀어 내실 것이요.” 이 말을 남기고 사무엘이 27. 돌아서 가려고 하자 사울이 도포를 붙잡는 바람에 도포자락이 찢어졌다. 28. 사무엘이 그에게 일렀다. “야훼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그대에게서 찢어 내시어 동쪽 가운데서 그대보다 훌륭한 사람에게 주셨소. 29. 이스라엘을 비추시는 이는 빈말을 하시거나 변심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는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니시오.” 30. 사울이 애원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을 한 번만 보아 주십시오. 내가 선생께서 모시는 야훼 하느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선생께서 저와 함께 돌아 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31. 그리하여 사무엘은 사울을 따라 갔다. 사울은 야훼께 예배를 드렸다.

32.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아말렉 왕 아각을 데려 오라고 하였다. 아각은 마침내 죽을 고비를 넘겼나 보다고 생각하며 좋아서 사무엘 앞으로 나왔다. 33. 그러자 사무엘이 “너의 칼에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자식을 잃었는지 아느냐? 네 어미도 그런 여자들처럼 자식을 잃어야 마땅하다”하며 야훼 앞에서 아각을 난도질하였다. 길갈에서 있었던 일이다. 34.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가고 사울은 기브아에 있는 궁궐로 돌아갔다. 35.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야훼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셨다가 후회하신 일을 생각하고 통곡하여 마지않았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순수하고 이타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서 이기심을 몰아내는 일을 무엇보다 먼저 추진하신다.
- * 말씀에 관한 우리의 첫 이해성은 외적으로 나타난 것에 기초를 둔다.
- * 주님을 믿는다 함은 설사 우리의 판단에 반대된다 할지라도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 * 우리의 유전적인 자아 사랑으로부터 많은 생각들이 비롯됨을 인식해야 한다.

상응 공부

사울 = 신성한 진리를 자연적으로 이해함 또는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아각 = 자아만족이 삶을 통치하는 원리

해설

거룩한 땅을 여호수아의 지휘 하에 정복한 이스라엘은 정착의 시작과 더불어 편안함이 찾아오자 주님을 섬기는 것에 느슨해졌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인 판관 시대에 더욱 느슨해져서 주위의 적들이 강세를 얻게 되자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적들에 대항할 수 있는 협력된 힘을 조직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왕을 세우기를 바랬던 것이다.

판관 시대의 마지막 판관이기도한 사무엘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을 기름 부었고, 사울은 그의 장대하고 웅장한 용모로 인해 백성들에게 왕으로 환영받았다. 연합된 조직 곧 국가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은 진리에 대한 자연적인 이해성을 상징하는데, 이런 이해성은 젊은이들에게 가장 흔한 것이다. 이 이해성 역시 주님을 잘 섬기고자 하며 행동 면에서 아주 열성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이해성은 어떤 일이 지체되면 참지 못하고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사건의 현상에만 근거하여 추론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낫다고 여기는 결점을 지닌다. 사울은 암몬족과의 첫 전투에서는 승리했으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결론적으로 실패했다. 그는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할 제사를 미처 기다리지 못했다. 그리고 그나마 조금 승리하게 된 것 역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아들인 요나단의 용맹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사무엘은 이 싸움에서 사울을 심하게 누르면서 왕국이 더 이상 사울의 계보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우리가 자연적인 수준에서 진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통치할 수 없음을 묘사해 준다.

이와 더불어 본문은 사울의 장단점을 여실히 보여 주기도 한다. 사울이 지금까지 무찌른 두 적에 대한 전투는 공개적으로 싸움을 걸어난 적들에 대한 것이요 전면전이었다. 그러나 본문의 적인 아말렉은 공개적으로 전투를 유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적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적을 끄집어내어 파멸시키도록 사울에게 명령하셨다. 사울은 이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그는 “너는 당장에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 재산을 사정보지 말고 모조리 없애라.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나 나귀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여야 한다”라는 주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을 했다. 즉, 그는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았고 양과 소 중에서도 좋은 놈은 없애버리기가 아까워 살려두어 결론적으로 주님의 명령위에 자신의 판단을 얹어 놓아 스스로 처벌을 자초했던 것이다.

스웨덴북은 아말렉이 내면에 든 악으로부터 온 거짓을 표현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 악이 신실하게 의를 행하려 노력하고 있는 때조차도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좋은 것들에 쉽사리 “o.k.”라고 말하는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적인 수준에서 진리를 가름하는 이해성은 악들이 눈에 보일 경우에는 분명하게 그것을 저주한다. 그러나 서로에게 좋은 것 곧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방법을 선호하고, 깊게 뿌리내린 이기적인 사상은 건드리지도 않은 채 남겨둔다. 사울이 아각 왕을 사로잡고 아말렉의 양과 소 중에서 좋은 놈들은 없애버리기가 아까워 살려두고 하찮은 것들만 없애버린 본문의 이야기가 이에 해당된다.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된 일ियो? 또 소 우는 소리도 들리는데...”라는 사무엘의 물음에 사울은 “군인들이 아말렉에게서 빼앗아 온 것입니다. 양떼, 소떼 중에서도 좋은 놈들을 살려 두었다가 선생께서 모시는 야훼 하느님께 잡아 바치려고 끌어 온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울의 주장은 우리가 스스로를 속박하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태두리를 보여 주는 것을 묘사하며, 우리 주변의 사업이나 사회 특별히 정치생활에서의 수많은 이기적이고 잘못된 행동들이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시켜준다”라는 논쟁으로 변명하게 해 줄지도 모른다.

사무엘이 “그대가 야훼의 말씀을 저버렸으니, 야훼께서도 그대를 이스라엘 왕위에서 밀어내실 것이요.”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서 가려고 하자 사울이 사무엘의 도포를 붙잡는 바람에 도포자락이 찢어졌다. 여기서 사무엘은 말씀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의 도포는 말씀의 글자를 상징한다. 사울이

사무엘의 도포를 찢는다고 함은 신성한 명령을 담은 글자를 기꺼이 준수하지 않으려는데 사울의 약함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영적인 힘은 우리가 신성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즉, 우리의 판단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간섭하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어느 인간보다 슬기로우시며 영원히 지혜로우신 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뒤의 참고 문헌은 아말렉에 의해 상징되는 시험과 그 시험의 근원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준다. 아말렉 족은 과거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집트를 떠난 후 실제로 싸워야 했던 첫 번째 적이었다. 이 전투는 광야의 르비딤에서 있었고 모세는 전투동안 산에 올라가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있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의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후르는 모세의 팔을 좌우에서 각각 붙들어 떠받치니 해가 질 때까지 그의 팔은 처지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쳐 이겼다(출애굽기 17:8-16).” 본과 뒤의 인용문은 위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인 “야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 주시리라”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스웨덴본은 아말렉이 표현하는 악령을 ‘evil geni’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 악령이 아주 음흉하고 강하기 때문이다. 이 악이 우리 속에서 봉기하는 방법은 우리의 자연적인 이기심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만심에 쉽게 기울어지는 진리에 대한 우리의 자연적인 이해성은 이 악을 당해내지 못한다. 따라서 본문 뒷부분에서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처형하는 대목은 사울만으로 아말렉을 근절할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아말렉이라는 악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자신의 약함과 자신 속에 자아사랑이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의 차원으로부터 주님께 대한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들어 올려야 하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첫 왕은 누구인가?
- 2) 그는 어떻게 왕으로 선출되었는가?
- 3) 왜 백성들은 그가 왕이 됨을 기뻐했는가?
- 4) 그는 어느 영토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는가?
- 5) 그가 두 번째 맞이한 적은 누구인가?

- 6) 그는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가?
- 7) 그는 누구의 도움으로 승리했는가?
- 8) 본문에서 사울에게 어떤 적을 공격하라고 명령되었는가?
- 9)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이 적에 대하여 공부했는가?
- 10) 이 적과의 최초 전투에서는 어떻게 승리했는가?
- 11) 주님은 이 적을 어떻게 쳐부수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셨는가?
- 12) 사울은 어떻게 불순종했는가?
- 13) 사무엘은 사울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 14) 어떤 징조가 발생했는가?
- 15) 사무엘은 아각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 16) 아말렉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왕으로서의 사울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사울 2) 제비로 3) 키가 크고 힘이 세서 4) 요르단 건너 지역 5) 불레셋
- 6)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다 7)요나단 8)아말렉
- 9) 출애굽 후 광야에서의 최초의 적이었다 10) 모세가 팔을 들고 있음으로
- 11) 완전히 파괴하라 12) 왕과 좋은 가축을 살려 두었다
- 13) 그는 왕국을 잃게 된다 14) 도포가 찢어짐 15) 사무엘이 그를 죽였다
- 16) 내면의 악에 기초한 거짓 17) 진리를 세상적으로 생각함

17

다윗과 예언자 나단

머리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저지른 불순종은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그대에게서 찢어 내서어...”라는 사무엘의 엄명이 떨어지게 함과 더불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 다음 사울이 계속 왕위에 있는 동안 다윗의 생애는 사울과 겹쳐진다. 따라서 이 두 왕의 상이점과 다윗의 업적을 살펴보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사무엘하 12장 1-25절

1. 야훼께서 예언자 나단의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2. 부자에게는 양도 소도 매우 많았지만, 3. 가난한 이에게는 품삯으로 얻어 기르는 암컷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새끼 양을 제 자식들과 함께 키우며, 한 밥그릇에서 같이 먹이고 같은 잔으로 마시고 잘 때는 친딸이나 다름 없이 품에 안고 잤습니다. 4. 그런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 찾아 왔습니다.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소나 양은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집 새끼양을 빼앗아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5. 다윗은 몹시 괘씸한 생각이 들어 나단에게 소리쳤다. “저런 죽일 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6. 그런 인정 머리없는 짓을 한 놈을 그냥 둘 수는 없다. 그 양 한 마리를 네 배로 갚게 하리라.”
7.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울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8. 나는 네 상전의 딸과 아내들까지 네 품에 안겨 주었다. 나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딸들까지 너에게 주었다. 그래도 모자란다면 어떤 여자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9.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알아보며 내 눈에 거슬리는 짓을 했느냐? 너는 헛 사람 우리야를 칼로 쳐 죽였다. 암문군의 칼을 빌어 그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10. 네가 이렇게 나를 알고 헛 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네 아내로 삼았으니, 너의 집안에는 칼부림 가실 날이 없으리라.’ 11. 야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네 당대에 재난을 일으킬 터이니 두고 보아라. 네가 보는 앞에서 네 계집들을 끌어다가 딴 사내의 품에 안겨 주리라. 밝은 대낮에 네 계집들은 욕을 당하리라. 12. 너는 그 일을 쥐도

새도 모르게 했지만, 나는 이 일을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리라.”

13. “내가 야훼께 죄를 지었소.” 다윗이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자 나단이 말하였다. “야훼께서 분명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임금님께서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14. 그러나 임금님께서 야훼를 알보셨으니, 우리야의 아내가 낳게 될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15. 나단은 이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다. 야훼께서 우리야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 준 아이에게 증병을 내리셨다. 16.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베옷을 걸친 채 밤을 새우며 어린것을 살려 달라고 맨땅에 엎드려 하느님께 애원하였다. 17. 늙은 신하들이 둘러서서 일어나라고 했으나, 그는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더불어 음식을 입에 대려고도 하지 않았다. 18. 아기는 마침내 칠 일만에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신하들은 다윗에게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차마 알리지 못하고 수군거렸다. “아기가 살아 있을 때에도 우리 말을 듣지 않으셨는데, 아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면 무슨 변이 생길지 모른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는 아이가 죽었음을 알아채고 아기가 죽었느냐고 물었다. 신하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20. 다윗은 땅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야훼의 전에 들어가 예배를 올렸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 와 음식을 차려 오게 하여 먹기 시작하였다. 21. 신하들이 물었다. “아기가 살아 계실 때에는 잡수시지도 않고 아기 생각만 하며 우시더니, 막상 아기가 돌아 가시자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어찌 된 일이십니까?” 22. 그가 대답하였다. “그 애가 살아 있을 때 굶으며 운 것은 행여 야훼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아기를 살려 주실까 해서였소. 아기가 이미 죽고 없는데 굶든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내가 굶는다고 죽은 아이가 돌아오겠소? 내가 그 애한테 갈 수는 있지만, 그 애가 나한테 돌아 올 수는 없지 않소?” 24. 다윗이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니 바세바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다. 야훼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 25. 야훼께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시어 당신이 사랑하는 아이라 하여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내리셨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오직 우리의 선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슬픔을 허용하신다.
- * 성서의 하느님의 말씀은 모두 비유이다.
- *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까닭은 타인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 우리는 더 이상 악에 빠질 염려가 없다는 수준의 선한 상태에까지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

상응 공부

다윗 = 영적 추론으로 보게 되는 신성한 진리의 법칙

해설

이스라엘의 둘째 왕 다윗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당히 친숙하다.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영적으로 신성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을 표현한다. 이와 같은 이해성은 하룻밤 사이에 있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울이 주님께 불순종 하자마자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어졌다. 이와 더불어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했지만, 이 후로도 사울은 오랫동안 왕으로 군림했다. 사울이 전쟁에서 죽은 후 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으로 즉위하여 이스라엘 북쪽지역을 칠 년 동안이나 다스려 온 터라 다윗은 여전히 온전한 왕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의 다윗은 남쪽지역에서만 왕으로 추대되어 헤브론에서 통치하고 있었다. 위의 이야기는 우리가 처음 신성한 진리를 이해 할 때 그것의 요구 사항이 적절치 않다고 느끼는 상태, 즉 말씀속의 진리를 보다 깊게 이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실감하면서도 우리의 현실적인 충동이 현상적인 것에 의한 판단을 되풀이하고 있는 우리 삶의 상태를 묘사한다. 결국 우리는 반복되는 실수와 더불어 점차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과거의 습관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윗은 전 국토를 통치하기에 이르자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을 굴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정복해서 켈을 그곳으로 옮겼고 영토도 확장했다. 이는 한 때나마 우리의 마음에 정착된 신성한 진리의 영적 이해가 과거 우리를 괴롭혔던 술한 시험들을 제거해 주면서 이전에 꿈꾸지 못했던 넓은 시야와 탄탄한 목적의식을 우리에게 안겨 준다는 의미이다.

이후의 이야기는 다윗의 범죄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만사가 형통되면 순간적으로 망각하도록 유혹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껏 열심히 닦은 인격조차도 구원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것과 자신이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거나 혹은 자신이 상당히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계명을 어길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각오해야 한다. 다윗은 헛족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그녀를

아내로 삼고자 했다. 다윗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후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왕권을 이용했고, 심지어 전쟁터의 가장 위험한 앞 대열에 우리야를 세우도록 계락을 꾸며 그를 죽게 하여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까지 어기고 말았다.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은 새교회의 성경에 관한 일반적인 교리를 예증해준다. 다윗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름 부은 자였다. 게다가 주님은 그의 후손이 왕위를 이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기도 했다. 이상의 것들을 종합해 보면, 다윗 역시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이상적인 인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을 통해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한 그분의 도구로서 뽑혀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나단의 비유와 그 결과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법과 더불어 말씀이 비유로 주어진 까닭을 명확히 이해하게 된다.

다윗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신성한 진리로부터 비롯된 원리를 상징한다. 그러나 우리가 현상에 의한 판단을 넘어서 영적인 판단에 진입된 상태에서도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성은 다윗이 실수하듯이 여전히 불완전하다. 그리고 이기심이나 편견에 의해 우리의 영적 판단까지도 쉽게 흐려진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판단력은 자신의 바램이 올바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바라며 소유하려는 쪽으로 쉽게 끌려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서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발동하게 된다. 결혼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신성한 사랑과 지혜의 결합을 아주 깊게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의 질서가 전복된다고 함은 악이 진리와 그리고 선이 거짓과 결합하려고 시도함을 표현한다. 우리가 이기적인 바램을 만족시키기 위해 잘못을 행하려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간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예언자 나단으로 상징되는 말씀은 객관적인 형체 속에서 우리의 문제점을 표현해줌으로써 우리의 시야를 정화시켜주고 옳고 그름의 차이점을 우리 스스로 공정하게 가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제 삼자의 입장에 있는 것처럼 여기고 성경의 인물이나 사건의 움직임을 쉽게 판단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인물과 같은 입장에 처하거나 그런 이야기 속의 교훈을 필요로 하게 되면, 우리는 나단이 “네가 그 사람이다”라고 한 말을 직접 듣게 된다.

다윗은 회개했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가 행한 죄과 그 자체는 면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바세바의 첫 아들이 죽은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든 영적 삶으로 연결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한 뒤 임신한 둘째 아들인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들 중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 이는 순수한 회개와 겸허만이 우리를 위대함으로 인도해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상은 우리가 명심해야 할 명확한 판단의 기준인 것이다. 우리는 ‘선은 악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전쟁 또한 필수적인 미덕이다’ 혹은 ‘뭔가 일을 하려면 혈기가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젊은이들의 아우성을 흔히 듣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진정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악은 항상 손실만 초래하기 때문이다. 과정에 상관없이 악의 결과는 오직 손실뿐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선택의 자유 속에는 우리가 손실 후에 악을 뉘우치고 손실을 자신의 교훈으로 선택하여 자신의 길을 수정하게 되면 위대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설사 누군가가 자신이 훔친 물건을 주인에게 되돌려 준다하더라도 그가 행한 잘못을 없던 것으로 하거나 원 상태로 복귀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 잘못을 자신의 쓴 경험 혹은 삶에 대한 경고로 삼고 새롭게 출발할 수는 있다. 따라서 과거의 자신에 대해서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전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누구인가?
- 2) 그의 고향은 어디인가?
- 3) 그의 첫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 4) 누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는가?
- 5) 그는 무엇 때문에 사울의 관심을 사게 되었는가?
- 6) 그는 골리앗을 어떻게 때려 눕혔는가?
- 7) 다윗은 어디에서 처음으로 통치를 시작했는가?
- 8) 그는 얼마동안 그곳에서 통치했는가?
- 9) 그는 전 국토의 왕이 된 후 어떤 성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았는가?
- 10) 그가 그 성에 모신 아주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 11)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성취한 업적은 무엇인가?
- 12) 그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 13) 주님은 그를 견책하도록 누구를 보냈는가?

- 14) 나단은 어떤 비유를 다윗에게 들려주었는가?
- 15) 다윗은 비유속의 사람을 어떻게 판결했는가?
- 16) 그런 다음 나단은 다윗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 17) 다윗은 어떻게 나단의 질책을 받았는가?
- 18) 왜 나단은 다윗에게 비유로 먼저 말했는가?
- 19) 사울과 다윗의 상응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다윗 2) 베들레헴 3) 목자 4) 사무엘 5) 하프연주자였기 때문
- 6) 자갈과 돌팔매로 7) 헤브론 8) 7년 9) 예루살렘 10) 궤
- 11) 주위의 모든 적을 정복했다 12) 바세바와 정을 통했다 13) 나단
- 14) 부자와 가난한자, 암컷 새끼 양 15) “죽일 놈”
- 16) “네가 그 사람이다” 17) 회개했다 (시편 51편 참조)
- 18) 공정한 판단과 자신의 생명을 보전받기 위함
- 19) 사울 - 진리에 대한 자연적 수준에서의 생각, 다윗 - 진리에 대한 영적 수준에서의 생각

18

솔로몬의 최후

머리말

솔로몬은 다윗과 바세바의 둘째 아들로써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다. 그의 이름의 뜻, 다윗의 통치와 그의 통치의 상이점, 그의 지혜와 영예 그리고 성전건축에 관하여 언급한다. 그리고 그가 우상숭배로 전략한 원인이 아내가 많아서라기보다는 그의 아내들의 우상숭배 때문이었음을

강조한다. 또한 여로보암이 받은 겔옷 조각과 사울이 찢은 사무엘의 도포조각을 연관 지어 생각해본다(사무엘상 15:27-28).

성 서 본 문: 열왕기상 11장 1-13절, 26-43절

11장: 1. 솔로몬왕은 매우 호색이었으므로 수많은 외국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었다. 파라오왕의 딸뿐 아니라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 등 외국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아 들였다. 2. 야훼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국인들과 결혼을 금지하시고 경고하시기를 “너희는 외국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고 외국 남자를 남편으로 삼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꺾어 그들의 신에게 너희를 유인해 가겠기 때문이다”라고 하신 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 외국 여인들과 깊은 사랑에 빠졌던 것이다. 3. 솔로몬은 무려 칠백 명이나 되는 후궁을 거느렸고 그 외에 수청 드는 여자가 삼백 명이나 되었다. 왕은 여인들에게 빠져 마음이 흐려졌으므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4. 솔로몬은 늙어 그 여인들의 꾀에 넘어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 왕은 선왕 다윗만큼 자기 하느님 야훼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다. 5. 솔로몬은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도렛을 섬겼고 암몬인들의 우상 밀곰을 숭배하였다. 6. 이와 같이 솔로몬은 선왕 다윗만큼 야훼를 따르지 못하였고 야훼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다. 7.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편 산 위에 모압의 우상 그모스의 신당과 암몬의 우상 몰록의 신당을 지었다. 8. 솔로몬은 외국인 왕비들이 하자는 대로 왕비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물까지 드렸다. 9.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노하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를 마음으로부터 저버렸기 때문이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일찍이 그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으며 10. 그 때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일러두었는데 왕은 끝내 야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11. 마침내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마음이 이리하고 내가 너와 계약을 맺으면서 일러 둔 법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쫓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12. 그러나 너의 아버지가 다윗을 보아서 네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고 너의 아들의 대에 가서 이 나라를 쫓아내리라. 13. 그러나 이 나라를 쫓아내 다 내주지는 않고 한 지파만은 네 아들에게 주어, 내 종 다윗의 뒤를 이어 내가 지정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하리라”...

26.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족에 속한 스레다 사람으로서 솔로몬의 신하였다. 그도 또한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 스루아였다. 27. 그가 반기를 든 경우는 이러하였다.

솔로몬이 밀로궁을 건축하고 그의 선왕 다윗의 성을 보수할 때였다. 28. 그 사람 여로보암은 힘센 장사였다. 솔로몬은 그 젊은이가 일하는 것을 보고 그를 요셉 지파의 부역 총책임자로 임명하였다. 29. 한번은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다가 실로 출신의 예언자 아히야를 길에서 만났다. 그 예언자는 말쑥한 새 옷을 입고 있었다. 들에서 단들이 있게 되자 30. 아히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서 열 두 조각으로 찢었다. 31.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 열 조각을 맡으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하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라. 내가 솔로몬의 손안에 있는 이 나라를 찢어 너에게 열 지파를 주리라. 32. 그러나 한 지파만은 솔로몬에게 주어 내 종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내가 지정한 성읍인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하리라. 33.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이 섬기는 여신 아스도렛과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예배하였다. 그는 그의 아버 다윗과는 달리, 내가 보여 준 길을 가지 않았고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았으며 내가 준 규정과 법령을 지키지도 아니하였다. 34. 그러나 내가 뽑아 세운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규정을 지킨 것을 생각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이 나라를 조금도 빼앗지 아니하리라. 35. 내가 장차 그의 아들대에 가서 이 나라를 쪼개어 열 지파를 너에게 맡길 것이다. 36.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리라. 그리하여 나의 종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선택하여 나의 것으로 지정된 성읍인 예루살렘에서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항상 내 앞에서 비추게 하리라. 37. 내가 너의 원대로 너를 택하여 통치자로 임명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 38. 나의 종 다윗처럼 내가 명하는 바를 모두 지키고 내가 지시하는 길을 가며 내 규정과 명령을 지켜 내 앞에서 바르게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한 다윗의 왕조를 든든히 세워 주었듯이 너의 왕조도 든든히 세워 너에게 이스라엘을 맡기리라. 39. 이렇게 하여 다윗의 자손의 머리를 숙이게 해 주리라.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두어 두지는 아니하리라.”

40. 이렇게 되자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찾아 죽이려고 하였다. 여로보암은 하는 수 없이 시삭왕이 다스리는 이집트로 망명하였다.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다. 41.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나머지 역사는 솔로몬왕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42.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간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43.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 그의 선왕 다윗의 성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악과 거짓 속에 빠져있는 이들에게도 그분의 손이 닿도록 항상 노력하고 계신다.
- * 말씀은 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손이 닿도록 씌어져 있다.
- * 진정한 선행은 만인에게 뺏혀나가지만, 선과 악에 똑같이 뺏혀 나가는 것은 아니다.

상응 공부

솔로몬 = 사랑으로부터 이해된 신성한 진리
 결혼 전 여인 = 진리 또는 거짓에 대한 애착
 결혼 후 여인 = 선 또는 악에 대한 애착

해설

성경에 있는 솔로몬에 관한 사항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는 많은 여인을 거느렸었죠.”라고 흔히들 답한다. 셰익스피어는 “인간이 행한 악은 당사자가 죽은 뒤에도 살아 있는 때가 많고, 선은 그 사람의 뼈와 함께 묻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 그는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솔로몬왕은 땅위의 어느 왕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부유하고 지혜로웠다”라고 평가된다. 게다가 그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이러한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국이 몰락된 원인에 대해서만 기억할 뿐이다.

앞서 우리는 다윗의 범죄와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세 왕들의 잘못에 대한 모형은 모두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모두 성공의 시대가 열리자 주님의 계명보다 자신들을 더 우월하게 여겼던 것이다. 성경의 글자에서 나타나는 교훈 역시 명확하다. 즉, 계명을 깨트림은 결코 그들을 선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성경을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준까지 완전하거나 지혜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다.

본문은 새교회인들을 위해 이 보다 더 깊은 교훈을 설비해 놓고 있다. 뒤의 참고 문헌을 보면 본문에서의 솔로몬 말기에 관한 부분이 주님과 관련된 의미, 즉 가장 깊은 천적인 의미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하시다. 그분의 온유한 자비는 그분의 모든 섭리 속에 함유되어 있다. 주님은 이방인들의 양육된 환경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속에 선행을 보존하려고 하면 그들을 구해 주신다. 또한 주님은 악 속에 빠진 이들에게도 그분의 사랑이 임하도록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악을 보고 인정하여 그것으로부터 돌아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다. 스웨덴붉은 이런 이유로 복수 또는 처벌이라는 용어가 성경에서 쓰인 것이며 일부다처제와 같은 불합리한 사실들이 허용된 것이라고 거듭하여 설명한다. 이들은 그 시대 사람들의 상태에 대한 표본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더 깊은 악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장치도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의 실질적인 표현인 것이다.

한정된 지면으로 공부해야 하는 우리 성경공부의 한계 때문에 공부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말씀에 대한 영적 의미에 국한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각 개인의 영적 상태와 관련되는 의미만을 주로 살펴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문인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 삶에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일까? 앞서 살펴본 바대로 왕이란 진리 또는 거짓이 통치함을 표현한다. 따라서 세 왕들인 사울-다윗-솔로몬의 경우는 거듭남에 따라 있게 되는 우리의 상태들을 의미한다. 즉, 사울은 자연적 수준에서 진리를 이해하여 적용할 때를 의미하고 다윗은 영적 수준에서 진리를 이해하여 적용할 때를 의미한다. 이 두 왕들의 주된 임무는 이스라엘의 적들을 찾아내서 싸워 이기는 것이었다. 거듭나는 삶에 있어야 할 조건은 바깥의 삶 곧 일상생활을 질서 있게 해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광야 여행으로 그려지는 재구성의 시대이다. 이 시대 다음에는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이해함 속에 자리 잡은 악과 거짓들에 대항하도록 하는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싸움은 단 번에 끝나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수아서와 판관기서는 이런 싸움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묘사해준다. 그리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서는 이러한 싸움이 보다 조직화되어 접전을 시도하여 승리하게 됨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같은 오랜 싸움을 하는 동안 설사 만족할만한 승리의 순간이 많았다하더라도 결코 평화를 실감하지 못한다.

결국 모든 적이 정복된 후 솔로몬이 보좌에 오르게 되었다. 솔로몬이란 이름은 “평화”라는 뜻이다. 영적인 평화의 상태는 우리가 주님의 진리에 불순종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두려움으로 인한 순종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주님으로부터 진리가 근원되므로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여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영적인 평화는 오로지 사랑으로부터 곧 주님과 이웃을 사랑함에 서만 비롯된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잘못된 것을 원치 않는 상태에서 평화가 온다. 즉,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악 혹은 거짓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평화 속에 있게 된다. 이런 상태에 대한 묘사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돌은 채석장에서 다듬어 준비했기 때문에 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이나 그 어떤 연장을 다루는 소리도 성전에서 들리지 않았다”라는 구절에 담겨있다. 우리는 이러한 경지에 이른 사람을 목격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고 칭송하며, 세바 여왕이나 기타 다른 국가의 왕들이 솔로몬을 방문했듯이 그러한 경지에 이른 현자에게 조언을 구한다. 우리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인격을 가졌다고 여기며, 그의 삶에서 어떤 시험이나 투쟁 혹은 약함을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시험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초월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타당한 것일까?

본문은 위의 질문에 답해 주고 있다. 영문 성경에서의 본문의 첫 단어는 “but”으로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이 상태에 수반되는 깊고 깊은 시험이 있다는 말이다. 솔로몬은 이 시험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 시험이란 사람 안에 든 선한 것만 보고 악과 거짓에는 눈 감게 되는 것으로서, 누구든지 악과 거짓을 소홀히 하면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망각하게 하는 시험이다. 이러한 시험은 타인의 악을 너그럽게 이해해줌으로써 혹은 타인의 이해성 안에 든 거짓사상을 아무런 비판 없이 무조건 수용함으로써 시작된다. 솔로몬의 아내들이 그를 꺾어 그녀들의 신에게 끌고 갔던 것이 이에 대한 묘사이다. 특별히 선한 인격자라고 주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거짓사상을 수용하게 되면, 그 거짓은 사람들의 굉장한 지지를 받는 격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진정한 사상으로부터 유린해버리게 된다.

우리는 설령 자신의 거듭남이 솔로몬과 같은 상태에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할지라도 위에서와 같은 시험에 종종 노출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타인에게 사랑받고 칭찬 받게 될 때 자신의 결점을 변명하며 정당화하려는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 심지어 자신의 장점과 더불어 결점까지도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럴 때에 우리는 솔로몬의 죄와 그 결과를 회상하며, “참으로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하고 자백해야 할 것이다(마태복음 19:17).

질문 정리

- 1) 다윗과 바세바의 둘째 아들은 누구인가?
- 2)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은 누구인가?
- 3) 이 왕은 주님께 무엇을 요구했는가?
- 4) 주님은 그 요구에 무엇을 더해 주셨는가?
- 5) 그는 예루살렘에 무엇을 지었는가?

- 6) 그는 어떤 죄를 범했는가?
- 7) 그는 그 외에 어떤 죄를 범했는가?
- 8)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9) 주님의 말씀은 그가 죽기 전에 성취되었는가?
- 10) 솔로몬의 왕국 중 몇 지파를 그의 아들이 다스렸는가?
- 11) 누가 나머지 지파의 왕이 되었는가?
- 12) 여로보암은 누구인가?
- 13) 누가 그에게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는가?
- 14) 그는 어떤 징조를 보여주었는가?
- 15)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 16) 여로보암은 어디로 피신했는가?
- 17) 솔로몬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솔로몬의 죄는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솔로몬 2) 솔로몬 3) 지혜 4) 부와 명성 5) 성전 6) 많은 외국여자와 결혼했다
- 7) 우상숭배 8) 나라를 잃는다 9) 성취되지 않았다 10) 1 1/2지파 11) 여로보암
- 12) 솔로몬의 신하 13) 아히야 14) 옷을 찢었다 15) 그를 죽이려 했다 16) 이집트
- 17) 영혼의 평화 18) 악을 소홀히 취급함 또는 악에 대해 변명함

19

엘리사와 나아만

머리말

우선 열왕기상 12장을 읽고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이스라엘 왕국의 타락이 두 금송아지를 세운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언급한다.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선교 그리고 이스라엘을 끊임 없이 괴롭힌 시리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열왕기하 5장

1.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으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왕이 매우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야훼께서 나아만을 들어 쓰시어 시리아에 승리를 안겨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환자였다. 2. 시리아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다가, 한번은 거기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나아만 장군은 그 소녀를 아내의 하녀로 삼았다. 3. 그 어린 하녀가 자기의 주인에게 일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시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그가 문둥병쯤은 쉽게 고쳐 주실 텐데요.” 4.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입궐해서 왕에게,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가 이리이러한 말을 하더라고 아뢰었다. 5. 이 말을 들은 시리아 왕이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 줄 터이니, 장군은 가보시오.” 이리하여 나아만은 은 십 달란트, 금 육천 세겔, 옷 열 벌을 가지고 가서 6. 왕의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친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본인은 이제 이 편지를 들려 본인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문둥병을 고쳐 주십시오.” 7. 이스라엘 왕은 이 서신을 읽고 옷을 찢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란 말인가? 그가 사람을 보내어 나에게 문둥병을 고쳐 달라고 하니, 이것은 그가 나에게 싸움을 걸려고 트집을 잡는 것이 분명하다. 그대들은 이 점을 분명히 살피시오.”

8.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를 나에게 보내 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 주겠습니다.” 9. 그리하여 나아만은 마차를 몰고 엘리사의 집에 이르러 대문 앞에 멈추었다. 10. 엘리사는 사람을 내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요르단강에 가서 그 강물에 일곱 번 몸을 씻으시오. 그리하면 새살이 나와 깨끗하게 될 것이요.” 11. 나아만은 화가 치밀어 발길을 돌리면서 말하였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가 나에게 나와서 자기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부분을 손으로 만져 이 문둥병을 고쳐 주려니 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12. 다마스쿠스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강물보다도 더 좋은 아바나강과 발바르강이 있다. 여기에서 된다면, 거기에 가서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나아만은 크게 노하여 발길을 옮겼다. 13.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그를 막아서며 말하였다. “만일 이 예언자가 더 어려운 일을 장군께 시켰더라면 장군께서는 그 일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장군께 몸이나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14.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 준 대로 요르단 강으로 내려가서 일곱 번 강물에 들어가 몸을 씻었다. 그러자 새살이 돋아 그의 몸은 마치 어린 아이 몸처럼 깨끗해졌다.

15. 나아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돌아 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밖에는 온 세상에 신이 없습니다. 소인이 감사하여 드리는 이 선물을 부디 받아 주십시오.” 16. 엘리사가 “내가 모시는 야훼께서 살아 계십니다. 결코 이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하고 거절했지만 나아만은 받아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도 거절하자, 나아만은 이렇게 말하였다. “진정 받지 못하시겠으면, 이 한 가지 청만은 들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저는 야훼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나귀 두 마리에 실을 만큼 흙을 주십시오. 18. 그러나 한 가지 야훼께 용서를 빌 일이 있습니다. 저는 왕께서 림몬 신전에 예배하러 가실 때에 부축해 드려야 하고 왕께서 림몬 신전에서 예배할 때 같이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만은 야훼께서 용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19.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걱정 말고 가시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길을 조금 갔는데 20.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 게하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스승께서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바치는 것을 거절하시고 그냥 돌려보내시니 뒤쫓아 가서 무엇이든 좀 받아 오고 말겠다.” 21. 이렇게 생각하고 게하지는 나아만을 쫓아갔다. 나아만은 게하지가 뒤쫓아 오는 것을 보고 마차에서 내려 그를 만나 무슨 일이 있는냐고 물었다. 22. 게하지는 말하였다. “별일 없습니다. 지금 막 예비라임 산악지방에서 예언자 수련생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줄 은 한 달란트와 옷 두벌을 보내 달라고 스승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23. 나아만은 “드리디뎌이겠는가? 한 달란트를 더 드리겠다”하며 은 두 달란트를 억지로 두 자루에 넣고 옷 두 벌을 꺼내어 부하 두 사람에게 돌려 게하지 앞에 세워 보냈다. 24. 게하지가 집 있는 언덕에 돌아 와서 짐을 받아 집 안에 넣고 그 사람들을 돌려 보낸 후 25. 들어 가서 스승 앞에 서자, 엘리사가 물었다. “게하지야, 어디를 갔다 왔느냐?” “소인은 아무데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26.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마차에서 내려 너를 만나기 위하여 돌아 설 때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아느냐? 그래, 너는 돈을 받았다. 네가 그 돈으로 정원을 사서 올리브나무, 포도나무를 심고 양과 소를 사고 하인과 하녀를 거느릴 수야 있겠지만, 27. 너와 네 자손은 나아만에게서 옮은 문둥병을 영원히 앓으리라.” 게하지는

문둥병으로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어 엘리사를 떠났다.

교리 요점

- * 오직 주님만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
- * 진리는 말씀을 수단으로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
- * 자연적인 지식으로는 내적인 악들을 치료할 수 없다.
- * 진정한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상응 공부

이스라엘 = 이해성

유다 = 의지

시리아 =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문둥병 = 진리를 모독함

다마스쿠스의 강들 = 선에 관한 세상적인 사상들

해설

누가복음 제 4장에서의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께 기적을 수행함으로써 그분의 능력을 발휘 해보라고 했을 때 그분은 구약성서의 두 가지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시면서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이방인들이 선택된 백성들보다 더 치료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 중의 하나가 바로 거룩한 땅 밖에 위치한 사렘다 마을의 과부에게 엘리야가 기적을 베푼 이야기이다. 또 다른 하나는 엘리사가 시리아 장군 나아만의 병을 치료해준 본문의 이야기이다. 주님의 예언자인 엘리야와 엘리사는 말씀을 표현한다.

말씀에서 시리아는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상징하지만, 본문에서의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 있는 고로 이와는 반대되는 뜻을 가진다. 선과 진리에 대한 우리의 지식들이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면 그 지식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주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나아만의 문둥병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문둥병이란 세상적인 것을 유익하게 여기면서 선을 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선함 속에는 어떤 영적 생명도 존재할 수 없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상이 우세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마냥 좋을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인다. 나아만은 왕을 잘 모시는 충직한 신하였다. 그는 자기 하인들에게 온건했음이 틀림없다. 만약 그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린 하녀가 그에게 권면의 말을 자유롭게 귀뜸해주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그는 자신의 치료에 대한 보수를 치르는 데 있어서도 매우 관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병이 치료되었다고 확신하게 되자 이전에 믿었던 옛 신을 버리고 가까이 주님을 모시겠다고 선언했다. 한마디로 그는 선한 이방인이어서 치료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의 모습과 반대되는 인물이다. 그는 예언자를 절실히 필요로 한 순간에도 주님의 예언자가 있음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따라서 이 왕이란 교회에서 양육된 사람의 마음을 휩쓰는 세상적인 원리를 표현한다. 그리고 시리아에 포로가 된 어린 하녀란 우리의 필요에 대비하여 주님께서 아껴두신 말씀에 대한 어린 시절속의 애착을 표현한다.

요르단 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 한 엘리사의 명령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생활 속에 계명이 완전히 배어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삶을 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나아만의 모습 중 본받기 힘든 부분은 세상이 주는 교훈보다 계명을 더욱 위대하게 인식하는 것과 이러한 인식 후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정화하고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아만이 물속에 일곱 번 들어갔듯이 계명을 끝까지 행하는 것뿐이다.

본문에는 이 밖에도 흥미로운 세부사항이 있다. 이스라엘의 어린 하녀는 시리아로 붙잡혀 와 그곳에서 살면서 자기 주인을 구해낸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회개하고 거듭나도록 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 해주는 것은 어린 시절 우리 속에 저장된 순진한 상태들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림몬 신전에 예배하러 가는 왕을 부축해 주며 왕과 함께 엎드려 절한 것에 대해 용서를 비는 나아만과 이를 허용하는 엘리사의 모습은 우리의 인간적 약함을 아시는 주님의 자비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누가복음의 부정직한 청지기의 비유를 상기하도록 해준다. 게하지의 범죄와 그에 따른 벌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선함을 결코 자신의 영예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선행의 공적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스스로를 문둥병자로 만드는 것과 같다.

질문 정리

- 1) 여로보암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 2) 왜 그는 금송아지를 세웠는가?
- 3) 그 송아지를 세운 곳은 어디인가?
- 4) 주님은 어떤 두 예언자를 이스라엘 왕국으로 보냈는가?
- 5) 본문에서의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가?
- 6) 시리아의 군대 사령관은 누구인가?
- 7) 그는 어떤 병을 갖고 있는가?
- 8) 누가 병이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을 그에게 알려주었는가?
- 9)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했는가?
- 10) 나아만은 처음에 뭐라고 말했는가?
- 11) 그가 엘리사에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2) 그는 엘리사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는가?
- 13) 엘리사의 시종은 무슨 짓을 했는가?
- 14) 그의 별은 무엇인가?
- 15) 이스라엘과 유다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요르단 강물에 일곱 번 몸을 씻는다고 함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두 금송아지 제단을 세움
- 2)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임
- 3) 베델, 단
- 4) 엘리야와 엘리사
- 5) 시리아
- 6) 나아만
- 7) 문둥병
- 8) 포로로 잡아온 히브리 소녀
- 9) 요르단강물에 일곱 번 몸을 씻어라
- 10) 다마스쿠스의 강이 요르단강보다 더 낫다
- 11) 치료되었다
- 12) “나귀 두 마리에 실을 만큼 흙을 주십시오”
- 13) 보상을 원했다
- 14) 문둥병자가 됨
- 15) 마음이 분리되었음
- 16) 계명에 끝까지 순종하라

20

시드키야와 예레미야

머리말

이스라엘과 유다를 정복한 두 국가의 이름들을 언급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끌려가 결코 되돌아오지 못했던 반면 유다왕국의 백성들은 모두 끌려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귀환하기도 했음을 설명한다. 또한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지만 나중에 재건되었음을 설명한다.

성 서 본 문: 열왕기하 24장, 25:1-12, 예레미야 21장

열왕기하 24장: 1. 여호야킴이 다스리던 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 와서 여호야킴은 그의 신하가 되었다. 삼년이 지나서 그는 반기를 들었다. 2. 야훼께서는 바빌론 침략군과 시리아 침략군과 모압 침략군과 암몬 침략군을 보내어 유다 전국을 짓밟게 하셨다. 야훼께서 당신의 종인 예언자들을 시켜서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3. 이런 일이 유다에서 일어난 것은 르나제가 온갖 못할 짓을 하는 것을 보시고 야훼께서 유다 백성을 내쫓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일 따름이다. 4. 그런데다가 그는 무죄한 피마져 흘려 예루살렘을 피바다로 만들었으므로 야훼께서는 용서하실 마음이 없으셨던 것이다.

5. 여호야킴의 나머지 사적과 행적은 유다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6. 그가 선조들과 함께 영면하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7. 이집트왕은 이집트 국경을 흐르는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강에 이르는 땅을 모두 바빌론 왕에게 빼앗기고 다시는 자기 영토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8. 여호야긴은 십 팔 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삼 개월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엘나단의 딸로서 이름은 느후스타라고 하였다. 9. 여호야긴은 아버지가 그러하였듯이 야훼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10. 그 때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쳐올라 와서 포위하였다. 11. 이렇게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을 치러 친히 왔다. 12. 일이 이쯤 되자 유다왕 여호야긴은 자기 어머니와 신하들과 장군들과 내시들을 거느리고 바빌론 왕에게로 나아가 사로잡혔다. 때는 바빌론 왕 제팔 년이었다. 13. 야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바빌론 왕은 야훼의 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화를 털어 갔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야훼의 전에 만들어 두었던 온갖 금기물을 다 부수었다. 14. 또한 예루살렘 전 시민과 고관들과 군인 일반명, 그리고 은장이들과 대장장이들을 사로잡아 가고 가난한 지방민만 남겨 두었다. 15. 그는 여호야긴도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력층과 함께 사로잡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16. 그리고 유력자 칠천 명과 은장이, 대장장이 천 명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는데 그들은 모두 싸우려 나갈 수 있는 용사들이었다. 17. 바빌론 왕은 여호야긴의 삼촌인 마파니야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키야로 바꾸도록 하였다.

18. 시드키야는 이십 일 세 때 왕위에 올라 십 일 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리브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로서 이름을 하무달이라고 하였다. 19. 시드키야는 여호야킴이 했던 것같이 야훼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20. 예루살렘과 유다는 야훼의 진로를 사 마침내 그 앞에서 쫓겨 나고 말았다.

25장: 1. 시드키야가 바빌론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키야왕 구년 시월 십일, 전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을 포위하고 사면에 토성을 쌓았다. 2. 이 포위는 시드키야왕 십일 년까지 계속되었다. 3. 그 해, 성에 기근이 혹심하여 식량이 떨어지자 일반 서민들은 굶주려 죽게 되었는데, 사월 구일에 4. 드디어 성벽이 뚫렸다. 유다 왕은 이를

보자, 바빌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도 그의 전 호위병과 함께 밤을 도와 성을 도주하였다. 그들은 왕의 정원 근처에 있는 “두 성벽 사이”라는 성문으로 빠져 나가 나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5. 바빌론 군대가 왕을 추적하여 예리고의 들판에서 그를 사로잡자 왕의 군대는 산산이 흩어져 버렸다. 6. 바빌론 군대가 왕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데리고 가자 바빌론 왕이 그를 심문하였다. 7. 그는 시드키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데서 살해하고 시드키야의 눈을 뽑은 다음 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8.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제십 구년 오월 칠일, 바빌론 왕의 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들어 와 9. 야훼의 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성 안 건물을 모두 불태웠다. 큰 집은 모두 불탔다. 10. 친위대장을 따르는 바빌론 군인들은 예루살렘을 둘러 싸고 있는 성벽을 죄다 허물어 버렸다. 11. 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성에 남은 사람들과 바빌론왕에게 항복해 온 자, 그리고 기타 남은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 갔다. 12. 그는 백성들 중 가장 비천한 층의 사람들만 남겨 두어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예레미야 21장: 1. 시드키야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니야 성직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예레미야에게 내린 야훼의 말씀이다. 그들은 이렇게 청했던 것이다. 2.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싸움을 걸어 왔소. 기적을 베푸시어 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야훼께 빌어 주시오.” 3.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야훼께 받은 말씀을 일러 주었다. “당신들은 시드키야왕께 가서 이렇게 전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한다. 너희는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바빌론 왕의 군대와 싸우려 한다마는, 나 이제 너희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 무기를 이 성읍 한 가운데다 모아 놓으리라. 5. 너무나도 노엽고 화가 나서 내가 있는 힘을 다 기울여 너희를 치리니, 6. 이 도읍에 사는 사람과 짐승이 모두 심한 염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7. 똑똑히 말하여 둔다. 이렇게 염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죽고도 남은 유다 왕 시드키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리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원수들의 손에 너희를 넘겨주리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원수들의 손에 너희를 넘겨주면, 그들은 사정없이 무자비하게 칼로 쳐 죽일 것이다.’ 8. 당신들은 또 이 백성에게 야훼의 말씀이라 하며 이 말을 전하십시오. ‘내가 살 길과 죽을 길을 너희 앞에 내어 놓을 터이니 너희는 그중 하나를 택하여라. 9. 이 성 안에 버티고 있다가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가서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바빌론 군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다. 목숨 하나 건지는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10. 내가 똑똑히

말해 둔다. 나는 이 도읍을 잘 돌보아 줄 생각이 없어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이 도읍은 바빌론 왕의 수중에 들어가서 불에 타 없어지고 말리라.”

11. 유다 왕실에게 말한다. 너희는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12. “다윗 왕실에게

나 야훼가 말한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라.

억울하게 착취당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 주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의 궤뒀은 소행을 보고

내가 화가 나서 너희를 불 태우리니,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하리라.

계곡을 굽어 보는 예루살렘아,

벌판에 우뚝 솟은 바위야!

내 말을 들어라.

‘누가 감히 우리에게 달려드느냐?

이 깊은 곳으로 누가 감히 쳐들어 오느냐?’하고 말한다마는,

나는 이제 너희를 치리라.

나는 너희의 소행을 따라 벌하리라.

똑똑히 말해 둔다.

나는 수풀중에 불을 질러

둘레를 온통 태워 버리리라.”

교리 요점

- * 주님은 각 개인의 의지에 반대되어서는 구원하실 수 없다.
- * 예언서는 우리로 하여금 역사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 *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께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 * 이해성이 진리에서 거짓으로 변화되면 마음속의 선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상응 공부

아시리아 = 추론, 지성의 합리적인 면
바빌론 = 자아사랑에서 비롯된 지배욕
가난한 자 = 겸손한 자

해설

이스라엘 왕국은 끝내 아시리아에 의해 정복당하고 말았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성이 세상적인 추론에 빨려들고 만 모습을 의미한다. 그 나라 백성들은 모두 끌려가서 결코 되돌아오지 못했다. 이 후 아시리아가 유다왕국을 위협했지만 당시 유다의 왕인 히즈키야가 주님을 성심껏 섬긴 터라 그분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시리아 군대는 기적으로 전멸 당하여 유다왕국은 일시적으로 나라의 존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거듭나는 삶에 일단 진입한 각 개인의 마음은 단순한 세상적인 사상에 의해서 정복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사상들 뒤에는 선한 의도를 전복시킬 수 있는 더욱 막강한 적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바빌론의 왕은 히즈키야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히즈키야의 병세를 물어보는 걸치레적인 인사를 했다. 그때 히즈키야는 그들을 친구로서 영접하며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보물을 보여 주었다. 바빌론은 지배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 곧 지배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타인이 모두 해주어야 한다고 바라는 욕망인 것이다. 이사는 히즈키야에게 바빌론의 사절단 앞에서 우쭐된 그의 결과를 알려주었다. 이에 대한 것은 열왕기하 20장 16-18절에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다. 바빌론의 왕은 히즈키야가 보여주었던 예루살렘의 보물들이 자신의 것이 될 때까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 본문은 바빌론의 왕이 멀리 이집트까지 모두 정복해버린 후 유다에 대한 마지막 공격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바빌론 왕국의 모습이야 말로 지배욕의 특성인 것이다. 이는 욕망이 우리 삶을 슬슬 기어 다니다가 점차 그 깊이를 더 해가서 결국 우리의 마음까지 휩쓸어 버리는 상황을 뜻한다. 또한 이것은 주님과 말씀에 관한 진정한 이해성이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안정성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진 상태 안에서는 그런대로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상태가 퇴보되면 이기심에 의해 쉽게 잡아먹히게 된다. 그 이유는 이기심이 이해성의 측면과 일상생활면을 이미 침투하여 자리 잡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히즈키야 왕 이후에도 유다에 선한 왕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히즈키야의 증손자인 요시아이다. 앞서 우리는 요시아가 과감히 수행했던 개혁에 관해서 공부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의 뒤를 이은 세 왕들은 모두 악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즈는 이집트로 잡혀갔고, 그를 대신하여 형제인 엘리아킴이 이집트인들에 의해 여호아킴으로 개명되어 왕위에 올라 이집트에 공물을 바쳤다. 하지만 그는 이내 이집트에 반기를 들었고, 그 후 바빌론 왕에게 쫓겨났다. 11년간 지속된 여호아킴의 통치는 잦은 적의 습격으로 인한 괴로움의 연속이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은 왕위에 오른 지 석 달밖에 안되어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을 공격받아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바빌론 왕은 왕의 친척들 외에 유다의 지도자들 칠천 명과 은장과 대장장이 천명을 끌고 갔고, 왕가와 성전의 모든 보물들까지도 모두 휩쓸어 갔다. 그는 그 땅을 돌볼 가난한 자들만 남겨 두었다. 느부갓네살은 왕의 삼촌인 시드키야를 새 왕으로 세웠는데, 그는 꼭두각시 왕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시드키야가 구 년 뒤에 반역하자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이 년 후에는 모두를 갈취하고 파괴시켜 버렸다. 시드키야에게 내려진 벌은 열왕기하 25장 6-7절에 기술되어 있다. 이렇게 파괴된 예루살렘의 모습은 순수한 진리를 보는 능력 혹은 어떠한 영적인 발달 능력이 완전히 파괴된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 느부갓네살은 왕이 아닌 총독으로서 요시아의 서기관이었던 사반의 손자 게달리아를 다시 임명했다. 그러나 일부 남아 있던 백성들이 그를 죽인 후 바빌론의 보복이 두려워 이집트로 도망갔다.

이러한 유다의 역사는 자신의 마음에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오도록 허용한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그려준다. 간단한 예로, 한 젊은이가 교회에서 양육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가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면, 그는 고향에 있는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분리되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초기에 자신이 여전히 기독교인이라고 느낀다. 그러나 살다보면 교회에 가는 것을 멈추도록 하는 많은 일들이 그의 주위에서 발생된다. 이때에 그는 “내가 과거에 교회에 나갔던 것은 부모를 따라 다니다보니 자연히 습관처럼 된 것일 뿐 실제로는 교회가 의미하는 바와 내 삶에 있어서 교회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었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예배에 참석하려는 노력을 점점 소홀히 하게 된다. 그런 다음 정규적인 예배가 없는 그의 외적인 삶이 세상의 쾌락 또는 세상적인 의무로 채워지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며 선한 인격자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가 하고자 하는 바가 그에게 올바른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태도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주님의 의지 대신 자신의 의지가 그의 마음의 통치자로서 자리를 굳혀간다.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점령당해 가는 모습이 바로 이를 의미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영적 인격 속에 든 아름다운 것들이 모두 파괴되면서 영적인 진리에 대한 마음의 눈은 소경이 되어 버린다. 이렇게 되면 그는 세상적인 것과 이기적인 원리의 노예가 되고 만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 주님께서 이와 같은 상태의 사람을 향해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겸손한 곳으로 지속적으로 인도하시며 경고 해주심에 관한 것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의지와 반대되어서는 우리를 구해주실 수 없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하면, 정의는 그의 본질인 정의로운 방침을 취해야 한다. 시드키야의 본래 이름인 마따니아는 하느님의 선물이란 뜻이었다. 반면에 개명된 시드키야란 하느님의 정의를 뜻하는데, 이는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다.

제 25장은 내적인 의미를 지닌 구약 성서의 역사적 부분이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약 칠 십 년 후 거룩한 땅으로 유다 백성의 일부가 귀환되도록 인도해줄 징조를 엿 볼 수 있다. 즉, 바빌론 왕 에월므로다이가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호의를 베풀어 감옥에서 내놓고 친절히 대우하였다...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은급을 받아 여생을 살았다”라는 기록 때문이다.

우리가 본문의 전체적인 면에서 인식해야 할 사항은 바빌론에 의해 유다가 정복되는 이야기는 한 사람의 선한 심정을 이기심과 지배욕이 침투해 감을 묘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기심과 지배욕의 침투가 단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또한 선 쪽에 있는 의지는 그 마음이 정복되는 마지막까지도 수차례 진실을 주장한다는 것과 귀환의 가능성이 주님께 의해 보존되고 있음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질문 정리

- 1)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했는가?
- 2)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3) 이 적에 대해서 유다왕국은 왜 오래 버틸 수 있었는가?
- 4) 유다의 선한 왕들은 무엇을 추진했었는가?
- 5) 어떤 국가가 유다를 정복했는가?
- 6) 유다의 어떤 왕 시절에 바빌론 사절단이 내왕했었는가?

- 7) 어떤 예언자가 이 사절단의 결과를 예언했는가?
- 8) 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인가?
- 8) 이 마지막 왕은 어떤 예언자에게 조언을 구했는가?
- 10) 예레미야는 이 왕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1) 시드키야는 어떻게 되었는가?
- 12) 어떤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는가?
- 13) 그 땅에 남은 자들은 누구인가?
- 14) 이스라엘과 유다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아시리아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바빌론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그 땅의 가난한 자”는 누구를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아시리아 2) 영원히 끌려갔다 3) 다윗의 계보에 충실했기 때문 4) 개혁 정치
- 5) 바빌론 6) 히즈키야 7) 이사야 8) 시드키야 9) 예레미야
- 10) 예루살렘이 파괴되다 11) 눈이 뽑혀 바빌론에 끌려감
- 12) 왕자와 용사 그리고 대장장이 등의 유력자들 13) 가난한 자 14) 분단된 심정과 지성
- 15) 세상적 추론 16) 자아사랑에서 비롯된 지배욕
- 17) 주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겸손한 자

21

말씀에 관한 시편

머리말

제 2반은 시편을 위한 배경을 충분히 담고 있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본문을 살펴본다. 이 시편에 관한 두 가지 요점은 제 1반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이 요점을 주로 공부한다.

성 서 본 문: 시편 119편

1. 복되어라, 그 행실 깨끗하고
야훼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2. 복되어라, 맺은 언약 지키고
마음을 쏟아 그를 찾는 사람,
3. 나쁜 일 하지 아니하고
그의 길만 따라 가는 사람.
4. 당신은 계명들을 내리시고
온전히 그대로 살라 하셨으니
5. 당신 뜻을 어기지 않고
균균하게 살도록 해 주소서.
6. 그 명령을 날날이 명심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이다.
7. 당신의 바른 결정을 내가 배워서
진심으로 감사하오리이다.
8. 당신 뜻대로 힘써 살려 하오니,
이 몸을 아주 버리지 마소서.
9.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길을 가오리이까?
당신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면 되오리이다.
10. 내가 마음을 다 쏟아 당신을 찾사오니
당신 명령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
11. 당신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주신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12. 아뢰여, 찬송을 받으실 분이여
당신 뜻을 가르쳐 주소서.
13. 친히 내리신 모든 법규를
이 입술로 모두 뒤풀이했습니다.
14. 어떤 부귀를 누리기보다도
당신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더 기뻐사옵니다.
15. 당신의 계명을 되새기며
일러 주신 길을 똑바로 걸으리이다.
16. 당신 뜻을 따름이 나의 낙이오니
당신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17. 당신 종을 너그러이 보시고 살려 주소서.
당신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18. 나의 눈을 열어 주시어
당신 법의 그 놀라운 일을 보게 하소서.
19. 땅 위에서 나그네인 이몸에게
당신의 계명을 숨기지 마소서
20. 자나깨나 당신의 결정을 갈망하다가
내 영혼이 지쳤사옵니다.
21. 당신의 계명을 어기는 거만한 자들
그 저주받을 자들을 꾸짖으소서.
22. 내가 당신의 언약을 지켰사오니
이 모욕과 멸시를 벗겨 주소서.
23. 수령들이 모여 앉아 나를 포함하오나
이 종은 당신의 법규를 명상합니다.
24. 당신의 언약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충고자이옵니다.
25. 내 영혼이 먼지 속에 처박혔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26. 내가 살아 온 길 보이매 응답하셨사오니
당신 뜻을 가르쳐 주소서.
27. 당신 계명 따르는 길, 깨우쳐 주소서.
주의 이루신 기적들을 되새기리이다.
28. 나의 영혼이 괴로와 잠 못 이루오니,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일으켜 주소서.
29. 다시는 거짓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법의 은총을 나에게 베푸소서.
30. 진리의 길을 나는 택하였사오니
당신의 결정을 내 앞에 내리소서.
31. 아훼여, 당신 언약에 내 마음을 붙이오니,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게 하소서,
32. 당신 계명 내 마음 흡족하오니
그 길을 따라 내달리리이다.
33. 아훼여, 당신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치소서.
그대로 지키고 상급을 받으려 하옵니다.
34. 당신 법을 깨우쳐 주시고 그 법 따라 살게 하소서.
마음을 다 쏟아 지키리이다.
35. 나의 기쁨은 당신의 계명에 있사오니
그 길 따라 곧장 살게 하소서.
36. 내 마음을 잇속에 기울이지 않고
당신의 언약으로 기울게 하소서.
37. 헛된 것에서 나의 눈을 돌리시고
당신의 길을 걸어 생명을 얻게 하소서.
38.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을
당신의 종에게 지켜 주소서.
39. 당신의 결정은 은혜로우시니,
그 몸서리치는 모욕에서 건져 주소서.

40. 당신의 계명을 나는 갈망하였사오니,
정의를 세우시어 이 몸을 살려 주소서.
41. 야훼여, 당신 사랑을 나에게 베푸시고,
약속하신 당신 구원을 내려 주소서.
42. 당신 말씀 굳이 믿고,
나를 욕하는 자들에게 응수하리이다.
43. 당신의 결정에 내 희망을 두오니
진리의 말이 내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44. 당신 법을 언제나
길이길이 끝까지 지키리이다.
45. 당신의 계명을 애써 지켰사오니
내 닳는 발걸음 자유롭게 하소서.
46. 임금들 앞에서 당신의 언약을 선포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으리이다.
47. 당신의 계명은 나의 기쁨,
그것을 나는 사랑하옵니다.
48. 당신 계명 내가 사랑하옵기에 쌍수 들어 반기고
당신 뜻을 언제나 나는 명상합니다.
49.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 잊지 마소서.
나의 희망은 그 말씀에 있사옵니다.
50. 비참할 때, 내가 받는 위로는
내 생명 살리시는 당신의 약속.
51. 교만한 자들이 나를 마구 희롱하여도
나는 당신의 법에 버티고 굴치 않았사옵니다.
52. 그 옛날에 내리신 당신의 결정, 그것을 생각하면
야훼여, 나는 위로가 되옵니다.
53. 당신 법을 버리는 악인들 앞에서
울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사옵니다.

54. 나그네살이하는 이 내 집에서
당신 뜻을 노래로 따르리이다.
55. 야훼여, 밤에도 당신의 이름을 잊지 않고
당신의 법을 지키리이다.
56.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57. 야훼여 나의 분깃은,
당신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고 나는 말하였습니다.
58. 당신 얼굴 웃음 띠도록 내가 몹시도 힘쓰오니
약속하신 대로 이 몸을 붙잡히 여기소서.
59. 지금까지 걸어 온 내 길을 반성하고
당신 언약의 길로 되돌아옵니다.
60. 빨리빨리 머뭇거리지 않고
당신 계명을 지키리이다.
61. 악인들의 올가미가 내 주위에 두루 있어도
나는 당신의 법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62. 공정하신 그 판결들,
한밤중에 일어나 감사기도 드립니다.
63. 나는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당신 법을 지키는 자들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64. 야훼여,
당신의 사랑이 땅에 넘치웁니다.
당신의 뜻을 나에게 알려 주소서.
65. 야훼여,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종을 선대하였사웁니다.
66. 내가 당신께서 명령하신 것을 굳이 믿사오니
옳은 판단과 지식을 가르쳐 주소서.
67. 죄 받아 고생하기까지는 빛나갔사오나

이제는 당신 약속 그대로 지키리이다.
 68.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이여,
 당신 뜻을 나에게 알려 주소서
 69. 교만한 자, 거짓으로 나를 피어도
 마음을 다 쏟아 당신 계명을 지키리이다.
 70. 그들은 마음에 기름기 끼었으나
 나에게 미각은 당신의 법이옵니다.
 71. 고생도 나에게겐 유익한 일,
 그것이 당신 뜻을 알려 줍니다.
 72. 당신께서 가르치신 법이야말로
 천만 금은보다 유익합니다.
 73. 손수 나를 빚어 만드셨으니
 깨우침을 주소서.
 당신께서 명하신 것을 가르쳐 주소서.
 74. 당신 말씀에 희망을 둔 이 몸을 보고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은 기뻐하리이다.
 75. 아뢰여, 당신의 판결은 옳사옵니다.
 나를 괴롭히심은 당신의 성실하심 때문이옵니다.
 76. 일찍이 당신의 종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랑을 내리시어 위로하소서.
 77. 당신의 법이 나의 기쁨이오니
 인자를 베푸시어 살려 주소서.
 78. 거짓말로 이 몸을 괴롭히는 교만한 자들일랑 망신을 당하게 하소서.
 이 몸은 주님의 계명을 되새기리이다.
 79.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나에게 오게 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깨우친 이들 나에게 오게 하소서.
 80. 이 마음 당신의 뜻을 따라 깨끗이 살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81. 이 몸이 당신 말씀에 희망을 걸고
당신의 구원을 향하여 끝까지 가오리이다.
82. 이 몸이 당신 약속을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언제 나에게 위안을 주시렵니까?
83. 나 비록 연기 속의 가족부대처럼 되었사오나
나는 당신의 뜻을 잊지 않으리이다.
84. 당신의 종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 몸을 박해하는 자들을 언제나 심판하시렵니까?
85. 당신의 법을 반대하는 교만한 자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팠사옵니다.
86. 당신의 법령은 조목조목 참되오니,
거짓이 나를 핍박할 때 나를 도와주소서.
87. 이 땅에서 저들이 이 몸을 거의 죽여 놓았어도
나는 당신의 계명들을 버리지 않으리이다.
88. 당신의 사랑으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친히 일러 주신 언약을 지키리이다.
89. 아뢰여, 당신 말씀 영원하시고
변함없이 하늘에 있사옵니다.
90. 당신의 진실하심 만세에 이르오며,
손수 만드신 저 땅은 흔들림이 없사옵니다.
91. 모든 것이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결정 따라 오늘까지 변함없이 있사옵니다.
92. 당신의 법이 나의 낙이 아니었다면
이 몸은 고통 속에서 죽었으리이다.
93. 계명들을 주시어 살려 주셨으니
죽어도 그것을 아니 잊으리이다.
94. 이 몸이 당신의 것이오니 구원하소서.
애써 당신의 계명을 찾으리이다.

95. 악인들이 이 몸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사오나
나는 당신의 언약을 명심하리이다.
96. 아무리 완전한 것도 끝이 있는 줄 나 아오나,
당신의 계명들은 한 없이 넓사웁니다.
97. 당신의 법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자나깨나 나는 그 말씀을 되새깁니다.
98. 계명을 주심으로 당신은 내 것이 되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나를 만드십니다.
99. 당신의 언약을 되새기어서
나의 모든 스승보다도 더 현명해지리이다.
100. 당신의 법령들을 내가 지키어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와지리이다.
101. 당신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온갖 나쁜 길에서 발길을 돌리리이다.
102. 당신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오니
당신의 결정을 거역하지 않으리이다.
103. 당신의 약속은 말부터가 혀에 달아
내 입에는 꿀보다도 더 답니다.
104. 당신의 법령들을 깨우쳐 슬기를 얻었으니
모든 거짓된 길을 역겨워합니다.
105. 당신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웁니다.
106. 나 한번 맹세하였으니
당신의 바른 결정을 지키리이다.
107. 야훼여, 나의 받는 고난이 심하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108. 야훼여, 내 입이 드리는 이 정성을 받으시고,
당신의 결정을 가르쳐 주소서.

109. 나의 생명 항상 내 손안에 있으니
당신의 법을 잊지 않으리이다.
110. 악한 자들이 내 앞에 올라미를 쳐 놓았으니,
나는 당신의 법령들을 어기지 않으리이다.
111. 당신의 언약은 영원히 나의 유산이며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112. 당신 뜻을 따르기로 내 마음 정하였사오니
그것이 영원한 보상입니다.
113. 나는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오며
당신의 법을 사랑합니다.
114. 당신은 나의 은신처, 나의 방패시오니
나는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두읍니다.
115. 악인들아, 나에게서 떠나가거라.
나는 내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리라.
116.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살려 주소서.
나의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지 마옵소서.
117. 내가 기뻐 지주 되어 주소서.
내가 살아나리이다.
- 나는 언제나 당신 뜻을 살피리이다.
118. 당신 뜻을 어기고 벗어나는 자, 모두 당신께서 얹어 버리시니
그들의 계산은 허황합니다.
119. 세상의 악인들을 모두 찌꺼기처럼 치우시니
나는 당신의 언약을 사랑하옵니다.
120. 나는 당신이 무서워 떨리웁고,
당신의 판결이 이 몸은 두렵기만 합니다.
121. 나는 당신의 결정과 정의를 따랐사오니,
억누르는 자들에게 넘겨주지 마소서.
122. 당신의 종을 편들어 잘 되게 하시고

- 교만한 자들에게 짓밟히지 않게 하소서.
123. 당신의 구원을 눈 빠지게 기다리오며
정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124. 당신 사랑으로 이 종을 대해 주시고
당신의 뜻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125. 이 몸은 당신의 종이오니 나를 깨우쳐 주소서.
당신의 언약을 알아차리리이다.
126. 아뢰여, 당신의 법을 사람들이 짓밟았사오니
나서실 때가 되었사옵니다.
127. 그리하여 나는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당신의 계명을 더 좋아하리이다.
128. 또, 당신의 법령을 어김없이 따르고,
모든 거짓된 길을 역겨워하리이다.
129. 당신의 언약이 너무나도 놀라와
이 몸은 성심껏 그것을 지키리이다.
130. 당신 말씀 밝히시어 빛을 내시니,
우둔한 자들이 손쉽게 깨닫습니다.
131. 당신의 계명을 탐한 나머지
입을 크게 벌리고 헐떡입니다.
132.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시던 대로
나에게도 얼굴을 돌이키사 불쌍히 여기소서.
133. 당신 약속에 힘을 얻어 곳곳이 걷게 하시고
악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134. 사람들의 압박에서 이 몸 빼어 주소서.
당신의 법령대로 살리이다.
135. 당신의 종에게 웃는 얼굴을 보이시고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소서.
136. 사람들이 당신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니

- 시냇물처럼 눈물이 흐릅니다.
137. 야훼여, 당신은 공정하시며
당신의 결정은 언제나 옳습니다.
138. 당신의 언약은 공정하여
조금도 틀림이 없사옵니다.
139. 나의 원수들이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니
나의 정열이 이 몸을 사룹니다.
140.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진 당신의 약속,
나에게는 그 약속이 소중합니다.
141. 나 비록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당신의 법령들을 잊지 않으리이다.
142. 당신의 정의는 영원한 정의,
당신의 법은 언제나 진실됩니다.
143. 우민과 억압에 짓눌려도
당신의 계명이 나를 기쁘게 하옵니다.
144. 당신의 언약은 언제나 공정하시니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을 살게 하소서.
145. 야훼여, 목청껏 당신을 부르오니 대답하소서.
당신의 뜻을 따르리이다.
146. 당신을 부르오니 구해 주소서.
당신의 언약을 내가 지키리이다.
147.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 이렇게 부르짖사옵니다.
148. 뜬눈으로 밤을 지켜보며
당신의 약속을 묵상합니다.
149. 야훼여, 당신의 사랑으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판결로써 이 몸을 살려 주소서.
150.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당신의 법을 버리고

- 음흉한 생각으로 나에게 가까이 옵니다.
151. 야훼여, 당신께서는 나에게 가까이 계시오며
당신의 계명은 언제나 진실됩니다.
152. 영원토록 맺으신 당신의 언약,
나는 옛부터 그것을 익히 알았습니다.
153. 당신의 법을 내가 잊지 않으리니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건져 주소서.
154. 고발당한 이 몸을 변호하시고 구해 주소서.
약속하신 대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155.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는 자들,
그 악인들에게 구원이란 당지도 없습니다.
156. 야훼여, 당신의 인자하심 한없이 크시오니
공정하신 당신의 판결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157. 나를 박해하는 자들과 억압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몸은 당신의 언약을 떠나지 않으리이다.
158. 당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 배신들을 보고 내 마음 심히 불쾌하옵니다.
159. 보소서, 야훼여, 나는 당신의 법령들을 좋아합니다.
당신 사랑으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160. 당신의 말씀은 한 마디로 진실, 그것이오며
당신의 공정한 판결은 영원하십니다.
161. 권세자들이 나를 까닭없이 박해하오나
내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말씀입니다.
162. 전리품을 얻고서 좋아하듯이
당신의 말씀 듣는 것을 나는 기뻐합니다.
163. 거짓은 내가 싫어하는 것,
나는 당신 법을 좋아하고 실행합니다.
164. 당신의 옳은 판결, 찬송하오니

- 하루에도 일곱 번씩 찬양합니다.
165. 당신의 법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만사가 순조롭고
무엇 하나 꺼릴 것이 없사옵니다.
166. 야훼여, 당신의 계명을 내가 따랐사오니,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167. 당신의 언약을 온전히 사랑하여
내 영혼이 그것을 지키리이다.
168. 나의 모든 행실을 보고 계시오니
당신 법령, 당신 언약을 지키리이다.
169. 야훼여, 이 울부짖는 소리를 가까이 들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소서.
170. 당신 어전에 나의 기도소리 이르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건져 주소서.
171. 당신 뜻을 당신 친히 가르쳐 주시오니
이 입술로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172. 당신의 법령대로 살기로 결심한 이몸,
손을 뻗으시어 도와 주소서.
173. 야훼여, 당신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며
당신의 법을 기쁨으로 삼으리이다.
174. 이 몸이 살아서 당신을 찬양하리니
바른 판단 내리시어 도와 주소서.
175. 이 몸은 길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양,
어서 오시어 이 종을 찾아주소서.
176. 당신의 계명을 소홀히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사옵니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율법과 예언 그리고 시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 * 주님과 천국의 결합은 말씀을 수단으로 한다. 말씀에 관한 지식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이해를 줄 수 있고, 우리 삶을 바른길로 인도한다.
- * 주님에 대한 믿음은 그분에 대한 지식에 기반 한다.
- * 자아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선은 선행이 아니다.

상용 공부

등 = 신성한 진리

판단 = 진리에 관해서

정의 = 선에 관해서

더럽혀지지 않음(완전함) = 선행으로부터 진리를 말하고 행함

해설

누가복음 24장 44-45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은 시편서가 구약성서에서 율법과 예언서와 더불어 동등한 위치를 가짐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다. 다윗이 시편의 많은 부분을 기록하여 시편서가 가끔 다윗의 책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또한 자신이 쓴 시편들이 주님의 영감에 의해 쓰인 것이라고 말했다(사무엘하 23:1-2).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과 예언서와 같은 수준의 영감 있는 책으로 시편서를 간주하지 않고 “성문서”로 분류해 놓았다. 그 이유는 시편이 성전의 찬송집으로 사용됨에 따라 율법과 예언서와는 달리 보존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시편 119편은 알파벳순서로 쓴 7개의 시편 중 하나이다. 다른 6개의 시편들은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과 145편이다. 이 시편들 중에서 알파벳순의 형태가 가장 뚜렷하고 완전한 것이 119편인데, 이 시편에 대한 공부는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King James Version 성경에서는 각 문단위에 히브리어를 기록해 두었는데, 이것은 히브리 알파벳 22개를 순서대로 적어 놓은 것이다. 사실 히브리어 시편의 경우는 각 문단 이전에 주어진 히브리어 알파벳이 8절로 이뤄진 각 문단의

시작어로 사용되고 있다. 뒤의 참고 문헌을 보면 알파벳 형태로 된 이 문체에 논리적으로도 옳은 기반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알파벳 순서에 의한 히브리어 글자들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추정해 낼 수 있는 것 이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히브리 알파벳에서 즉시 시편의 각 구절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각 구절을 유심히 읽다보면, 매 구절에서 법 혹은 삶의 길 등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단어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본 시편의 각 문단이나 많은 구절들이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다는 것도 인식하게 된다. 그 이유는 본문에 교회의 예배에 자주 사용되며 일반적으로도 널리 인용되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이다. 본 시편에서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적합한 표현들도 쉽게 발견된다. 또한 우리 자신의 약함이나 좌절을 의식하게 하는 구절들과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 의해 인도되어야겠다고 각오하도록 하는 구절들 그리고 진정한 휴식과 평화는 말씀속의 질서에 다가감으로써 있게 된다는 것 등을 발견할 수 있다. 게다가 본 시편에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시험을 만나 말씀에서 도움을 받고자 할 때 그에 대한 보증을 해주기도 한다. 이상의 사항을 염두 하면서 첫 문단을 읽어보기 바란다. 첫 문단은 우리의 복지와 행복에 있어서 말씀의 중요성과 우리의 행복을 성취하고자 할 때 말씀의 필요성 그리고 말씀이 주는 교훈을 배우고 지켜감에 따라 행복이 있게 됨을 알려준다.

단지 자신의 빠른 성공만을 위해 이 세상에서 질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성경에 관한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데서 오는 손실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하고 행복한 것처럼 비쳐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면 그들의 행복이 전적으로 외적인 조건에 매달려 있음을 보게 된다. 그들이 가치 있는 것들 즉 돈이나 지위를 상실하거나 죽을병에 걸려 신음하게 될 때 혹은 지독히 운이 나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그들이 누린 과거의 평화나 안전은 이것들 중의 어느 한 가지 사건만 닥쳐와도 와르르 무너지고 만다. 한 마디로 그들에게 삶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나 지속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평화나 강건한 힘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되고, 우리가 주님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기 때문일 것이다. 주님은 가장 깊은 측면에서 말씀 그 자체이시기도 하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진짜라고 여기는 이 세계의 쾌락 곧 물질적 평면에서 오는 즐거움에 한정된다. 이러한 우리의 삶은 결국 불확실한 사상누각의 상태에 불과하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 하느님의

본성과 그분의 질서 그리고 삶의 목적과 의미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계의 즐거움에 대해 그분께 감사하면서 보다 더 엄정하고 현명하게 물질이 주는 즐거움들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이나 환난을 영적인 것을 배워 성장하는 기회로써 삼게 될 것이다.

본 시편 9절에는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길을 가오리이까? 당신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면 되오리이다.”라고 기술된다. 그리고 98절에서 “계명을 주심으로 당신은 내 것이 되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나를 만드십니다.”라고 기술되고 있다. 젊은이들이 사회로 진출해 나갈 때에 이 구절을 마음에 담아 두고 늘 암송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외에도 우리가 말씀을 필요로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상기시켜 주시고자 우리 안에 담아 놓은 말씀들이 수 없이 많다. 성경을 배워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이들은 경험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당신의 법령들을 깨우쳐 슬기를 얻었으니 모든 거짓된 길을 역겨워 합니다.”

질문 정리

- 1) 시편은 무엇인가?
- 2) 유대인들은 시편책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 3) 누구를 통해 많은 시편이 기록되었는가?
- 4) 다윗은 시편에 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 5) 주님은 시편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6) 가장 긴 시편은 어느 시편인가?
- 7) 이 시편의 구조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 8) 이 시편의 일반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 9) 이 시편이 우리에게 인상 깊은 원인은 무엇인가?
- 10) 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는가?
- 11) 왜 우리는 말씀의 교훈에 순종해야 하는가?
- 12) 일부 시편들이 알파벳 순서로 기록된 까닭은 무엇인가?
- 13) 말씀의 권능은 말씀의 어떤 의미에 기초하고 있는가?

질문의 답

- 1) 노래 2) 찬송가 3) 다윗 4) 하느님이 주신 말씀이다
- 5) 주님에 관해 예언되어 있다 6) 119편 7) 알파벳 8) 말씀
- 9) 매 구절마다에서 10)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 11) 영원한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 12) 주제에 대한 완벽한 요약을 담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함
- 13) 글자 또는 글자적 의미

22

벨사살왕의 잔치

머리말

먼저 대 예언서의 일반적인 면을 살펴본 후 본문의 세부사항을 공부한다.

성서 본문: 다니엘 5장

5장: 1. 벨사살왕이 잔치를 베풀고 만조백관들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일이 있었다. 2. 벨사살은 거나하게 되자 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하여 온 금잔, 은잔을 내 오라고 하였다. 왕은 고관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싶었던 것이다. 3.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에서 약탈하여 온 금잔이 나오자 왕은 그 잔으로 고관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4. 이렇게 술을 마시며 금은동철이나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는데 5.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등잔대 맞은 쪽 왕궁 벽에 붙어 있는 판에 글자를 썼다. 왕은 글 쓰는 손을 보고 6. 새파랗게 놀랐다. 그는 머리가 아뜩해지며 허벅지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떨려 7. 미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장이들을 불러들이라고 고했다. 재사들이 대령하자 왕이 말했다. “저 글을 읽고 뜻을 풀어 주는 사람은 자주색 도포를 입혀 주고 금목걸이를 걸어 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높은 자리에 앉혀 주리라.” 8. 그러나 불러 나온 왕실 재사들 중 아무도 그 글을 읽고 뜻을 풀어내는 사람이 없었다. 9. 벨사살왕의 얼굴빛이 달라지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고관들은 안절부절 못했다. 10. 그 때 왕비가 고관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연회장으로 올라 가 아뢰었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렇게 안색이 달라지도록 당황하실 것은 없습니다. 11. 임금님의 나라에는 거룩하신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머리가 명석하여 지혜롭기가 하느님 같다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선왕 느부갓네살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술객들과 점성가들과 점장이들의 수령으로 임명하신 일까지 있습니다. 12. 임금님께서 벨트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신 다니엘이 그 사람입니다. 그는 신통력이 놀라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꿈이나 수수께끼나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잘 풀어내는 재주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부르시면 이 글을 풀어 드릴 것입니다.”

13. 그래서 다니엘이 불러 나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유다에서 포로로 끌여 온 다니엘이란 사람인가? 14. 그대는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머리가 명석하여 지혜가 대단하다는 말을 들었다. 15. 나는 재사들과 마술사들을 데려다가 저기 저 글을 읽고 뜻을 풀이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 말 뜻을 풀지 못했다. 16. 내가 들으니, 그대는 무엇이나 다 잘 알아 내고 어떤 수수께끼든지 풀 수 있다던데 이제 그대는 저 글을 읽고 뜻을 풀이하여 보아라. 그리하면 그대에게 자주색 도포를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 주며 그대를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높은 자리에 앉혀 주리라.”

17.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임금님께서 주시겠다는 선물을 거두시고, 그 사례는 다른 사람에게나 내리십시오. 그래도 저는 임금님께 저 글을 읽어 드리고 뜻을 풀이하여 드리겠습니다. 18. 임금님,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선 선왕 느부갓네살의 나라를 강대하게 하셔서 영화와 영광을 떨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19. 하느님께서 그렇게 선왕을 위대하게 해 주셨으므로 인종과 말이 다른 천하 만민이 모두 선왕 앞에서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선왕께서는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올려 앉히기도 하고 내려 앉히기도 하셨습니다. 20. 그렇게 마음이 높아져서 거만을 떨며 자기 생각만 내세우시다가 그만 옥좌에서 쫓겨 나 영화를 빼앗기고 21. 세상에서 쫓겨 나 그 생각이 짐승과 같아져서 들나귀하고 어울려 지내며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몸을 적시며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는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선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야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22. 그분의 아들이신 임금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도 겸손해 지시기는 커녕 23. 오히려 하늘의 대주재를 거역하시고 그분의 집에서
 쓰던 잔들을 이 자리에 내어다가 대신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 잔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금은동철이나 보석으로 만든 신상들,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임금님의 목숨을 손안에 쥐고 계시는 하느님, 임금님의 일거일동을
 지켜 보시는 하느님을 공경하지 않으셨습니다. 24.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손가락을 내 보내시어
 저 글자들을 쓰게 하신 것은 그 때문입니다. 25. 저기 쓴 글자들은 ‘므네 므네 드켈’ 그 다음은
 ‘브라신’입니다. 26. 그 뜻은 이렇습니다. ‘므네’는 ‘하느님께서 왕의 나라 햇수를 세어 보시고
 마감하셨다’는 뜻입니다. 27. ‘드켈’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시니 무게가 모자랐다’는 뜻입니다.
 28. ‘브라신’은 ‘왕의 나라를 메대와 페르샤에게 갈라 주신다.’는 뜻입니다.”
 29.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자주색 도포를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 주도록 영을 내리고, 다니엘이
 온 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사람임을 공포하였다.
 30. 바빌론 왕 벨사살은 그 날 밤으로 살해되었고,
 6장: 1. 나라는 메대왕 다리우스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 때 다리우스는 육십 이세였다.

교리 요약

- * 주님께서 모든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 주셨다.
- * 다니엘서도 영감 된 말씀중 하나이다.
- * 자아에 대한 확신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는 정반대된다.
- * 겸손은 선함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상응 공부

성전의 집기들 =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하는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지식들
 포도주 = 영적인 진리
 벽에 써진 글 = 말씀으로 심판함

해설

네 개의 대 예언서들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제키엘서 그리고 다니엘서이다. 우리가 이 네 권의 예언서들 앞에 “대”라는 단어를 덧붙이는 까닭은 네 권의 책들이 뒤에 오는 열 두 권의 예언서들과 비교해 볼 때 그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의 부피에 상관없이 모든 예언자들은 주님께 의해 동등하게 영감 되었다. 다만 주님의 필요에 따라 어떤 예언은 길게 주어지기도 했고, 받아 쓰이거나 보존되는 것조차 명령되지 않은 예언들도 많았다. 나단과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와 같은 이들의 예언들은 성경 이야기의 중간에 삽입되어 기록되었을 뿐 그들의 이름을 가진 독립된 책으로는 성경 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은 예언자들도 많다.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간에 말씀속의 모든 것들은 전 시대 전 인류를 위해 존재하는 이상 예언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을 하나의 예언이라고도 생각한다. 그래서 말씀 중의 예언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선택에 따라 우리를 가르치고 축복하며, 질책하기도 하며 경고하고 단죄한다.

예언의 책들은 글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흥미할 때가 많은데, 어떤 부분의 경우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 우리로 하여금 의아심을 갖도록 한다. 그러나 우리가 깨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신 주님의 도움을 얻으면,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많은 교훈과 도움을 얻어 낼 수 있다. 그래서 스웨덴북은 ‘우리 모두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하고, 규칙적으로 읽으면서 통독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그 이유는 설사 우리의 현실과 한계를 초월한 내용이 담긴 구절일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빛과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와 함께 거하는 천사들은 우리가 읽는 말씀의 영적 의미들을 이해하기 때문이다(천국의 신비 6333항 참조).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개인에 관한 사항은 유다왕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살펴보았다.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유다 왕국 출신이었지만, 그들의 예언은 바빌론에서 이루어 졌다. 에제키엘은 성직자로서 바빌론에 끌려갈 무렵에 이미 성년의 나이였다. 반면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따라 선발되어 뽑혀간 왕가의 젊은이들 중 한명이었다. 이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포로 중에서 먼저 데려가졌는데, 이는 그 지방의 언어나 학식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 본문에서 벽에 쓰인 글은 갈대아어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다니엘이 통역한 단어 ‘Peres」는 「Upharsin」과 문법적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의 단어이고 「U」는 단지 “그리고”를 뜻한다는 것이다

(King James Version과 구번역 성경 참조).

유다왕국의 모든 젊은 왕자들은 전통적으로 성직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의 종교에 아주 능통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종교에 충실한 인물로서 발탁된 자여서 바빌론에 가서도 그 나라의 우상에 끌려가지 않았다. 다니엘서의 모든 이야기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주님에 대한 그의 충실함은 주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며 꿈을 해석하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내리시도록 했다.

앞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큰 형상에 관한 꿈 이야기를 공부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자 다니엘을 바빌론의 통치자로서 그리고 모든 술객들의 수령으로서 임명시켜 주었다. 게다가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의 하느님이 “모든 신의 신”이라고 인정했다. 다니엘이 본문 18-21절에서 언급한 느부갓네살에 관한 이야기는 제 4장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앞서 바빌론이 지배욕을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사실 느부갓네살은 위대했고, 일반적으로 보면 슬기로운 왕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바빌론으로 표현된 사랑에 따라 붙는 자만과 성급함을 가졌다. 이러한 속성은 한 때 그로 하여금 스스로의 위대함을 과시하도록 했으나, 그가 이를 깨닫고 다시 슬기로운 임금이 되어 영광을 떨치며 영화를 누리게 되자 자신을 가르쳐 온 교훈들을 받을 만큼 현명해졌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7절에 있는 그에 대한 마지막 서술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 임금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높이 찬양한다. 하늘 임금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옳고, 가시는 길은 항상 곧아서 잘난 채하는 자들을 꺾으신다.”

위 서술의 마지막 말은 본 반의 적절한 서문일 것이다. 그 이유는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지만 매우 잘난 척했기 때문이다. 느부갓네살은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겸손했다. 반면에 벨사살의 거만은 자신의 허영심을 부추기기 위해 주님의 성전에서만 사용되어야 할 집기들을 잔치의 여흥을 돋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행위가 의미하는 바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견해가 옳고 그것을 높이 세우고자 할 때 자신의 말이 마치 법이라도 되는 듯이 입증해 보려고 혈안이 되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의 사상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말씀에 관한 지식 혹은 영적인 사항(성전의 집기)을 사용하면서까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칭송하도록 하여 스스로 우쭐대고 싶어 한다. 우리의 영혼이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수단으로 우리에게 다가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없게 된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 명확해진다는 것이다.

벨사살은 몸체도 없는 손가락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자 거의 정신이 나갈 지경에

이르렀고, 심지어 그와 그의 신하들은 그 글을 해석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그의 아내 - 이는 그에게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함 - 는 다니엘을 기억했다. 비록 다니엘이 왕에게 진리를 말했고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약속한 바대로 포상을 내리며 다니엘의 말을 인정했다 할지라도, 그 자신을 구해낼 수는 없었다. 다니엘의 예언은 그날 밤에 성취되었다. 벨사살은 살해되고, 메대왕 다리우스가 그의 왕국을 차지하게 되었다.

스웨덴봄의 ‘누구도 두려움이나 강제 상태에서 거듭날 수 없다.’ 라는 주장을 위의 벨사살의 경우가 입증해 준다. 우리 역시 어떤 사건의 자극으로 인해 깜짝 놀라거나 그 사건으로 자신의 잘못된 점을 점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우리의 욕구는 잘못된 과정을 점검함과 병행하여 그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즉, 우리는 가장 평안한 상태에서 자유로이 선택한 것들에 의해서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 세상에 갔을 때 우리의 마음을 이끈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었다면 지옥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벨사살은 신성 모독을 범했다. 뒤의 참고문헌을 읽어보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될 것이다.

질문 정리

- 1) 예언자란 무엇인가?
- 2) 왜 주님은 예언자를 유대와 이스라엘에 보내셨는가?
- 3) 기억나는 예언자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4) 대 예언서와 소 예언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5) 네 명의 대 예언자는 누구인가?
- 6) 이사야는 언제 어디서 살았는가?
- 7) 예레미야는 언제 어디서 살았는가?
- 8) 예레미야는 어디서 죽었는가?
- 9) 애가서는 누가 썼는가?
- 10) 애가서는 어디서 쓰여 졌는가?
- 11)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어디서 예언했는가?
- 12) 에제키엘의 직책은 무엇이었는가?
- 13) 에제키엘은 환상 속에서 가끔 어디로 데려가졌는가?

- 14) 주님은 다니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 15) 주님은 어떤 이유로 다니엘에게 능력들을 주실 수 있으셨는가?
- 16) 다니엘이 바빌론에 잡혀왔을 때 누가 그곳의 왕이였는가?
- 17) 다니엘은 어떤 일로 인해 왕국의 통치자 자리에 올랐는가?
- 18) 다니엘과 더불어 연상되는 성경상의 인물은 누구인가?
- 19)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자는 누구인가?
- 20) 그는 어떤 큰 죄를 범했는가?
- 21) 무엇이 그를 겁나도록 했는가?
- 22) 벽에 써진 글은 무엇인가?
- 23) 다니엘은 이 글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했는가?
- 24) 본문의 다니엘의 예언은 언제 성취되었는가?
- 25) 벨사살의 행위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26) 벽에 써진 글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주님을 대변하는 자 2) 견책, 경고 3) 나단, 엘리야, 엘리사 등등
- 4) 대 예언서는 길고, 소 예언서는 짧다 5)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다니엘
- 6) 유다왕국의 히즈키야 시대 7) 유다왕국 말기,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
- 8) 이집트에서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9) 예레미야 10) 이집트
- 11) 포로중에, 바빌론 12) 성직자 13) 예루살렘 14) 꿈을 해석하는 능력
- 15) 그가 주님께 신실했기 때문 16) 느부갓네살 17) 꿈을 해석했다 18) 요셉 19) 벨사살
- 20) 성전의 집기들을 모독했다 21) 벽에 써진 글 22) 므네, 므네, 드켈, 브라신
- 23) 세었다, 달았다, 나누었다 24) 그날 밤에 25) 영적인 지식을 이기적인데 사용함
- 26) 말씀으로부터 온 심판

23

사자 굴에서의 다니엘

머리말

먼저 유다왕국이 정복당하는 역사적 시점까지를 간략히 언급하도록 한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1-5장까지를 재고해 본다.

성 서 본 문: 다니엘 6장

6장: 1. 나라는 메대왕 다리우스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 때 다리우스는 육십이 세였다. 2. 다리우스는 지방장관들 위에 정승을 세 사람 임명하여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3. 그 지방장관들에게서 국정 보고를 받으며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보살피게 하였다. 다니엘은 이 정승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4. 다니엘에게는 놀라운 신통력이 있어서 어느 정승이나 지방장관보다 뛰어났으므로 왕은 그에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 5.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장관들은 다니엘이 정사에 무슨 실수라도 하지 않는가 눈을 밝히고 보았지만 그에게서는 트집잡을만한 허물은

하나도 찾아 내지 못하였다. 다니엘은 충직한 사람이었으므로 아무런 허물도 실수도 없었던 것이다. 6.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에게는 트집 잡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으니 그의 종교를 걸어 트집을 잡자고 의논하였다. 7. 정승들과 지방장관들은 왕에게 몰려 와 진언하였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8. 임금님의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앞으로 삼십 일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드리는 자가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사자 우리에게 집어넣는다는 금령을 정하시고 9. 그 금령에 서명하시어 수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메대와 페르샤의 법은 수정 못하는 법입니다.” 10. 다리우스왕은 그 금령 문서에 서명하였다.

11. 왕이 그 금령문서에 서명하였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올라가 전처럼 자기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와 찬양을 올렸다. 그는 예루살렘 쪽으로 창이 나 있는 다락방에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드렸다. 12.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13. 왕 앞에 나아가 왕이 내린 금령을 들어 이 일을 일러 바쳤다. “앞으로 삼십 일 동안 임금님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올리면 그가 누구든지 사자 우리에게 집어넣는다는 금령에 임금님께서 친히 서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메대와 페르샤의 법은 수정할 수 없으니 그 법 또한 움직일 수 없소” 하고 왕이 대답하자 14. 그들은 다니엘을 고소하여 말하였다. “유다 포로 출신인 다니엘은 임금을 업신여기고 임금님께서 서명하신 금령을 무시한 채 하루 세 차례씩이나 제멋대로 기도를 올립니다.” 15. 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걱정되었으나 다니엘을 살려 내기로 결심하고 그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다. 16. 그러나 그들은 왕에게 몰려 와 주장을 펴는 것이었다.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령이나 법령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이 메대와 페르샤의 법임을 잊지 마십시오.” 17. 그리하여 왕은 영을 내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우리에게 집어넣게 하고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굶하지 않고 섬겨 온 신이 너를 구하여 주시기 바란다.” 18. 왕과 대신들은 사자 우리의 문을 막은 돌에 봉인을 하여 아무도 다니엘을 건져 내지 못하게 하였다.

19. 왕은 궁으로 돌아 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후궁의 수청도 물리친 채 뜯눈으로 밤을 새웠다. 20. 날이 새자마자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자 우리로 달려갔다. 21. 그는 우리에게 다가 서서 목멘 소리로 다니엘을 불렀다. “살아 계시는 신을 섬기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겨온 신이 과연 너를 사자들에게서 살려 내 주었느냐?” 22.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23. 소인이 섬겨 온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소인을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소인은 하느님 앞에 아무 죄도 없을뿐더러 임금님께도 잘못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여 주신 것입니다.” 24. 왕은 다니엘이 살아 있는 것을 크게 기뻐하며 그를 끌어 올리라고 명하였다.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 올리고 보니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하느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다. 25.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처자와 함께 끌어 다가 사자 우리에 처넣게 하였다. 사자들은 그들이 바닥에 채 떨어지기도 전에 달려들어 뼈까지 씹어 삼켰다.

26. 다리우스왕은 인종과 말이 다른 천한 만민에게 영을 내렸다.

27. “너희에게 행운이 있기를 빌며 27. 내가 이제 영을 내린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사는 자들은 모두

삼가 다니엘의 하느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여야 한다.

그분은 살아 계시는 하느님, 영원하신 하느님이시니,

그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며 그 주권은 다할 날이 없으리라.

28. 사람을 살리고 구하여 주시는 분,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로부터 살려 내셨다.”

29. 이리하여 다니엘은 다리우스가 왕위에 있을 때와 페르샤 왕 고레스가 다스리는 동안

그의 이름을 떨쳤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그분께 순종하는 이들만 보호하실 수 있다.
- * 일부 예언적인 말씀은 유대인의 신앙과 반대되는 거룩한 땅 밖에서 주어지기도 했다.
- * 주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준다.
- * 진실로 의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도 본의 아닌 실수를 행할 수 있지만, 순진함은 그에 대한 안전장치이다.

상응 공부

메대 = 교회의 선과 진리에 반대되는 사람들
사자 = 진리 또는 거짓의 힘

해설

바빌론은 지배욕을 의미한다. 유다왕국을 정복한 나라는 바빌론이었다. 유다는 교인의 마음을 표현한다.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란 이기적인 사랑이 교인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하여 그 사랑이 마음의 소유권을 갈취해버린 모습을 의미한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두고 “그 사람의 야망이 그를 거기로 끌고 가버렸어.”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 중에서 지배욕은 반드시 파괴 되어져야만 한다.

“거만엔 재난이 따른다(잠언16:18).”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친숙한데, 성경의 역사가 이 말의 예증을 보여주고 있다. 그 예증들 중 하나가 바빌론에서 보여 지고 있다. 다니엘서는 바빌론의 실제 역사를 통해서 잠언서의 말씀이 운용되고 있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정복했고 자만심으로 가득 했지만, 슬기로우도 어느 정도 지녔었다. 다니엘서 1-4장을 보면, 다니엘이 주님의 권능의 위대함을 그의 경험으로 배울 수 있는 자질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뒤를 이은 벨사살은 예루살렘의 성전집기들을 꺼내다 술을 마셨고, 주님을 모독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의 생명과 나라마저 잃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제 5장에서 서술되고 있다. 자만심이 극에 달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게 되는데, 이때 “벽에 써진 글”이 그에게 다가와 그의 마지막을 예고해주는 것이다. 다니엘은 주님께서 바빌론의 왕들에게 말을 전할 때 쓰였던 예언자다. 그는 여느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다. 예제키엘 역시 바빌론에 있는 그의 동포들에게 말을 전한 예언자였는데, 실상 그와 다니엘은 같은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예언했던 것이다. 우리가 말씀에 관하여 배웠던 사항은 설사 이기심이 우리 속에 만연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남아 있어 우리의 지성을 향해 말한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왕 밑에서 높은 지위를 얻었다. 그 이유는 그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주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예언하는 능력을 주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이 벽에 써진 글을 해석하기 전까지는 다니엘을 무시했었다. 그러나 벨사살의 왕위를 이은 메대왕 다리우스는 다니엘의 지위를 자신의 바로 밑의 자리로 회복시켜 놓았다. 이러한 역사의

줄거리는 절대적인 권능을 이용하려는 바랍과 종교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 사이를 갈팡질팡하며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을 묘사한다.

다니엘이 다리우스가 만든 법을 복종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다리우스는 자신이 아끼는 가장 현명한 자를 포기해야 하느냐 아니면 자신이 만든 법을 철회하여 자신의 권위를 무너뜨릴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지고 말았다. 이 모습은 이기심이나 자만심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곤경의 한 단면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신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 또는 자신의 길 만이 올바르다고 고집하지만 때로 그 길을 포기해야 함을 염두 해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자는 힘을 상징한다. 좋은 측면에서의 이 힘은 진리의 힘을 뜻하는 반면 나쁜 측면에서는 거짓의 힘을 의미한다. 만약 우리가 주위의 거짓 충고를 따르고자 하거나 자신 안의 자만심이 성서를 여느 인간의 총명한 소설책 정도로 판단하도록 허용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속의 다니엘을 사자 굴로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은 죽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성경을 대하는 기독교의 역사에 대한 요약이기도 하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말씀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통치자로 삼으면서도 말씀을 파괴하고자 백방으로 골몰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악한 의도로 골몰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으나 성경은 하나도 상한 데가 없다. 위와 같은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인본주의자들에 의해 발전된 논쟁들로 인해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다니엘이 밤새 사자 굴에서 지냈듯이 우리의 믿음은 밤이라는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의심이 사라지는 아침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소인이 섬겨온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소인을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소인은 하나님 앞에 아무 죄도 없을 뿐더러 임금님께도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허울 좋은 추론들이 현혹하려드는 시험 속(사자굴)에서도 주님께 신실함을 보이며 우리의 약함을 그분께 고백하고 힘과 인내를 그분으로부터 찾으려는 순진한 모습으로 우리 속이 무장된다면 우리 주위 혹은 세상에 존재하는 거짓추론들이 결코 우리를 혼란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 하나에도 상처를 입힐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교훈은 다니엘이 주위 환경의 조건에도 불문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용기 있게 지킨 것에 대한 결과이다. 다니엘은 바빌론에 막 끌려왔을 때부터 어린 그에게 밀어닥친 위험과 시험 속에도 항상 주님을 선택했다. 진실로 용감한 사람은 주님 앞에 겸손하며 그분이 가르쳐주시는 정의를 굳건히 지키며 살아간다. 우리가 이처럼 살게 되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함정에 빠지지 않으며 주님의 나라가 지상에 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질문 정리

- 1) 다니엘은 누구인가?
- 2) 왜 그는 바빌론에 있게 되었는가?
- 3)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위대해지도록 했는가?
- 4) 어떤 국가가 바빌론을 정복했는가?
- 5) 이 나라 왕은 누구인가?
- 6) 그는 다니엘에게 어떤 직책을 내렸는가?
- 7) 누가 다니엘을 음모했는가?
- 8) 다리우스는 어떤 법령에 서명하도록 설득되었는가?
- 9) 다니엘은 무엇을 계속했는가?
- 10) 왕은 다니엘을 잃기를 원했는가?
- 11) 왜 그는 서명했던 법령을 철회하지 못했는가?
- 12) 다니엘은 얼마 동안 사자굴에 갇혀 있었는가?
- 13) 누가 그를 구원했는가?
- 14) 다니엘을 음모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15) 다리우스는 어떤 새 법을 공포했는가?
- 16) 예언자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사자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예언자가 된 젊은 왕자 2) 바빌론 식의 교육을 시키려고

- 3) 하느님에 신실했던 것 4) 페르시아 5) 다리우스 6) 정승
- 7) 다른 정치 지도자 8) 30일간 기도하지 말라 9) 평상시와 같이 기도함
- 10) 아니다 11) 바꿀 수 없기 때문 12) 밤새도록
- 13) 천사 14) 사자굴에 던져졌다
- 15) 모든 이는 다니엘의 하느님을 예배하라 16) 하느님의 말씀
- 17) 좋은 의미로서는 진리의 권능을 뜻하고, 나쁜 의미로서는 거짓의 권능을 뜻함

24

성전 재건에 관한 예언

머리말

에즈라서 1장, 3장, 4장, 5장 그리고 6장을 읽은 후 본문의 배경을 이해해 둔다.

성 서 본 문: 즈가리아 제 4장

4장: 1. 나와 말을 하던 그 천사가 돌아 와서 나를 흔들어 깨웠다. 잠이 덜 깬 사람처럼 얼떨떨해 하는 나에게, 2. 그가 물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나는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보인다고 대답하였다. 그 등잔대 꼭대기엔 그릇이 하나 있고,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십지 주둥이가 하나씩 뚫린 등잔 일곱 개가 붙어 있었다. 3. 그리고, 올리브나무 두 그루가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하나씩 서 있었다. 4. 나는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나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하고 물었다. 5. 나와 말하던 그 천사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느냐?”하고 되물었다. 내가 모르겠다고 하자,

6. 그 천사가 나에게 일러 주었다. 6. 이것은 야훼께서 즈루빠벨이 할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은 권세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
 내 영을 받아야 될 일이다.”
 만군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시다.
 “산아, 네 아무리 크다 하여도
 즈루빠벨 앞에서는 평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산에서 머릿돌을 떼어 올 때,
 사람들은 ‘멋지다, 멋지다’하며 환성을 올리리라.”

8. 야훼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9. “즈루빠벨이 제 손으로 이 집에 주춧돌을 놓았으니, 그가 손수 그 일을 이루리라. 그제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가 만군의 야훼이심을 너희가 알리라.
 10. 일이 자잘하게 시작되어 사람들이 빈정거렸지만, 즈루빠벨이 골라 놓은 돌을 보고는 그 사람들도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등잔은 천하를 살피는 야훼의 눈이다.” 11. 나는 그 천사에게 “그러면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는 무엇입니까? 12. 또 금대통으로 기름을 대어 주는 올리브나무 가지가 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13. 그 천사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느냐고 하기에 내가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14. 그는 이렇게 일러 주었다. “올리브나무 두 그루는 온 세상의 주를 모시도록 기름 부어 성별한 두 사람을 뜻한다.”

교리 요점

- * 성전의 재건은 주님의 강림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 * 소 예언서의 마지막 세 권은 포로들의 귀환 후 예언되었다.
- * 우리는 주님이 그분의 의도하심을 반드시 수행하실 수 있으심을 믿어야 한다.
- * 신앙에는 사랑이 필수이다.

상응 공부

등잔 = 신성한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의 말씀
 기름 = 사랑

두 그루의 올리브나무 = 주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

해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 예언서들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이 책들은 구약성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열 두 권의 책들인데, 글자 그대로 읽으면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 요나서는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소 예언서들에 비해 많이 알려져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책들을 다른 부분의 하느님의 말씀처럼 중요한 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말씀에서의 모든 기록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전 인류를 위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의 어느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꾸준히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말씀의 어느 부분이든지 경건한 마음으로 읽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는 천사가 그 부분을 영적으로 읽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아서 장차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때 주님께서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에 의미를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특별히 스웨덴북의 도움을 받아 끊임없이 공부해 나가면,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 곧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 받거나 잘못된 것에 빠져있는 자신의 상태를 여실히 보게 된다. 우리는 본문의 경우만 보더라도 천국적인 삶을 이끌어 가는 노력을 신실하고 끈기 있게 해 나가야 한다는 영감을 받을 수 있다.

소 예언서의 마지막 세 권인 하깨와 즈가리야 그리고 말라기서는 회복의 예언이라고도 부른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그 속의 백성들 대부분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후 칠십 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귀환을 간절히 소망했던 이들이 되돌아오게 되었다. 내적인 의미는 없으나 유다인의 귀환 역사를 알려주는 예즈라서를 통해 “야훼께서는 일찍이 예레미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샤 황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레스는 “유다 나라 예루살렘에 당신의 성전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지워주셨다”라고 선포했다. 여호아킨의 손자 즈루빠벨이 귀환하는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의 지휘 하에 사만 이천 명 이상이 귀환했다. 고레스는 과거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할 때 가져다 놓은 성전의 집기들을 꺼내서 귀환하는 유다인들에게 돌려 보냈다. 그리고 그는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성전의 재건을 돕기 위해 금, 은, 세간, 가축 그리고 다른 자원을 예물로 협조하라고 명령했다.

시편 126편의 노래와 같이 귀환하는 포로들은 기뻐하며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세웠다. 그러나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아하스에로스에게 유다인들을 고발하는 글을 썼고, 그의 뒤를 이은 아르다사사에게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이리하여 성전 재건에 대한 중지 명령이 떨어졌던 것이다. 유다인들은 주님께 순종함에는 소극적이었으나 자신들의 안락함을 위해 집을 짓는 일에는 분주했다. 게다가 그들은 과거에 휩쓸렸던 이방민족의 좋지 않은 습관에 다시 빠져들게 되었다. 결국 그들은 예언자 하깨와 즈가리야가 그들에게 경고하고 성전 재건을 마무리 짓도록 재촉하고 나서야 비로소 바빌론에 사절단을 파견해서 과거 고레스왕의 명령을 되새기도록 설득했다. 다리우스 왕 (이 왕은 아르다사사의 후계자임)은 선왕 고레스의 문서를 발견하고, 메대와 페르샤법이 바뀔 수 없다는 법에 따라 성전 재건을 마무리 짓도록 다시 명령했다. 이리하여 성전 재건은 마무리되었고, 과월절 기념 축제가 성전 재건과 더불어 크게 베풀어졌다.

유다인들의 귀환이 유대교가 거룩한 땅에 재 건립되기 위함이었음은 역사적으로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반면에 성경적으로는 주님이 거룩한 땅의 상응성으로 인해 그곳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다는 것과 율법과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도 말씀을 가졌던 그들 사이에서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포로 귀환과 성전 회복의 이유에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항은 유대 나라는 더 이상 지상에서의 주님의 교회를 표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이유로 포로 신세가 된 이후에 있게 된 그들의 역사가 영감 된 말씀의 부분에 들어 있지 않음도 기억하기 바란다.

본문은 즈루빠벨에게 성전 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해 즈가리아에게 주어져 전달된 환상이다. 이 환상의 세부 사항의 의미는 참고문헌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계시록 11장 4절에는 “이 두 증인이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서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이며 두 등불입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스웨덴북은 이를 라틴어역 성경(Latin of Schmidius)에 의거하여 “올리브 가지 (olive branches)” 대신 “올리브 나무의 열매들 (sons of the olive tree)”이란 어휘를 사용하고 있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즈루빠벨처럼 영적인 품성을 갖추려는 노력을 쉽게 포기하고 세상에서의 번영이나 안락에 삶의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성전 또는 주님의 집이란 우리 속에 든 교회 곧 천국적인 인격을 표현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은 두 가지 큰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뤄짐을 상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등잔과 두 그루의 올리브나무에 관한 즈가리아의 환상을 명심하며

늘 상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선함이나 권세 혹은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속의 신성한 진리를 공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영감 받은 진리를 삶에 적용한다면, 주님은 우리속의 성전을 완성하시는 것이다. 6절의 “그것은 권세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 내 영을 받아야 될 일이다. 만군의 아훼께서 하신 말씀이시다.”하는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을 되새기면서 각자 자신 속에 건축되고 있는 집을 점검하기 바란다.

질문 정리

- 1) 바빌론에서 유대인들은 몇 년간 포로로 있었는가?
- 2) 어떤 왕이 유대인들에게 귀환을 허용했는가?
- 3) 그 왕은 귀환하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했는가?
- 4) 귀환인들의 지도자는 누구였는가?
- 5) 포로가 된 모든 유대인은 귀환을 원했는가?
- 6) 바빌론에 남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귀환하는 동료들을 위해 무엇을 하도록 지시되었는가?
- 7) 왜 성전의 건설은 지연되었는가?
- 8) 그들은 성전 건축 대신 무엇을 행했는가?
- 9)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일깨워 주셨는가?
- 10) 본문의 환상은 즈가리아에게 어떻게 왔는가?
- 11) 그는 환상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 12) 즈루빠벨에게 전달하라고 준 메시지는 무엇인가?
- 13) 천사는 등잔이 무엇이라고 즈가리아에게 말했다는가?
- 14) 두 올리브나무는 무엇인가?
- 15) 성전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등잔은 무엇을 그리는가?
- 17) “주님의 눈”은 무엇인가?
- 18) 올리브나무는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70년 2) 페르시아왕 고레스 3) 성전 재건 4) 즈루빠벨 5) 그렇지 않았다
- 6) 자원 예물과 각종 필수품의 공급 7) 자신들의 안락에 더욱 몰두해 있었다
- 8) 자기들의 집을 지었다 9) 예언자를 통해서 10) 천사로부터 11) 등잔과 두 올리브 나무
- 12) “그것은 권세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 내 영을 받아야 될 일이다”
- 13) 주님의 눈 14) 기름 부어 성별한 두 사람(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
- 15) 천국적인 인격 또는 우리속의 교회 16) 말씀, 신성한 진리를 담은 그릇
- 17) 신성한 섭리 18) 주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부터 비롯된 선

25

요나와 아주까리

머리말

요나서의 1장과 2장을 읽지 않고서는 본문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1장과 2장을 반드시 읽어보도록 하자. 요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의문사항들은 흔히 세간의 질문거리가 되며 심지어는 그를 비웃는 이들도 있는데, 이를 명확히 이해해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나서 3, 4장

3장: 1. 야훼의 말씀이 또 다시 요나에게 내렸다. 2. “어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 내가 일러 준 말을 그대로 전하여라.” 3. 요나는 야훼의 말씀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굉장히 큰 도시로서 돌아다니는 데 사흘이나 걸리는 곳이었다. 4. 요나는 니느웨에 들어 가 하루

동안 돌아다니며,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된다.”고 외쳤다. 5. 이 말에 니느웨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고 단식을 선포하였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단식하게 되었다. 6. 이 소문을 듣고 니느웨 임금도 용상에서 일어나 어의를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 단식하였다. 7. 그리고 대신들의 뜻을 모아 니느웨 시민들에게 아래와 같이 선포하였다.

8. “사람이나 짐승, 소떼나 양떼 할 것 없이 무엇이든지 맛을 보아서 안 된다.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8. 사람뿐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굵은 베옷을 입혀라. 그리고 하느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라.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남을 못 살게 굴던 나쁜 행위를 모두 버려라. 9. 하느님께서 노여움을 푸시고 우리를 멸하시려던 뜻을 돌이키실지 아느냐?” 10. 이렇게 사람들이 못된 행실을 버리고 돌아 서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시었다.

4장: 1. 요나는 잔뜩 화가 나서 투명스럽게 2. 야훼에게 “야훼님, 제가 집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르심으로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까. 하느님께서 애처롭고 불쌍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이, 악을 보고 벌하려 하시다가도 금방 뉘우치시는 분인 줄 어찌 몰랐겠습니까? 3. 그러니 야훼님, 당장 이 목숨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4. “아니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화를 내느냐?”하고 야훼께서 타이르셨지만, 5. 요나는 시내를 빠져 동쪽으로 가서 앉았다. 거기에 초막을 치고 그 그늘에 앉아 이 도시가 장차 어찌 되는가 불 심산이었다. 6. 그 때 하느님 야훼께서는 요나의 머리 위로 아주까리가 자라서 그늘을 드리워 더위를 면하게 해 주셨다. 요나는 그 아주까리 덕분에 아주 기분이 좋았다. 7. 이튿날 새벽에 하느님께서 그 아주까리를 벌레가 쏴아 먹어 말라 죽게 하셨다. 더우기 해마저 내리쬐자 요나는 기절할 지경이 되었다. 요나는 죽고만 싶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투덜거렸다. 9. 하느님께서 요나를 타이르셨다. “아주까리가 죽었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다니, 될 말이나?” 요나가 대답했다. “어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10.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 아주까리가 자라는 데 아무 한 일도 없으면서 그것이 하루 사이에 자랐다가 밤 사이에 죽었다고 해서 그토록 아까와하느냐? 11. 이 니느웨에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만 해도 십 이만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이 큰 도시를 아끼지 않겠느냐?”

교리 요점

- * 인간을 위한 주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떠한 사랑보다도 더 위대하다.
- * 자기주장을 확증하려는 데에 말씀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주된 요소는 이기적인 사랑이다.
- * 진정한 선행을 갖는다면 악한 사람이 회개하며 벌을 면하게 될 때 기뻐할 것이다.

상응 공부

니느웨 = 무지한 사람들의 감각적인 오류에서 비롯된 거짓들
 아주까리(박녕쿨) = 요나 속에 든 악
 벌레 = 악에서 비롯된 거짓

해설

요나서는 성서의 다섯 번째에 속해 있는 소 예언서이다. 다섯 번째라는 것은 연대순에 의한 것은 아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요나가 이스라엘에서 주님의 예언자로 활약했음을 알 수 있다. 실상 요나는 엘리사의 사후 곧바로 예언했으므로, 소 예언서의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이른 시대에 속했던 인물로 추정된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의아해 하거나 그 내용 자체를 비웃기도 하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서 요나에 관해서 가르치시는 사항, 즉 요나의 경험이 당시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거절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삼일 동안 무덤에 계실 것임을 예언한 것이라는 내용을 미처 읽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마태복음 12:38-41, 누가복음 11:29-32). 새교회는 스웨덴북의 많은 확증을 근거로 요나의 이야기가 진정한 예언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요나서의 내용이 믿기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과거 마태복음 번역의 일부에서 “고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서 비롯된 불신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원어인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에서 사용된 단어는 단지 큰 물고기만을 의미하며 요나서에서 “아훼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라고 언급된 것을 안다면 이러한 의심은 갖지 않게 될 것이다(요나 2:1).

본문은 요나서의 후반부에 속하는데, 1장과 2장 보다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요나가 주님의

눈앞을 벗어나 도망치려고 했던 까닭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그분의 명령을 수행함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구약과 신약성서를 망라해서 거듭 발견되는 사항은 고대 히브리인들이 자기 민족 외의 사람(이방인)들을 경멸했었다는 것이다. 스웨덴본은 「계시록 설명」 제 401-36항에서 “예언자 요나 역시 위와 같은 히브리 국가 출신이어서 니느웨로 가게 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의 국가가 말씀을 가져서 그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 즉 그들이 일컫는 이방인들을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교회 밖의 사람들이 ‘니느웨’라는 지역으로 의미되었다. 하지만 유대 국가는 다른 이들보다 더 자아사랑과 이 사랑에서 비롯된 거짓 속에 빠져 있어서 자신들 외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리하여 그들은 이방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요나는 유대 국가의 이러한 속성을 표현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나누어주라고 하신 명령에 분노했던 것이다. 어찌됐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된 경험으로 인해 주님께 순종하게 되었지만, 그 순종은 억지로 인한 것이어서 요나의 심정까지는 변화시키지 못했다.”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우선 본문에서 묘사되는 시험이 이스라엘의 국가나 요나라는 개인의 속성에 한정 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속성에 관한 가르침이다. 요나가 예언자로서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단지 4장에 불과한 그의 경험에 관련된 이야기만이 기록된 까닭은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보다 명석하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속성인 자연적인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설명하자면, 자신의 가문이나 지식을 월등하게 여기면서 예술적인 분야에서의 자신의 취향 심지어는 의복이나 음식에 대한 자신의 취향까지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취향과 다른 사람들을 뒤뜰린 시각으로 보며 겉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할지 모르나 마음속으로는 자신과 다른 이들을 경멸하는 습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사실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 편이 적당한 표현일지 모른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를 많이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인간의 태도들에 관한 가르침도 주고 계신다. 스웨덴본의 저서에서 극명히 질책하는 사항 역시 거만함이나 자신이 잘났다고 인식하는 우월감이다.

요나와 아주까리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속에 깊이 틀어 박혀 있는 악들을 우리의 눈앞에 보여 주시고 그 악이 기독교인 곧 주님의 제자요 사도라는 이들이 실제 지녀야 할 원리들에 반대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주님의 방법 중의 하나이다. 니느웨가 장차 어찌될 것인가를 볼 심산으로 니느웨 시내를 빠져나가 앉아 있는 요나의 모습은 자신보다 열등하게 여겨지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갖고

싶지 않아 그들에게서 조금 떨어져 있으면서 단지 호기심만으로 그들을 관찰하는 우리 속의 경향성을 의미한다. 자기 안식처로 요나가 만든 초막이란 자기만족이 우리 속에 들어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 급속히 성장하여 그들을 선사해 요나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해준 아주까리(박넝쿨)란 처음에는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것 같은 거만이라는 악인데, 우월감은 우리 속의 모든 것에 거짓 사상을 인식시키고 만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신 속의 자만함을 만족시킬 선이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믿도록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타인들의 의도 혹은 생각들을 오관하거나 갖은 무례함을 상상하면서 자신의 존엄성을 위협한다고 여기게 된다. 이는 예언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사랑한 요나가 햇별마저 내리 쬐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느낀 모습과 같다. 이런 거짓 사상이란 아주까리를 쏘아 먹은 벌레들이며, 기절시킬 정도로 내리쬐이는 햇별이란 요나 속의 자아사랑이 밖으로 노출되어 스스로가 그것을 느끼는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은 마지막 두절에 극명히 나타나 있어서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요나는 “어찌하여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요나는 자신과 세상적인 영예만을 쫓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나에게 주님은 “너는 이 아주까리가 자라는데 아무 한 일도 없으면서 밤사이에 죽었다고 해서 그토록 아까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즉, 지상적인 모든 것들과 같이 요나 속의 것도 하룻밤 사이에 죽어지는 하찮은 물건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주님은 인간의 영혼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데, 그 영혼의 선악에 관계없이 똑같이 지켜보고 계신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분의 사랑은 세상적인 지위, 교육수준, 재력, 그분의 진리에 관한 지식의 유무 혹은 올바른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노력의 정도에 관계없이 똑같은 것이다. 즉, 그분은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별이란 단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고 가는 우리 속의 잘못된 속성을 다른 방법으로 인식하지 못할 때에 허용하실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가 못된 행실을 한 자라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이라도 그 가던 길에서 발길을 돌려 살게 되는 것이 어찌 내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 (에제키엘 18장 23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하셨다 (마태복음

20:25-28).”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본문의 공부를 마무리 짓도록 하자.

질문 정리

- 1) 요나서는 대 예언서와 소 예언서 중 어디에 속하는가?
- 2) 요나는 언제 어디서 살았는가?
- 3) 왜 그는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려 했는가?
- 4)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5) 니느웨는 어느 나라에 위치했는가?
- 6)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 7) 왜 그의 예언은 적중하지 않았는가?
- 8) 요나는 기뻐했는가?
- 9) 그는 어디로 갔는가?
- 10) 그가 더위를 면할 수 있도록 무엇이 자랐는가?
- 11) 무엇이 아주까리를 파괴시켰는가?
- 12) 그래서 요나는 분노했는가?
- 13)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4) 아주까리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벌레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우리에게 있어서 요나의 태도와 유사한 점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소 예언서 2) 엘리사 후에, 이스라엘 왕국에서 3) 너무 거만해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다 4) 태풍이 바다에 몰아쳤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다... 5) 아시리아 6)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된다” 7)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 8) 아니다 9) “시내를 빠져나가 동쪽으로 가서 앉았다” 10) 아주까리 11) 벌레 12) 예 13)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4) 안하무인적인 자아도취, 우월감 15) 안하무인적인

자아도취가 옳은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거짓된 생각 16) 자신의 방법이나 생각이 다른 이들의 것보다 낫다고 느끼는 경우

26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머리말

니느웨 사람들에게 대한 요나의 태도를 상기해 보면, 주님의 오심을 필요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복음서에 성탄절에 관한 외부 사건이 없음을 주시하고, 본문 첫 다섯 구절들을 암기해 두기 바란다.

성서 본문: 요한 복음 1장

1장: 1.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2. 말씀은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3.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4.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5. 그 빛이 어둠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 본 적이 없다. 6.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7.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8.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9. 말씀이 곧 참 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10.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11.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 주지 않았다. 12.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13. 그들은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다.

14.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15.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치기를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다”라고 하였다.

16.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17. 모세에게서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은총과 진리를 받았다. 18.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 하느님을 알려 주셨다.

19.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성직자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이 때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20.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분명히 말해 주었다. 21.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하고 다시 묻자 요한은 또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요?” 그들이 다시 물었을 때 요한은 그도 아니라고 하였다. 22.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말이 있어야 하겠으니 당신이 누군지 좀 알려 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소?” 이렇게 다그쳐 묻자 23. 요한은 그제야 “나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하고 대답하였다.

24. 그들은 바리사이파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 25. 그들은 또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는 거요?”하고 물었다. 26.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베풀 따름이요. 그런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분이 당신들 가운데서 계십니다. 27. 이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이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만한 자격조차 없는 몸이오.” 28.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다니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29.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한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30.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사실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었다. 31. 나도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는 것이었다.” 32.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 와 이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 33. 나는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성령이 내려 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 33. 나는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성령이 내려 와서 어떤 사람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실 분인 줄 알라’고 말씀해 주셨다. 34. 과연 나는 그 광경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는 것이다.”

35.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36. 마침 예수께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하고 말하였다. 37. 그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 갔다. 38. 예수께서는 뒤돌아서서 그들이 따라 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라빠, 묵고 계시는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하고 말하였다. (라빠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39. 예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시자 그들은 따라 가서 예수께서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은 거기에서 예수와 함께 지냈다. 때는 네 시쯤이었다. 40.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 간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41.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 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소”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42. 그리고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가자 예수께서 시몬을 눈여겨 보시며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앞으로는 너를 게파라 부르겠다”하고 말씀하셨다. (게파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뜻이다.)

43. 그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래아로 떠나 가시려던 참에 필립보를 만나 “나를 따라 오너라”하고 부르셨다. 44. 필립보는 베싸이다 출신으로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다. 45. 그가 나타나엘을 찾아 가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분을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나자렛 사람이오”하고 말하였다. 46. 그러나 그는 “나자렛에서 무슨 신성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하고 물었다. 그래서 필립보는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권하였다.

47. 예수께서는 나타나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하고 말씀하셨다. 48. 나타나엘이 예수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하고 물었다. “필립보가 너를 찾아 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너를 믿느냐? 앞으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하시고 51.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너희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과 하느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교리 요약

- * 주님은 신성한 진리로 세상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느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이다.
- * 지상에서의 주님의 생애는 구약성서의 성취였다.
- *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진리를 우리의 생각과 행동 지침의 지도자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하느님의 진리에 순종하고자 원할 때에만 그 진리를 받을 수 있다.
- * 우리가 주님의 진리에 순종할 때만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다.

상응 공부

요한 = 선행의 선 또는 일

빛 = 진리

세례 = 진리로 순수해짐

비둘기 = 믿음의 거룩 또는 믿음의 선과 진리

무화과 = 자연적인 선함

해설

요한의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다. 이는 요한이 사도리는 측면에서 선행으로부터의

선 또는 일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네 번째 제자였다. 그 이전의 세 사람들인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는 믿음과 순종 그리고 선행을 표현하는데, 이는 거듭나는 질서이기도 하다.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는 먼저 진리를 배워 믿음을 갖는다. 그런 다음 진리에 순종하고, 그 진리를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를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선행으로부터 삶을 일구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 상태는 지혜를 마음에 담은 이타적인 사랑의 상태이다. 주님은 이러한 단계에 이른 사람들에게 계발과 더불어 그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가실 수 있다. 그래서 요한의 복음은 외면상의 것들보다는 내면상의 것들, 즉 영적인 실재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요한의 세 서간문들 역시 속뜻은 없지만 여타 서간집들과는 다른 모습인 바, 그는 그 안에서 사랑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 받은 제자”라고도 불리는 것이다.

본문은 세 분과로 나뉘어져 있다. 첫 분과는 육신을 입으신데 대한 영적인 이야기인데, 이는 주님의 탄생에 관한 외면상의 이야기가 아닌 그분에 관한 것과 그분이 세상에 오신 까닭에 관한 근본적인 서술이다. 그리고 말씀이 그분의 육신이 되셨다는 것과 그 말씀이 태초부터 하느님과 함께 있어서 곧 하느님이셨음을 서술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것을 우리의 말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는 매일 수많은 대화를 하면서 살아간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하는 말속에 존재하게 된다. 우리가 한 말들은 우리의 생각들이다.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떠 오른 이유는 생각들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바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 ← 생각 ← 바램의 역순으로 이뤄진다. 그래서 스웨덴북은 “사람이란 곧 그의 애착과 사고이다”라고 말한다.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육신은 단지 인간 세상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형체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주인은 생각과 애착이고 육신은 종의 신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친구와 교통하고 싶을 때 그에게 글을 보내든지 말을 해야 한다. 영감 된 성경은 신성한 진리가 글로 쓰인 것으로서 써진 말씀이다. 그리고 육을 입으신 주님은 신체적인 인간 형체 안에 똑같은 신성한 진리가 형상화되어 있는 것인 바,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즉,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간들의 눈앞에서 직접 그분의 진리를 살아내 보여주시기 위함이란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이다. 당대의 사람들은 영적인 어둠속에 살고 있었다. 그 이유는 구약성서를 통해서만 신성한 진리를 배울 수 있었으나 바리사이파인이나 서기관들이 제멋대로 해석과 부가규정을 성경에 덧붙여 놓아 사람들이 더 이상 어느 것이 성경인가를 구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처럼 처참하게 된 성경의 위치를 회복시키시고, 그 순수성이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 신성한 진리로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다. 반면에 그분을 기쁘게 영접한 극소수의 사람들, 즉 진리대로 살고자하며 진리를 똑바로 알고자 갈망한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길을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아 그분을 거절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 18-21절을 참고하도록 하자.

두 번째 분과는 세례자 요한의 증거에 관한 것인데, 이곳에서도 주님이 세례 받으시는 광경 곧 실질적인 사건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주어진 정조인 비둘기가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에 속한다. 스웨덴복음은 “주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눈에 보이는 그분의 인성이 그 인성 속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구별되도록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다.”라고 설명한다. 넓은 의미에서 아버지는 신성한 사랑을, 아들은 신성한 진리를 그리고 성령은 신성한 진행이나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행동은 이와 유사하다.

본문의 세 번째 분과는 제자 중 몇을 부르시는 대목이다. 우리가 이에 대해 상기할 수 있는 사항은 마태복음 4장에서의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부르시는 광경일 것이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항은 안드레아가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과 그가 주님에 관해서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그들이 부름받기 전에 말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재구성이라는 단계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거룩한 땅에 발을 딛기 전에 광야여행을 해야 했듯이 거듭남에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복음서에서 재구성이라는 필수적인 단계를 세례자 요한의 설교가 의미하고 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다. 우리는 이로 인해 순종을 표현하는 안드레아가 요한의 제자였고 열 두 명의 사도들 중 안드레아가 주님을 제일 먼저 인식한 자였던 까닭을 이해할 수 있다.

나타나엘은 필립보가 주님에게 데려온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열 두 명의 사도들 목록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가 열 두 명의 목록에서 항상 필립보의 뒤에 언급되는 바르톨로메오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바르톨로메오란 “달매의 아들”이란 뜻이다. 바르톨로메오(Bartholomew)의 글자중 “Bar”는 아들이란 뜻이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시몬 바르요나라고 불린다. 본문에서는 그가 요나(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필립보 뒤에 언급되는 제자가 달매의 아들 나타나엘일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우리는 창세기 28장 12절에 있는 사다리에 관한 야곱의 꿈, 즉 사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느님의 천사들과 사다리가 지상에서 하늘까지

연결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 사다리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과 결합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의 말씀을 상징한다. 지금 주님은 그분 자신에 관한 똑같은 사항을 열거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구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주님이심을 함축하여 가르쳐주고 있다.

질문 정리

- 1) 요나는 누구인가?
- 2) 왜 그는 주님으로부터 달아났는가?
- 3)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4) 그는 니느웨에 어떤 예언을 했는가?
- 5) 왜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는가?
- 6) 요나는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가?
- 7) 그의 심정과 지성을 그려주는 어떤 사건이 그에게 있었는가?
- 8) 주님은 그 사건으로 요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
- 9)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은 말씀에 무엇을 해 놓았는가?
- 10)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억하고 있는가?
- 11) 영감 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를 때의 의미는 무엇인가?
- 12) 우리가 예배를 가질 때 성경을 제단위에 놓고 말씀을 열고 닫는 까닭은 무엇인가?
- 13)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가?
- 14) 본문에서 누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가?
- 15) 어떤 징조가 요한에게 주어졌는가?
- 16) 본문에서 어떤 사도들이 등장되는가?
- 17) 나타나엘은 다른 곳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려졌는가?
- 18) 주님이 세상의 빛이다 함은 무슨 의미인가?
- 19)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뜻인가?
- 20) 왜 만인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가?

질문의 답

- 1) 이스라엘의 예언자 2) 너무 거만하여 니느웨를 경고하지 않고 싶어서 3) 큰 물고기가 삼켰다 4)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된다” 5)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 6) 성이 났다 7) 박 넝쿨의 이야기 8)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9) 자기들 사상으로 말씀을 덮어놓았다 10) 성서 참조 11) 신성한 진리가 글로 표현된 형체 12) 주님의 현존에 대한 상징물 13)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되심 14) 세례자 요한 15) 비둘기 16) 안드레아, 베드로, 필립보, 나타나엘 17) 바르톨로메오 18) 그분은 인간의 지성을 계발해 주신다 19)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주님의 신성한 인성 20) 어떤 이들은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임

27

가나에서의 기적

머리말

우리는 성경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생애를 공부해야 하는데, 요한 복음서를 공부하기에 앞서 타 복음서에 있는 그분의 생애 주요 사건들을 재정리 해두어야 한다. 즉, 주님의 탄생, 이집트로의 피난, 나사렛으로의 귀환, 십 이세가 되던 해 성전으로 오신 주님, 세례 그리고 40일간의 광야에서의 시험에 관한 것이다. 또한 기적에 관한 것과 주님께서 기적을 수행하셨던 까닭을 살펴본 후 본문을 공부하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요한의 복음 2장 1-11절

2장: 1. 이런 일이 있는 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래아 지방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 자리에는 예수와 어머니도 계셨고 2. 예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고 와 계셨다. 3.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다. 4.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5.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렀다.

6.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예식에 쓰이는 두세 동이들이 들 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었다. 7.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마다 모두 물을 가득히 부어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여섯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8. 예수께서 “이제는 퍼서 잔치 말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하셨다. 하인들이 잔치 말은 이에게 갖다 주었더니 9.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물을 떠간 그 하인들은 그 술을 어디에서 냈는지 알고 있었지만 잔치 말은 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술맛을 보고 나서 신랑을 불러 10.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이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으니 웬 일이오!” 하고 감탄하였다. 11. 이렇게 예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갈릴래아 지방 가나에서 행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육의 어머니인 마리아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차차 신성화하신 후에 그것들을 점차적으로 벗으셨다.
- * 복음서에서 갈릴래이란 삶의 외부측면을 표현한다.
- * 우리는 영적인 인간이 되고자 하면 신성한 진리에 관한 우리의 자연적인 지식을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이 임하시도록 하여 그것들이 영적인 지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진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쁘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
- * 결혼이란 선과 진리가 하나 됨을 표현한다.

상응 공부

갈릴래아 = 바깥쪽인 행동평면
사마리아 = 생각평면
유다 = 의지평면
물항아리 = 이해성 속

해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의 삶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주님의 삼 십 세 이전의 생활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요한복음은 강림에 대한 외적인 이야기보다는 그 내면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심지어 요한은 주님의 세레나 세레 직후 있게 된 광야에서의 40일에 관해서도 생략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3장과 4장 1-11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광야에서 있었던 주님의 세 가지 시험이란 시험이라는 전체적인 면모 곧 삶의 세 가지 평면인 의지와 생각 그리고 행동에서 있게 되는 시험들을 통틀어 상징적으로 요약한 것이며, 주님께서 지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부딪치고 극복하신 모든 시험들에 관한 요약이기도 하다. 구약성경은 아주 깊은 뜻(천적인 의미)에서 보면 주님께서 겪으신 시험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주님은 이런 시험들을 통해 마리아를 통해 입으신 유한한 인성을 벗으셨고, 그분의 내면에서 있게 되는 신성으로 그것을 대체해 가셨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성화하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 중 주님이 나사렛을 떠나 세례를 받으신 후 가파르나움에 주거지를 정하신 때인 본문에 해당되는 그분의 영화하심의 과정은 그분이 마리아에게 “여인이여,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라고 응답하신 말씀에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마리아를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녀 역시도 그분의 질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웨덴복음은 그리스어로 된 이 구절의 번역을 글자대로 직역해서 전하고 있다. 즉, “여인이여 저나 그대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주님이 입으신 유한한 인성과 그분이 능력을 행사하시는 신성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여태껏 살았던 인간들 중 최고의 인간이라는 정도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느님으로서 인식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위의 둘째 문단에서 미리 언급한 주님이 받으신 시험에서 그분이 악마에게 응답하실 때 말씀에서 발췌한 인용문으로 답하셨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요한은 주님의 공생애를 가나에서의 기적에서부터 다루기 시작한다. 주님이 베푸신 첫 기적인 가나에서의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스웨덴북은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는 주님을 믿고자 했던 사람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기적들이 말씀에 기록되고 그것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해 주실 수 있는 것과 그분의 섭리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앞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바리사이파인들이 말씀 위에 덮어씌운 각종 규제들을 배제하셨기 때문에 바리사이파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극도로 그분의 행사를 반대했음을 살펴보았다. 주님의 제자들은 단순한 자들이었고, 그들의 삶은 이미 바리사이파인들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제자들은 주님을 믿고자 했지만, 그들 스스로 바리사이파인들이나 서기관들과 믿음에 관해 논쟁하며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지는 못했었다. 주님의 기적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확증을 주어 그들의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는 주님을 믿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적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로 그분을 선택하고 각자의 이성적 판단에 의거하여 스스로의 믿음에 대한 확증을 갖도록 원하시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경이로운 의미를 지니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갈릴래아의 가나였다. 갈릴래이란 우리의 바깥 삶인 일상생활의 측면을 표현한다. 단어 가나란 “갈대가 많음”이란 뜻이다. 풀이나 갈대는 진리에 관한 아주 초보적인 지식들을 상징한다. 그리고 본문의 특정한 때는 혼인 잔치이다. 결혼이란 선과 진리의 하나 됨을 표현한다. 주님과 제자 그리고 마리아는 이 잔치에 손님으로 초대받았다. 그곳은 비록 포도주는 부족했지만 풍부한 물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응들을 토대로 가나의 결혼 잔치란 어떤 사람들을 상징하게 된다. 이 사람들이란 선한 삶을 꾸리고자 하는 이들로써 자신들이 소유한 것보다 더 많은 진리를 선한 삶을 위해 원하며, 말씀 속에 진리가 있음을 알고 그분을 찾기 위해 교회에 참석하는 자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무의식중에 느끼는 영적인 목마름을 충족시킬 만큼의 진리에 대한 이해성과 지식을 충분히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여섯 개의 돌로 된 물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 이 항아리들은 우리 속에 든 일반 교리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교리들이란 우리의 영적인 발달의 매 단계에서 진리를 받는 그릇인

것이다. 진리를 받는 과정의 첫 필수요건은 하인이(우리의 능력이나 소질) 물을 가지고 항아리를 가득히 채우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말씀에서 진리를 배울 기회를 열심히 만들며 스웨덴볼의 저서를 기반으로 보다 깊게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을 다시 퍼내야 한다. 그 이유는 기억 속에 있는 진리가 바로 항아리 속에 든 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물을 자신의 일상생활 혹은 이웃을 돕는 곳에 사용할 때 이 물은 주님의 섭리로 포도주 곧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하게 된다. 포도주란 영적인 진리를 표현한다. 이 진리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며,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게 된다.

우리는 가나에서의 기적을 명심해야 한다. 즉,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서 진리를 조금 얻었다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하여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좀 더 노력하고 연구하여 말씀에 관한 것과 말씀으로부터의 우리의 지식을 배가시켜 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얻은 지식을 일상생활의 문제에 적용하며 응용하면서 우리 안에서 이 지식들을 진리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 다음 우리는 만들어진 진리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 기적은 실패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말씀으로부터의 지식들은 우리의 이해성 속에서 더욱 성장하고 충만해지며 퍼낼수록 점차 나온 포도주로 변하게 된다.

질문 정리

- 1)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억하는가?
- 2) 왜 우리는 영감 된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가?
- 3) 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이 되셨다”라고 부르는가?
- 4)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 5) 왜 주님은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
- 6)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 누가 태어났는가?
- 7) 어떤 징조가 세례자 요한에게 주어졌는가?
- 8) 어떤 제자가 주님을 처음 뵈었는가?
- 9) 이 밖의 어떤 제자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언급되는가?
- 10) 주님은 어디서 탄생하셨는가?
- 11) 베들레헴은 거룩한 땅의 어느 지역에 속하는가?

- 12) 주님은 어디서 성장하셨는가?
- 13) 나자렛은 그 땅의 어느 지역에 속하는가?
- 14)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지역의 이름은 무엇인가?
- 15) 주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어디서 사셨는가?
- 16) 기적이란 무엇인가?
- 17)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이 있었던 곳은 어디인가?
- 18) 왜 주님은 가나로 가셨는가?
- 19) 잔치에서 무엇이 부족했는가?
- 20) 누가 주님께 도움을 청했는가?

질문의 답

- 1) 성서참조 2)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 3) 그분이 살아있는 진리이시기 때문
- 4) 그분의 진리가 살아 있고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있게 해준다는 뜻 5)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6) 세례자 요한 7) 비둘기 8) 안드레아 9) 베드로, 필립보, 나타나엘(바르톨로메오)
- 10) 베들레헴 11) 유다 12) 나자렛 13) 갈릴래아 14) 사마리아 15) 가버나움
- 16) 주님께 의해 행해진 경이로운 것들 17) 가나 18) 혼인잔치 19) 포도주 20) 마리아

28

주님과 니고데모

머리말

제 1장에서의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근간으로 본문을 살펴본다. 니고데모는 위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예외에 속했으나 주님을 믿는데 공개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못했다. 본문에는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3장 1-21절

3장: 1. 바리사이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2.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 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3. 그러자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4. 니고데모는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5.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 6.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7. 새로 나아 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8.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로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9. 니고데모는 다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10.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11. 정말 잘 들어 두어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 12. 너희는 내가 이 세상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두고 히는 말을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 온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 간 일이 없다. 14.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15.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16.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17.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18.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9.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20. 과연 악한 일을 일삼는 자는 누구나 자기 죄상이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고 멀리한다. 21.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데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느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환경을 아시며, 우리의 약함을 위해 그 환경을 허락하시기도 한다.
- * 말씀의 가르침은 우리를 돕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단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 * 우리는 자신 안의 참된 감정을 덮어두려는 심정속의 악을 점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상용 공부

뱀 = 삶의 감각적인 부분

구리 = 외면상의 선

물로 태어남 = 바깥쪽 행동의 재구성

성령으로 태어남 = 거듭남,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바꿈

밤 = 무지한 상태

해설

스웨덴북의 저서 「하느님의 섭리」 제 83항에서는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모든 인간은 조상으로부터의 유전으로 인해 갖가지 종류의 악을 갖고 태어난다. 또한 이런 악들을 제거함으로써 영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지니고 태어난다. 자연적인 존재 수준에서 영적인 존재 수준으로 되는 것이 다시 태어남 또는 거듭남이다.”라고 설명된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교리」 제 174항에서는 “인간은 부모로부터 영적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연적인 생명만을 부여받을 뿐이다. 영적인 삶은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과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는 데에 있으며,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시는 믿음에 의거하여 있게 된다.

그러나 자연적인 삶은 하나님보다 더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데에 있다.”라고 설명된다.

니고데모는 선한 사람이었다. 그의 논평과 질문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쯤 선한 사람들조차도 진리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자연적인 출생외의 다른 출생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한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우리 주변에서도 물질주의로 인해 옛 시대와 같이 불구자가 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본문의 8절은 “내가 볼 수도 없는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라는 질문에 적절한 답을 제시해 준다.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는 없지만, 그것으로 인한 결과로 바람의 존재를 확실히 알게 된다. 우리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추론을 사용하게 되면 영적인 힘의 결과를 보고 느낄 수 있게 된다.

본문에서의 주님의 말씀과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의 세례자 요한의 외침을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그의 외침은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물세례란 바깥 삶을 깨끗이 함을, 성령세례란 우리의 생각을 순수하게 함을 그리고 불세례란 주님과 이웃 사랑으로 자아 사랑을 대체시킴을 의미한다.

주님은 신성한 진리로서 세상에 오셨다. 내적 의미에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은 신성한 사랑과 지혜 그리고 세상에 진행되는 신성한 작용인데, 이와 유사한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지와 생각과 행동이라는 측면이다. 신성한 진리는 곧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이 진리를 인식하여 순종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걷게 된다. 반면에 우리가 이 진리를 거절하면 어둠 속에서 걷게 된다.

주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알게 하시려고 진리로서 세상에 오셨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님을 거절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주님을 거절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합리적인 근거란 있을 수 없고 오로지 이기적인 이유만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주님이 인간이 진리를 사용하고자 하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태초 때부터 언제나 빛을 주어 오셨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의 “너희들은 경청은 커녕, 들으려고 귀를 열어두지도 않았다...”라는 기록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 온 사건에도 우리를 위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 밤이란 니고데모의 무지를 상징함은 이해할 것이라고 본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받게 될 비난을

두려워했다.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신의 믿음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야말로 자신을 평가해 볼 시기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올바른 생각을 가졌으나 그 생각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는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면서도 그러지 않는 척 애쓰기도 한다. 우리가 위의 어느 경우에 속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교정이 필요하다.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친절히 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정직하게 드러내도록 인도하신다. 주님은 남들 몰래 밤에 찾아오는 니고데모의 비겁함을 그 자리에서 질책하시지 않으셨다. 하지만 주님은 그의 결점을 명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21절에서 볼 수 있다. 이제 요한복음 7장 45-53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이 구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 그분을 지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장 39절을 보면, 본문의 사건이 니고데모로 하여금 주님의 신실한 추종자로 남도록 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질문 정리

- 1) 바리사이파인과 서기관이란 어떤 사람인가?
- 2) 그들은 성경에 무슨 짓을 했는가?
- 3)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 4) 왜 그들은 주님을 반대했는가?
- 5)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사이파인의 이름은 무엇인가?
- 6) 그는 어떤 직책을 가졌는가?
- 7) 왜 그는 밤에 주님을 찾아 갔는가?
- 8) 왜 그는 주님을 믿게 되었는가?
- 9) 주님은 그가 어떤 질문을 원한다고 보셨는가?
- 10)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 11) 주님은 “다시 태어남”에서 무엇을 의미하셨는가?
- 12) 주님은 광야에서의 구리뱀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주님은 당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 14) 이미 죄인으로 판결된 이유는 무엇인가?

- 15) 우리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그리고 행동을 두둔하려 들 때 잠깐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16) “물로 태어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7) “성령으로 태어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8) 세례자 요한의 일과 주님의 일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질문의 답

- 1) 바리사이파인 - 아주 엄격한 종교계층, 서기관 - 성경을 베끼는 사람
- 2) 자기들 사상을 첨가시켰다 3) 위선자 4)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셨기 때문
- 5) 니고데모 6) 의회 의원 7) 동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8) 기적들
- 9) 하늘로 가는 길 10) 다시 태어나야 한다 11) 회개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라
- 12)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13)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14) 믿지 않는 것
- 15) 십중팔구 자신의 고집대로 원할 것이기 때문 16) 바깥쪽 삶을 깨끗이 함
- 17) 안쪽 삶을 순수하게 함
- 18) 세례자 요한 - 바깥 삶을 깨끗이 함
 주님 - 자아사랑을 주님과 이웃 사랑으로 대체시키고 생각을 순수하게 함

29

야곱의 우물가에서의 주님

머리말

본문은 몇몇 성경의 이야기들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는데, 야곱과 요셉의 죽음 그리고 아시리아에 의한 이스라엘 왕국의 정복 등이 그 예다. 이에 대해서는 창세기 33장 18-20절과 48장 21-22절과

50장 24-26절, 출애굽기 13장 19절, 여호수아 24장 32절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24-41절을 참고하도록 하자.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4장 1-42절

4장: 1.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얻으시고 세례를 베푸신다는 소문이 바리사이와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다. 2. (사실은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었다.) 3.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래아로 가기로 하셨는데, 4. 그 곳으로 가자면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하였다. 5.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시카르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옛날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인데 6.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먼 길에 지치신 예수께서는 그 우물가에 가 앉으셨다. 때는 이미 정오에 가까와 있었다. 7. 마침 그 때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으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다. 8.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시내에 들어가고 없었다. 9.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께 “당신은 유대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10.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솟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하고 대답하시자 11. 그 여자는 “선생님,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다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으시면서 어디서 그 샘솟는 물을 떠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12. 이 우물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마셨고 그 자손들과 가축까지도 마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하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13. 예수께서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하셨다. 15.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자는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으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하고 청하였다. 16.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 오라고 하셨다. 17. 그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는 말은 숨김없는 말이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19. 그랬더니 그 여자는 “과연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20. 그런데 우리 조상은 저 산에서 하느님께

예배드렸는데 선생님네들은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21.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23.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24.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25. 그 여자가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 주시겠지요.” 하자 26. 예수께서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27. 그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돌아 와 예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무엇을 청하셨는지 또 그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물어 보는 사람은 없었다. 28.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돌아 가 사람들에게 29. “나의 지난 일을 다 알아 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봅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알렸다. 30.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모여 들었다.

31.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무엇을 좀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32. 예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33.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누가 선생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 하고 수군거렸다. 34. 그러자 예수께서는 “나를 보내신 본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35. 너희는 ‘아직도 녀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 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 말을 잘 들어라.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이미 다 익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36. 거두는 사람은 이미 샅을 받고 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알곡을 모아 들인다. 그래서 심는 사람도 거두는 사람도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37. 과연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는 속담이 맞다. 38. 남들이 수고하여 지은 곡식을 거두라고 나는 너희를 보냈다.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하였지만 그 수고의 열매는 너희가 거두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39.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가 자기의 지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 맞히셨다고 한 증언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40. 예수께서는 그들을 찾아 와 자기들과 함께 묵으시기를 간청하므로 거기에서 이틀 동안 묵으셨는데 41.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42. 그리고 그 여자에게 “우리는 당신의 말만 듣고 믿었지만 이제는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하고 말하였다.

교리 요점

- * 우리가 주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
- *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의 생명수가 솟는 우물이다.
- * 선행(charity)은 믿음 또는 진리와 함께 하여야만 그 실재가 가능하다.
- * 선행이 바탕 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 * 선행과 믿음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여서 분리되어서는 그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상응 공부

“이” 물 = 자연적인 진리

“샘솟는” 물 = 주님이 진리 안에 현존하심을 인식할 때의 진리

해설

본문은 제 2장의 가나에서의 기적보다도 깊은 교훈이 담겨져 있다. 가나에서의 기적과 야곱의 우물에 앉아 계신 주님의 이야기 사이에 있는 사건은 그분이 과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거듭담 또는 재탄생의 필요성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신 것이다. 주님의 시대 때의 거룩한 지역은 세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 중 유다는 우리의 의지나 동기를, 사마리아는 생각을 그리고 갈릴래이는 바깥 행동이나 행동 지침을 표현한다. 주님께서 갈릴리의 가나에서 있었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는 우리가 진리를 일상생활에 사용할 때만이 올바른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유다에서의 니고데모에 대한 훈육을 통해서 우리의 동기를 이기적인 곳이 아닌 천국적인 곳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다. 이제 주님은 갈릴래이로 되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치셔야만 했다. 이는 주님의 교훈이 우리 생각의 평면에도 있어야 함을 함축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해성은 우리 인생 초기에는 “땅을 갈지 않은” 상태에 있게 된다. 우리는 인생 초기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말씀을 기반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을 우리의 이해성 안에 담게 되는데, 이 지식이 바로 5절의 “야곱이 요셉에게 물려준 조그만 토지”에 해당된다. 우리는 이해성 속에 “야곱의 우물”도 가지고 있다. 이 우물이란 글자로서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 우물이 있는 이 땅은 사마리아인들이 소유하고 있다. 비록 사마리아인들이 유대교의 교훈을 많이 알고 인정할지라도, 그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이방인들이었다. 사마리아인들은 오래 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후 그곳으로 이주해온 외국인들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이다. 열왕기하 17장의 이야기는 사마리아인들의 종교적인 배경을 설명해 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경멸하며 그들과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복음서 전반에서 마음씨 고운 이들로 지칭되며, 주님의 가르침을 받음에 있어서 유대인들보다 더 개방적이었다고 기술된다. 스웨덴북은 ‘새로운 종교적인 처방은 앞에 처방된 종교속의 선한 나머지 속에서 시작되지만, 실질적인 성장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있게 된다.’라고 말한다. 이는 첫 기독교회에서 진실로 판명된 바, 새교회의 성장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기독교 국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이방인적인 상태가 존재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에 있어서는 아주 혼동된 상태에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런 상태는 18절의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구절로 의미된다. 앞서 성경에서 여인은 애착을, 남자는 생각을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올바른 (제) 남편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처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의지할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여 여러 교회를 배회하게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러한 혼동된 신앙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새교회인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곡식이 이미 다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된 밭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다. 이 두 부류는 대칭을 이루고 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으러 갔는데, 이는 선의지 또는 선행이 반드시 진리를 구해야 함을 표현한다. 주님을 진리로서 이미 받은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시내에 들어가고 없었다.” 이는 제자들이 선함을 구하면서도 주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선함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함을 표현한다. 또한 이것은 믿음이 반드시 선행과 하나를 이뤄야 한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이들이

선함의 근원을 마치 자기인 것처럼 여기며 선함과 그것을 실체화하는 방법을 세상에서 찾는 경우가 흔하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사가지고 온 음식을 받지 않으시는 31-33절의 내용이 이를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셨다. 즉, 진정한 선행이란 눈에 보이는 선행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모든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에 있게 되는 그분에 대한 순종 안에 존재한다.

본문에서 가장 경이로운 구절은 아마도 13절과 14절에서의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일 것이다.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말씀으로부터 물(진리)을 길어 올리면 고작 사소한 진리만 얻게 될 것이다. 말씀의 우물은 깊고, 우리의 물동이는 그 용량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느님이시고 모든 진리와 선함의 근원이 그분이심을 알고 믿게 되어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뵈게 되어 우리 안에서 말씀속의 진리는 샘솟는 물이 된다. 그리하여 말씀은 우리의 이해성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주목해 두어야 할 구절이 있다. 우리는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여태껏 존재한 인간들 중에서 가장 선한자로 간주하거나 그분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신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 우리는 이때에 우리와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해주신 요한복음 4장 26절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질문 정리

- 1) 주님의 시대 때 거룩한 땅의 세 지역은 어떻게 구분되었는가?
- 2) 중간 지역은 어디인가?
- 3) 사마리아 사람이란 누구인가?
- 4) 본문에서 주님은 어디에서 어디로 여행하시고 계신가?
- 5) 그분은 어느 곳에서 쉬시기 위해 멈추셨는가?
- 6) 야곱의 우물이 있는 땅 구획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7) 주님이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누가 왔는가?
- 8) 주님이 물을 달라고 하자 그 여인은 왜 놀랐는가?
- 9) 주님은 그녀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 10) 주님이 예언자임을 알도록 그녀에게 보여준 그분의 말씀은 무엇인가?
- 11) 주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그녀에게 말씀하셨는가?
- 12) 주님은 그분의 양식이 무엇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가?
- 13) 무엇이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해주었는가?
- 14) 야곱의 우물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생명의 물이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갈릴래아, 사마리아, 유다 2) 사마리아 3) 아시리아 왕에 의해 이주된 외국인들
- 4) 유다로부터 갈릴래아로 5) 야곱의 우물 6) 야곱이 사서 요셉에게 준 땅
- 7) 사마리아 여인 8)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
- 9) 10절 참조 10) 다섯 명의 남편 11) 나는 그리스도이다
- 12)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 13) 그분의 말씀들
- 14) 말씀 15) 생명 있게 하는 신성한 진리

30

베짜타 못

머리말

본문 이전의 사건은 주님의 두 번째 기적에 관한 것인데, 이 구절 역시 읽어두기 바란다.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면, 주님이 과월절을 기념하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을 알 수 있다. 이는 4장 45절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그리고 요한은 주님의 첫 방문 시에 성전을 정화하셨다고 말한다(2:13-16). 본문 이전의 이러한 사항들은 주님께서 유대와 갈릴래이를 자주 오고 가셨음을 보여준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5장 1-16절

5장: 1. 얼마 뒤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 가셨다. 2. 예루살렘 양의 문 곁에는 히브리말로 베짜타라는 못이 있었고 그 둘레에는 행각 다섯이 서 있었다. 3. 이 행각에는 소경과 절름발이와 중풍병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4. 이따금 주님의 천사가 그 못에 내려 와 물을 휘젓곤 하였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라도 다 나았던 것이다.) 5. 그들 중에는 삼 십 팔 년이나 앓고 있는 병자도 있었다. 6. 예수께서 그 사람이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아주 오래된 병자라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낫기를 원하느냐?”하고 물으셨다. 7. 병자는 “선생님, 그렇지만 저에게 물이 움직여도 물에 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는 동안에 딴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8. 예수께서 “일어나 요를 걸어 들고 걸어 가거라” 하시자 9. 그 사람은 어느새 병이 나아서 요를 걸어 들고 걸어 갔다. 그 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다. 10.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요를 들고 가서는 안 된다” 하고 나무랐다. 11. “나를 고쳐 주신 분이 나더러 요를 걸어 들고 걸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꾸하자 12. 그들은 “너더러 요를 걸어 들고 걸어 가라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물었다. 13. 그러나 병이 나은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 준 사람이 누구지 알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미 자리를 뜨셨고 그 곳에는 많은 사람이 붐볐기 때문이다. 14. 얼마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자, 지금은 네 병이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욱 흉한 일이 너에게 생길지도 모른다” 하고 일러 주셨다. 15. 그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쳐 주신 분이 예수라고 말하였다. 16.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신다 하여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교리 요약

- * 주님은 우리의 이해성 안의 말씀에 관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 * 어린 시절에 획득한 말씀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베짜타 못”이다.
- * 우리가 진실로 자신의 과오를 인식하고 그것을 고치려 하면, 말씀의 지식은 이때 우리의 이해성을 휘젓게 된다.
- * 우리는 자신의 과오 중 하나가 고쳐진 후 또 다른 과오와 싸우기 위해서 전진해야 한다. 이렇게 지속해나갈 때 우리는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악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전보다 더 큰 악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게 되더라도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싸움이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이뤄주기 때문이다.

상응 공부

- 못 = 기억에 모아진 진리
- 다섯 = 조금이지만 아껴두신 우리속의 선한 상태
- 침상(요) = 우리가 받은 교리

해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주님은 공생애 동안 유다와 갈릴래아 사이를 자주 오고 가셨다. 요한복음은 이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요한복음서가 주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에 있어진 가르침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도 주님이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본문의 말씀이 물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물에 관한 것이다. 갈릴래아 가나에서의 혼인 잔치에 있었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은 우리의 바깥쪽 행동 측면에 관계된 진리의 발달에 관한 것이고, 야곱의 우물가에서의 내용은 지성적 측면에서의 진리의 발달을 의미한다. 본문에서는 의지적 측면에 관계된 진리의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면서 수많은 병자들로 채워져 있는 다섯 행각을 가진 예루살렘 양의 문 곁에 있는 베짜타 못이란 주님의 강림 때에 있었던 교회의 상태를 표현한다. 양의 문이란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어린 시절의 상태인 순진과 신뢰 안에 담긴 진리로부터의 지식을 상징한다. 숫자 다섯이란 “비록 적지만 충분함”이란 뜻이다. 이것은 당시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이 말씀속의 순수한 진리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아주 적은 틈만을 남겨두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것은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입증되고 있다. 그래서 교회라는 몸은 소경, 절름발이 혹은 중풍 등의 질병으로 차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제각기 가능한 방법으로 못가에 모여 누군가를 치료해 줄 주님의 영광의 접촉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날의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들 역시 본문에 언급된 못가에 모여 든 사람들과 유사하다. 우리는 자신의 결점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고쳐야 나가야 함을 알고 있다. 우리가 자신속의 결점을 보고 인정하면, 우리는 어린 시절에 배워 둔 말씀의 진리인 양의 문 근처 예루살렘의 베짜타 못가로 가게 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못의 물을 휘저어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특별한 결점을 고치기 위한 진리를 보여 주신다.

본문은 38년이나 못가에서 기다리며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결코 제때에 물속으로 들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믿게 된 약해지다 못해 지쳐버린 사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내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속에 마치 우리의 일부분처럼 느껴지며 아주 깊숙이 자리 잡은 악들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흔히 이러한 악들에 대하여 “나는 이런 식으로 태어나졌어, 태어날 때 가진 것을 난들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결론지으며 포기해 버리기도 한다. 세상의 어두운 상태 혹은 개인의 영혼에서 최악의 질병은 스스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실망이란 것이다. 이것은 본문에서 38년간이나 못가에서 기다린 환자가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서 제때에 물속으로 들어 갈 수 없었다고 느낀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 사람을 위해 새 날이 밝아서 주님이 못가에 나타나시게 된다. 스웨덴북은 ‘숫자 30이란 전투의 어떤 것 또는 남겨두신 것이 충분함을 상징한다.’라고 말한다. 본문의 사람 역시 재구성을 위한 희망 너머에 있는 자는 아니다. 즉, 그 역시 스스로를 바꾸고자 결심하게 될 때마다 재구성이 가능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낯기를 원하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셨다. 여덟째 날은 한 주일이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8이란 숫자는 “각 단계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 요를 건너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한계점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명령하고 계신다. 일어남이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자연적

수준 이상으로 들어 올림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어 쉬는 요(침대)란 삶의 기초로써 받아들인 교리를, 걷는다는 것은 전진함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 주님을 찾으며 이전에 배웠던 기독교의 원리를 기억하여 지속적으로 전진해 나가면 그분께서 우리 앞에 놓인 악들을 극복할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정복에 패배한 후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쓴 채 저물 때까지 야훼의 궤 앞에 엎드려 있었다.”라는 구절을 상기할 수 있다. 이때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 나가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사항은 실망이란 지옥의 근원이며 지옥이 주는 것은 죄 뿐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곤경에 빠지도록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것들을 극복하게 해 줄 의지의 박약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후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치료받은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셨을 때 하신 “자, 지금은 네 병이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욱 흉한 일이 너에게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온전하다고 판단될 때 과거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야기토록 한 우리속의 악을 자기반성과 검증을 통해 밝혀내서 그것이 차후에 재발되는 것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안식이란 승리 뒤에 있는 평화와 쉼의 상태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안식의 상태에 머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한 주간인 7일이 끝나면, 또 다른 한 주간이 시작되는 8일째가 온다. 우리는 이 8일째 되는 날 지난 주간과 마찬가지로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와 새롭게 인식하고 싸워야 할 우리속의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된다. 안식일이란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 자신을 도와주신 주님의 은총으로 그분을 찾는 때를 의미함과 더불어 자아 검증과 새로운 해결책을 위한 날을 의미한다.

질문 정리

- 1) 사마리아는 거룩한 땅의 어느 부분인가?
- 2) 사마리아 사람의 선조는 누구인가?
- 3)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래아로 가시던 도중 어디서 멈추어 쉬셨는가?
- 4) 주님이 물을 달라고 사마리아여인에게 물으셨을 때 그녀는 왜 놀랐는가?
- 5) 주님은 그녀에게 물에 관해 무엇을 말씀해주셨는가?
- 6) 주님은 그녀에게 자신에 관한 무엇을 말씀해주셨는가?

- 7)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양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8)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 9) 베짜타 못은 어디에 있는가?
- 10) 못 주위에는 몇 개의 행각이 있는가?
- 11) 어떤 이들이 행각에서 기다렸는가?
- 12) 그들은 무엇을 기다렸는가?
- 13) 물이 휘저어질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4)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이 못에 있었는가?
- 15) 주님은 그에게 먼저 무엇을 물어보셨는가?
- 16) 그는 뭐라고 답변했는가?
- 17)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18) 그가 그렇게 하자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 19)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꾸짖었는가?
- 20) 주님은 고침 받은 사람을 다시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1) 종교지도자들은 이 병자를 고친 사람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는가?
- 22) 우리속의 베짜타 못은 무엇인가?
- 23) “일어나 요를 걷어 들고 걸어가거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중간지역 2) 외국인 3) 야곱의 우물
- 4)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 5) 4장 10절 참조
- 6) 나는 그리스도이다 7)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 8)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 9) 예루살렘 10) 5 11) 병자들 12) 물이 휘저어지기를 기다림
- 13) 먼저 못에 들어간 병자는 치료됨 14) 38년 15)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 16)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17) “일어나 요를 걷어 들고 걸어가라”
- 18) 치료되었다 19) 그는 안식일 법을 깨트렸다 20)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 21)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22) 기억 속에 저장된 하느님의 방법에 관한 지식

23) 너의 생각을 끌어 올려라, 네 삶을 기초한 교리를 추켜 들어라, 앞으로 전진하라.

31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머리말

본문은 기적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도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본문 전체를 기억하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9장

9장: 1.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만나셨는데 2.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저 사람이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다. 3.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4. 우리는 해가 있는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 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5.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6.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땅에 침을 뱉아 흙을 개어서 소경을 눈에 바르신 다음
7.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하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과건된 자”라는 뜻이다.) 소경은 가서 얼굴을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 왔다. 8. 그의 이웃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 노릇을 하고 있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하고 말하였다.
9. 어떤 이들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을 닮기는 했지만 그 사람은 아니라고도 하였다. 그 때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시오”하고 말하였다,
10.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하고 묻자 11. 그는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시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었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12.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소?”하고 물었으나 그는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13. 사람들은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14.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였다. 15. 그래서 이번에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또 그에게 눈을 뜨게 된 경위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 주신 뒤에
얼굴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14. 바리사이파 사람들 중에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하는 사람도 있었고 “죄인이
어떻게 이와 같은 기적을 보일 수 있겠소?”하고 맞서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17. 그들이 눈멀었던 사람에게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니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하고 다시 묻자 그는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하고 대답하였다.

18.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본래는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고 마침내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19. “이 사람이 틀림없이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물었다. 그의 부모는 “예, 틀림없이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저의 아들입니다. 21. 그러나 그가 어떻게 지금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눈을
뜨게 하여 주었는지는 모릅니다. 다 자란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 보십시오. 제 일은 제가 대답하겠지
오” 하였다. 그의 부모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작정하였던 것이다. 23. 그의 부모가 “다 자란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 보십시오”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은 소경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 놓고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죄인이오.” 하고 말하였다. 25.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앞못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잘 보게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26.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일을 했소?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했단 말이요?”
하고 그들이 다시 묻자 27. 그는 “그 이야기를 벌써 해드렸는데 그 때에는 듣지도 않더니 왜
다시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28.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마구 욕설을 퍼부으며 “너는 그자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29.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지만 그자는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른다.”
하고 말하였다. 30. 그는 이렇게 대꾸하였다.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도 모른다니 이상한 일입니다. 31.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청은 안 들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실행하는 사람의 청은 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2.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여 준 이가 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33. 그분이 만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도저히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34.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너는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혼계하려 드느냐?” 하며 그를 회당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35. 눈멀었던 사람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그를 만났을 때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36. “선생님, 믿겠습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하고 대답하자 37. 예수께서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하고 말씀하셨다. 38. “주님 믿습니다.” 하며 그는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렸다. 39. 예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40.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사이파 사람 몇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들도 눈이 멀었던 말시오?” 하고 대들었다. 41. 예수께서는 “너희가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눈이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하고 대답하셨다.

교리 요점

- * 고난은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발달을 위한 기회인 것이다.
- * 눈이 먼 채 태어난다고 함은 영적으로 볼 때 신성한 진리를 배우고 이해할 기회를 외부적인 환경면에서 박탈되었음을 뜻한다.
- * 결함이 있는 영혼은 하나도 없다.

상응 공부

소경 = 무지
 주님의 침 = 말씀의 글자로부터 온 진리

해설

스웨덴북은 말씀이란 마치 우리가 옷 입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 말한다. 즉, 대부분이 우리의 옷에 가려져 있으나 손과 얼굴은 드러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말씀이 내적 의미를 드러내기 보다는 숨기고 있는 부분이 더 많지만 진심으로 주님의 교훈을 얻고자 말씀으로 다가오면 누구나 말씀 안에서 힘과 도움을 얻기 위해 필요한 내적인 의미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이다. 본문은 내적인 의미가 드러나 있는 말씀 중의 하나인데, 이는 표면상으로 드러난 깊은 의미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본문을 읽으면 말씀의 영적 의미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본문의 영적 의미에 대한 열쇠는 마지막 세 구절에서 발견된다. 이 구절에서 주님은 신체적 소경이 아닌 영적인 소경 곧 신성한 진리에 대한 소경에 관심을 두고 계심을 명확히 보여주고 계신다. 우리가 이를 염두 해 두고 본문을 공부해 나간다면, 우리는 본문 속에서 더 깊고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본문의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져 있었는데, 이는 갖가지 이유로 인해 단 한 번도 신성한 진리를 배우거나 이해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제 2-5절에서의 제자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사람이 겪게 되는 고난이나 역경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도록 해준다. 기독교는 수세기 동안 소경과 같은 지체부자유자 혹은 질병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교리를 발달시켜 왔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그 교리가 주님의 뜻이 아님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교리는 “원죄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죄론이란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의 후손들인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원죄는 오직 세례식으로만 제거될 수 있고, 세례 받지 않고 죽게 될 경우 설사 유아들이라 할지라도 사후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님은 본문의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것은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탓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즉, 주님은 원죄론을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빛을 주시는 주님의 방법은 뒤의 참고 문헌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본문의 소경이 치료된 후 그의 태도와 그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태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자. 소경은 자신의 신체에 있게 된 일을 공정하게 받아들일 만큼 정직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비방이나 곤란을 겪게 될 것을 관여치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지식을 밝힐 수 있는 용감함도 지니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신성한 진리가 보여 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를 계속 주시해 가다보면, 그의 이해성이 자라나서 점점 더 심오한 상태로 바뀌게 됨을 알게 된다. 그는 제일 먼저 “내가 바로 그 사람ियो.”라고 말한다. 이는 그가 자신이 눈뜨게 됨을 실감했다는 것, 즉 그가 조금 전까지도 가망 없는 소경이었지만 짧은 순간에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됨을 의미한다. 그 다음 그는 예수리는 분이 자신을 고쳐주셨다고 말한다. 그는 단지 주님의 이름만을 알고 있었을 뿐이다. 이후 그는 자신에게 일어 난 일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일련의 질문들을 갖게 되고, 그 사건이 평범하지 않음을 실감하면서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주위 사람들 특히 바리사이파인들이 그들의 종교원리로 기적을 부정하려 하자 자신의 눈을 열어 준 능력은 하느님으로부터가 아니면 있을 수 없었다는 믿음을 확증하면서 그들의 원리를 부정하는 성경의 참 교리를 대담하게 사용한다(제 30-33절). 이로 인해 바리사이파인들은 그를 회당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이리하여 그는 그동안 자신을 양육시켜온 거짓의 사슬로부터 풀려나게 된다. 그런 다음 그가 예수를 뵈었을 때 그분께서 당신이 누구임을 그에게 말씀해주시자, 그는 “주님, 믿습니다.”라고 선언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렸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과거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분의 신성을 선포하였듯이 바리사이파인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주님, 믿습니다”라는 결론을 맺기 전 유대교회당과 작별을 고하는 일을 먼저 해야 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즉, 마태복음 9장 16-17절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덧붙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위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3절에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상기해 보도록 하자. 즉,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부분이다. 이 구절과 더불어 6장 28-29절에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라고 한 질문과 예수께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하고 대답하신 두 구절을 한데 묶어 요약해 보도록 하자. 먼저 주님께서 선한 사람들에게도 시련이나 고통을 허용하신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시련이나 고통을 통해 겸손해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 그분으로 하여금 그들이 청한 도움에 응하실 수 있게 하며, 그들이 더욱 깊고 총명하게 그분을 믿을 수 있음을 그분만이 예견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본문에서 등장하는 소경 이외의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날마다 소경을 가까이서 지켜본 이웃들 중 일부는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과거의 그 소경이 아닌 다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부모 역시 아들에게 일어난 엄연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한 정당성을 밝히지 못하고 두려워했다. 사람들은 눈먼 자가 눈을 뜬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되자 주님의 권능이 악마에게서 왔다고 주장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을 참조하면 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본문의 교훈은 마지막 절에 함축되어 있다.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그분이 세상에 가져오신 심판의 진정한 의미는 그분에 의해 인간 위에 덮여 씌워지는 심판이 아니라 아주 바깥 수준 또는 가장 밑바닥 수준에서 신성한 진리를 새롭게 밝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확실히 알도록 해주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실로 진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주님의 오심이요 심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진리를 발견했는데 이기적인 욕심, 즉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도 주님의 오심의 의미이기도 하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읽어보면 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양자택일 곧 진리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회도 유보해 두셨다. 즉, 우리는 이기적인 편리함을 위해 주님을 거절할 것인가 아니면 손해가 될지라도 주님을 믿을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뼈짜타 못은 어디에 있는가?
- 2) 그 못에는 몇 개의 행각이 있는가?
- 3) 누가 행각에 모여 있었는가?
- 4) 왜 그들은 거기에 있었는가?
- 5) 어떤 이는 얼마나 오랫동안 아파왔는가?
- 6)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물으셨는가?
- 7) 그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 9) 그가 순종하자 어떻게 되었는가?
- 10) 그 후 주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11) 본문의 소경은 언제부터 눈이 멀었는가?
- 12) 제자들은 그 사람을 보고 주님께 무엇을 질문했는가?

- 13)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 14) 소경의 눈은 어떤 과정을 거쳐 보게 되었는가?
- 15) 이 기적에 대한 반론은 어떻게 제기되었는가?
- 16) 눈을 뜨게 된 자는 이 반론으로 인해 자신을 치료해주신 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도록 인도되었는가?
- 17) 소경의 부모가 주님을 노골적으로 찬양하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인가?
- 18) 그들이 기적의 사실을 부인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적들은 주님을 어떻게 몰아붙였는가?
- 19) 눈뜬 자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 20)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 21) 그 후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해주셨는가?
- 22) 눈뜬 자는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응했는가?
- 23) 본문에서는 주님이 세상에 오셨던 까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 24) 바리사이파인들은 무엇을 물었는가?
- 25)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해주셨는가?
- 26) 소경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27) 우리는 이 세상 삶에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질문의 답

- 1) 예루살렘 2) 5 3) 병자들 4) 치료받기 위해 5) 38년
- 6)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7)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 8) 일어나, 요를 걸어들고, 걸어가라 9) 치료되었다 10)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 11) 태어날 때부터 12) 누구의 죄 탓입니까? 13) 누구 탓도 아니다
- 14) 진흙을 바르고 못에서 씻음 15) 안식일에 행했다는 것 16) 예언자
- 17)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서 18) 그는 죄인이다 19) 32절 참조
- 20) 쫓겨났다 21)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22) 그분을 경배했다
- 23) 심판을 위해 24) 우리가 눈이 멀었던 말이오? 25) 41절 참조 26) 무지
- 27) 주님을 믿을 것이냐? 또는 믿지 않을 것이냐?

선한 목자

머리말

본과의 제목은 남녀노소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 다시 읽을 때마다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제 10장

10장: 1.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양 우리에게 들어 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딴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이다. 2. 양치는 목자는 문으로 버젓이 들어간다. 3.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4. 이렇게 양떼를 불러 낸 다음에 목자는 앞장 서 간다. 양떼는 그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뒤따라간다. 5. 양들은 낯선 사람을 결코 따라 가지 않는다. 그 사람의 음성이 귀에 익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피하여 달아난다.” 6.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7.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8.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9. 나는 문이다.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10. 도둑은 다만 양을 훔쳐다가 죽여서 없애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11. “나는 착한 목자이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12. 목자가 아닌 샅꾼은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쳐 버린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 가고 양떼는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 13. 그는 샅꾼이어서 양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14.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15.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16. 나에게서는 이 우리 안에 들어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데려 와야 한다. 그러면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마침내 한 때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17.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결국 나는 다시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18.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치는 것이다. 나에게서는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은 명령이다.” 19.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다시 논란이 일어났다. 20. 많은 사람이 “그는 마귀가 들렸소. 그런 미친 사람의 말을 무엇 때문에 듣는 거요?” 하고 말하는가 하면 21. 어떤 사람들은 “마귀 들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소? 더구나 마귀가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단 말ियो?” 하고 말했다.

22. 때는 겨울이었다. 예루살렘에서는 봉헌절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23. 예수께서는 성전 구내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는데 23. 유대인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당신은 얼마나 더 오래 우리의 마음을 조이게 할 작정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25. 그러자 예수께서는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나를 증명해 준다. 36. 그러나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27.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 온다. 28.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29.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 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아무도 그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30.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31. 이때에 유대인들은 다시 돌을 집어 예수께 던지려고 하였다. 32.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께서 맡겨 주신 좋은 일들을 많이 보여 주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못마땅해서 돌을 들어 치려는 것이냐?” 하고 말씀하셨다. 33. 유대인들은 “당신이 좋은 일을 했는데 우리가 왜 돌을 들겠소? 당신이 하느님을 모독했으니까 그러는 것이요. 당신은 한갓 사람이면서 하느님 행세를 하고 있지 않소?” 하고 대들었다. 34.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불렀다’ 하신 기록이 있지 않느냐? 35. 이렇게 성서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신이라고 불렀다. 성경 말씀은 영원히 참되시다. 36.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만은 믿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39. 그 때에 유대인들이 다시금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몸을 피하셨다. 40. 예수께서는 다시 요한이 전에 세례를 베풀던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41. 그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 와서 서로 “요한은 기적을 보여 주지 못했지만 그가 이 사람에 관해서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고 하면서 42.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교리 요약

- *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의 심정과 지성을 겸손하며 신뢰하는 상태로 간직해야 한다.
- * 주님의 가르침 위에 자신의 생각 혹은 타인의 사상을 얹어 놓는 사람은 그분에게서 진리를 훔치는 것이다.

상응 공부

목자 = 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호하며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
 이리 = 순진과 선함에 반대하여 그것을 파괴하려드는 악

해설

본문에서 “양떼는 그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뒤 따라간다”라는 말씀과 “나는 문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양과 어린 양은 순진과 진정한 선함 그리고 순진에서 발달된 선행을 표현한다. 그리고 순진과 선행의 기본 바탕은 겸손이다. 하지만 현대 문명사회에서 겸손은 대중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미덕이라고 생각조차도 안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적 측면, 사업적 측면 또는 전문직에서 강조되는 것은 자기 확신과 자기주장을 펼치는 것일

때가 많다. 현대인들이 ‘사람들이 양같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에 그 표현은 사람들이 겸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 표현은 사람들이 대중이 행하는 것을 쉽게 따라야 함을 의미하는데, 오늘날 광고의 대부분이 이런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양에 관하여 깊이 사고해보도록 한다. 양들은 이끌고 가기보다는 이끌리는 것을 쉽게 따른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목자 없이 이리들에 의해 파괴되거나 도둑에 의해 쉽게 강탈된다. 그러나 양들은 진정한 목자의 소리를 인식할 수 있고, 기꺼이 그 목자를 신뢰하며 따른다. 이는 겸손함을 지닌 이들만이 천국의 울타리 안으로 인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뒤의 참고 문헌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지혜나 선함을 믿는 자들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막고 파괴라는 길을 자신의 고집대로 가게 된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자기만을 신뢰하는 자들이 한 때나마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행운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성취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인물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가 한 때나마 자신의 마음속에 순진과 선함이라는 기초를 가진다면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진정한 목자를 찾는 일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23장 1-4절의 “이 저주받을 것들이, 양떼를 죽이고 흩트려 버리는 목자라는 것들이, 야훼의 말을 들어라. 내 백성을 칠 목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서 말한다. 내 양떼를 돌보아야 할 너희가 도리어 흩뜨려서 헤매게 하니, 너희의 그 꾀잡한 소행은 어찌 벌하지 않고 두겠느냐! 똑똑히 들어라. 나 비록 나의 양떼들을 이 나라 저 나라로 헤매게 하였지만, 그 중에서 살아남은 것을 모든 나라에서 본래의 목장으로 다시 모아 들여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참 목자들을 세워 주리라. 그러면 내 양떼는 겁이 나서 무서워 떠는 일 없이 살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말이다, 어김이 없다.”라는 말씀을 참고하도록 한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짓 목자는 본문에서 언급되는 강도나 도둑 그리고 샅꾼까지 포함한다. 샅꾼이란 주님을 섬기겠다고 나서지만 자신의 중요성이나 자신의 이득에만 관심을 갖는 자들을 말한다.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목자이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자세로 말씀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며 최선을 다해 그것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말씀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다.

주님은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종종 여러 교파들의 집회에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보다 과거 어떤 유명인사가 했던 말을 더 많이 늘어놓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된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사항은 천국에 들어 갈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과거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 즉 30절에서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또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필립보에게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나?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아주 간단한 진리로 이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음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가능하면 빨리 자신의 두 가지 삶의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가 영원히 간직할 것을 생각하는 것에 귀를 막든지 또는 주님이 우리에게 제공해주신 보다 더 깊고 높은 우리속의 영적인 자질의 가능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자신이 얻게 되는 명예나 물질을 사용해 갈 것인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한 가능성을 발달시켜 가면, 우리 주위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기도 한다. 심지어 그들은 “저 친구 참 우둔하군, 주어진 떡도 못 먹으니...”라고 비웃기도 한다. 그러나 주님은 본문을 통해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주님은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의 속 상태를 꿰뚫고 계신다.

질문 정리

- 1)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 2) 주님은 진정한 목자는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3) 주님은 양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 4) 그분 앞에 온 이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5) 주님은 목자 외에 자신을 뭐라고 부르셨는가?
- 6) 그분이 어떻게 문이 되시는가?
- 7) 샅꾼은 어떠하다고 말씀하시는가?
- 8) 그분이 가진 다른 양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9) 유대인은 주님에게 무엇을 대답해 달라고 요청했는가?

- 10) 주님은 하느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1) 왜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가?
- 12) 주님과 아버지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분을 무엇으로 기소했는가?
- 14) 주님이 목자라고 불리신 성경의 또 다른 구절은 무엇인가?
- 15) 어린양과 양은 각각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순진을 영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질문의 답

- 1) 선한 목자 2) 자기 양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른다
- 3)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4) 도둑이며 강도 5) 양 우리의 문
- 6) 우리가 그분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 7) 양을 돌보지 않는다
- 8) 양 우리에게 있지 않다 9) 당신이 그리스도이냐? 10) 그분의 일
- 11) 그분의 양이 아니므로 12)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 13) 하느님 모독 죄 14) 시편 23편
- 15) 어린양 - 순진의 특질이 자라남, 양 - 생활 속에 있는 순수하며 선한 특질
- 16) 모든 선함과 지혜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쁘게 받아들임
(글자적으로 볼 경우, 헤치지 않음)

33

다시 살아난 라자로

머리말

본문은 미래의 삶에 대한 교리를 배우기에 적절하다. 먼저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주님께서 라자로를 일으키신 까닭은 우리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우리의 의식을 옮겨 갈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가르치시고 계신다는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11장 1-46절

11장: 1. 마리아와 마르타 자매가 사는 베다니아 동네에 라자로라는 병자가 있었다. 2. 앓고 있는 라자로의 마리아의 오빠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 드린 적이 있는 여자였다. 3. 마리아와 마르타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앓고 있습니다” 하고 전했다. 4. 예수께서는 그 전갈을 받으시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5. 예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고 계셨다. 6. 그러나 라자로가 앓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서 더 머무르시다가 이틀이 지난 뒤에야 7. 제자들에게 “유다로 돌아가자”하고 말씀하셨다. 8. 제자들이 “선생님, 얼마 전만 해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그 곳으로 다시 가시겠습니까?” 하고 걱정하자 9. 예수께서는 “낮은 열 두 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낮에 걸어 다니는 사람은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10.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하시며 11. 이어서 “우리 친구 라자로가 잠들어 있으니 이제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12.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 라자로가 잠들어 있었다면 곧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13.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라자로가 죽었다는 뜻이었는데 제자들은 그저 잠을 자고 있다는 말로 알아들었던 것이다. 14. 그래서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라자로의 죽었다. 15. 이제 그 일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잘 된 일이다. 그곳으로 가자.” 16. 그 때에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가 자기 동료인 판 제자들에게 “우리도 함께 가서 그와 생사를 같이 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17.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러 보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뒤였다. 18. 베다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안 되는 곳이어서 17. 많은 유대인들이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마르타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20.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타는

마중을 나갔다. 그 동안 마리아는 집 안에 있었다. 21. 마르타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22.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느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23.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24. 마르타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5.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26.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르타는 27. “예, 주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믿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28. 이 말을 남기고 마르타는 돌아 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귓속말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하고 일러 주었다. 29.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달려갔다. 30.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마중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던 것이다. 31.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해 주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가 꼭허러 무덤에 나가는 줄 알고 뒤따라 나갔다.

32.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찾아 가 뵈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33. 예수께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 온 유대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 34.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시자 그들이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35.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36.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것 보시오. 라자로를 무척 사랑 했던가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37. 또 그들 가운데에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라자로를 죽지 않게 할 수가 없었던 말인가?” 하는 사람도 있었다.

38. 예수께서는 다시 비통한 심정에 잠겨 무덤으로 가셨다. 그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었고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다. 39. 예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자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40. 예수께서 마르타에게 “네가 믿기만 하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시자 41.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제 청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42. 그리고 언제나 제 청을 들어 주시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기 둘러 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 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43. 말씀을 마치시고 “라자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시자 44. 죽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손발은 베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45. 마리아를 찾아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46. 그러나 더러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일러바치기도 하였다.

교리 요약

- * 죽음이란 부활로 인도되는 일종의 “잠”이다.
- * 우리가 걱정해야 할 “죽음”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야 할 선함이 죽는 것이다.
- *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속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바람들을 방치하게 되어 영적인 사람이 되어 갈 희망까지도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상용 공부

둘을 던짐 = 좋은 측면으로 볼 때 악을 질책하기 위해 단호하게 사용된 진리들
= 나쁜 측면으로 볼 때 진리를 뒤집거나 부정함

라자로 = 주님을 향해 마음 문을 여는 것 또는 선행

라자로를 일으킴 = 교회 속에서 라자로가 가진 위의 특성을 회복시키심

죽음 = 부활의 “잠”

해설

앞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을 치료해주신 주님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에서 그 기적의 당사자와 그것을 목격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것이 미친 영향이 아주 상이했음을 살펴보았다. 본문의 기적은 그와 같은 맥락의 교훈 속에 보다 더 경이로운 본보기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이 사건은 주님의 지상생활 마지막 주간쯤에 발생했는데, 사실 본문 역시 종려주일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 12장과도 매우 근접해 있다. 그리고 본문의 교훈은 부활절의 내용과도 매우 유사하다.

본문에서는 대성직자 나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처치해야겠다고 결정한 이유도 제시되어 있다. 우리가 복음서를 반복해서 읽고 깊이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생애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분의 권능이 더욱 경이로운 일을 하시며 그분이 입으신 인성을 통해 그분에게 접근된 지속적인 시험의 극복으로 있게 되는 그분 속의 신성에 대한 자각 역시 더욱 깊어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열두 살 되시던 해에 성전에서 학자들과 토론을 하는 중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라고 대답하셨고, 그분의 지상 생활 마무리 직전인 본문에서는 마르타에게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라고 하시며, 이후 14장 9절에서 필립보에게 “니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그분이 입으신 인성의 얼마가 그분과 더불어 아직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해지기 때문이다. 그 눈물도 사랑이 만들어 낸 것임은 분명하나,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부터라고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분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미칠 효과 때문에 많은 것을 말씀하시며 행하셨음을 볼 수 있다. 이를 염두하고 4절, 6절, 11-15절 그리고 41-42절을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

죽은 자를 일으키신 사건은 본문 외에도 두 차례나 있었다(누가복음 7장 11-15; 8:49-56). 그러나 그 두 사건들에서는 매장된 사람을 일으키시지 않으셨다. 이러한 상이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과에서 비중의 차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사람들 역시 육체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육체를 떠나서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는데, 이는 당시의 사람들이 사상적으로도 아주 외적이었기 때문이다. 마르타와 마리아는 주님의 친구로서 그분의 기적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썩기 시작한 육체에 생명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어떤 권능도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이런 사상은 주님의 제자들도 가졌으므로, 주님께서 죽으실 때 죽음이 당신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미리 실감시켜 주셔야만 했다. 우리는 결국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열려졌음을 성경에서 알 수 있다.

본문에서의 교훈은 아주 단순하고 명백하다. 주님은 두 가지의 진리를 동시에 말씀하셨다. 즉, “라자로는 잠들어 있다”와 “라자로는 죽었다”라는 것이다. 우리가 죽는다고 함은 단지 우리의 영혼이 잠드는 것일 뿐이다. 이는 우리가 매일 밤 또 다른 하루를 위해 잠들어 휴식을 취한 후 힘을 얻어 지상의 각종 문제나 시험과 싸워 나가기 위해 다시 깨어나는 반면 죽음 이후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문제나 시험들을 뒷전에 두고 지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한 세계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다.

주님은 이와 같은 영원한 세계에 라자로를 보낼 때가 도래되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다. 라자로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과 이룩해야 할 진보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 4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우리의 때 역시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시편 31:15).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우리가 죽는 시간이 처음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거나 혹은 우리가 자신의 죽음에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날마다 죽음에 관한 어떤 선택을 계속하고 있고 주위의 사람들도 그 선택에 일익을 담당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어나는 대신 영계에서 깨어날 최적의 때를 주님께서 보시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위와 같은 선택의 상황을 다른 국면으로 몰고 가도록 한다. 우리는 누군가 죽었다는 사실에 슬퍼하며 억울하다는 듯 통곡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죽음을 보고 들으면서 그것을 주님과 천국을 자신 속에 더 가깝게 끌어당기는 계기로 삼기도 한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적은 선택과 준비들에 관한 우리의 때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장수하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우리는 장수함에 앞서 최선의 것을 행하기 위해 주님을 신뢰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죽음이란 우리의 영원한 삶에 비교해 보면 유치원의 졸업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시편 90편을 읽고 본 반을 마무리 짓도록 하자. "...우리에게 날수를 제대로 해야될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시편 90:12).

질문 정리

- 1) 라자로는 누구인가?
- 2) 누가 그의 자매들인가?
- 3) 그는 어디서 살았는가?
- 4) 본문의 기적은 예수님의 생애 언제쯤 베풀어졌는가?
- 5) 라자로가 심히 아프게 되자 주님은 즉시 베다니아로 가셨는가?
- 6) 주님이 도착하셨을 때 라자로가 죽은 후 며칠이나 지났었는가?
- 7) 마르타가 주님을 뵈자 뭐라고 말했는가?
- 8) 이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9) 마르타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가?
- 10) 주님은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1) 나자로를 살리셨던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12) 대성직자 와 바리사이파인들은 그분을 어떻게 하자고 모의했는가?
- 13) 왜 주님은 베다니아로 가시는 것을 지체하셨는가?
- 14) 왜 주님은 처음에 나자로가 잠들었다 말씀하셨고 후에는 그가 죽었다고 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예수님의 친구 2) 마르타와 마리아 3) 베다니아 4) 그분 생애의 말기
- 5) 아니다 6) 4일 7) “만일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8) “다시 일어난다”
- 9) “마지막 날에... 10)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 11) 돌을 치우고, 큰 소리로 부르시자, 나자로가 걸어 나왔다
- 12) 죽이려고 음모했다
- 13) 죽음을 넘어서있는 그분의 권능을 보여 주시려고
- 14) 죽음이 이 세상에서 잠들고 영계에서는 다시 깨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34

종려주일(4)

머리말

요한복음에는 종려주일에 관한 기록이 짧은 편이다. 따라서 타 복음서에 있는 종려주일의 부분을 읽고 보충하길 바란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12장 12-50절

12장: 12. 명절을 지내러 와 있던 큰 군중은 그 이튿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13.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
찬미 받으소서!”

하고 외쳤다. 14. 예수께서는 새끼 나귀를 보시고 거기에 올라 앉으셨다. 이것은 성서에,

15.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임금이 너에게로 오신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16. 예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야 이것이 모두 예수를 두고 기록된 것이며 또 이런 일들이 그대로 예수께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7. 예수께서 라자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 일을 증언하였다. 18. 군중이 예수를 맞으러 나간 것도 예수께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 주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19.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 이제는 다 틀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따라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며 서로 걱정하였다.

20. 명절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 왔던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 사람도 몇이 있었다. 21. 그들은 갈릴래아 지방 베싸이다에서 온 필립보에게 가서 “선생님, 예수를 뵈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22.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이 말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예수께 가서 그 말을 전하였다. 23.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24.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25.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26.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도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27.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견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28.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그 때에 하늘에서 “내가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드러내리라” 하는 음성이 들려 왔다. 29. 거기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군중 가운데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천사가 예수께 말하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30.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려 온 음성이다. 31.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32.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리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33.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암시하신 말씀이었다. 34. 그 때에 군중이 “우리는 율법서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시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사람의 아들이 높이 들려야 한다고 하시니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35.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빛이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잠시뿐이니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가라. 그리하면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어둠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36. 그러니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피하여 몸을 숨기셨다. 37. 예수께서 그렇게도 많은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건만 그들은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38.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께서 보여 주신 능력을 누가 깨달았습니까?”

한 말이 이루어졌다. 39. 그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이유를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40.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을 가지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여
끝내 나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고
나한테 온전히 고쳐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42. 이것은 이사야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말한 것이며 또 예수를 가리켜서 한 말이었다.

42. 유다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새이파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드러내 놓고 하지는 못하였다. 43. 회당에서 쫓겨 날까 겁이 났던 것이다. 43. 그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광보다도 인간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44.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뿐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까지 믿는 것이고 45.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도 보는 것이다. 46.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47.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단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을 단죄하려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48. 그러나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단죄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세상 끝 날에 그를 단죄할 것이다. 49.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라고 친히 명령하시는 대로 말하였다. 50. 나는 그 명령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러 주신 대로 말하는 것뿐이다.”

교리 요약

- *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본보기로 삼고자 한다면, 우리는 자신만을 먼저 챙기려 드는 시험을 정복해야 한다.
- * 우리는 육체를 단지 도구로서 간주해야 한다. 이 세상의 삶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적인 모습으로 이뤄지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 악은 실제로는 선을 이길 힘이 없다.

상응 공부

새끼 나귀 = 자연적인 진리

필립 = 총명

안드레아 = 순종

해설

종려주일은 기독교인들이 “성주간”이라고 부르는 주간에 시작되는 날로서, 우리는 이 날을 주님의 지상생활의 마지막 주간의 시작으로 기념한다. 주님은 이 날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오는 주일에 부활하셔서 성주간이 끝을 맺는다. 예루살렘의 입성과 부활 사이에는 그분을 거절하고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어두운 이야기가 깔려 있다. 종려주일이 되면 의례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상되는 두 가지 의문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일요일에 주님을 왕으로 열렬히 환영했던 이들이 어떻게 금요일에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외쳤던 것일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왜 적들이 당신을 죽이도록 허용하셨을까 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주님은 위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직접 답을 하고 계신다. 우리가 우선 주목해야 할 사항은 새끼 나귀와 종려나무 가지이다. 새끼 나귀를 타셨다고 함은 세상에 나타난 그대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즉 자연적인 추론을 완전히 종속시키셨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고 나온 종려나무 가지란 말씀의 글자에 나타난 대로의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주님이 베푸신 기적 때문에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고,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계셔서 즈카리아 9장 9절에 있는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분께 갈채를 보냈던 것이다. 그들은 메시아에 관하여 성경의 글자대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의 나라를 한 번 더 세계 최강의 국가로 부상시킬 지상의 왕으로서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제 40절에서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다. 즉,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을 가지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여 끝내 나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고 나한테 온전히 고쳐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하는 것이다. 제 34절에서의 그들의 질문은 이 세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저 세상에 관한 문제에는 관심이 결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심지어는 주님의 가르침을 경청하고자 한 사람들까지도 그분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를 두려워했다. 이는 41-42절에서 “회당에서 쫓겨날까 겁이 나서” 그리고 “그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광보다도 인간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술된 것으로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명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 역시 자신이 올바르게 아는 것을 드러내려는 용기가 결핍되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영적인 겁쟁이는 칭찬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즉, 믿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과 믿고자 하지만 주위 사람의 눈총을 두려워하여 드러 내놓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두 계층은 제 29절에서 기술되고 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의 음성에 대해 한 계층이 ‘천둥이 울렸다’고 했고, 또 다른 계층이 ‘천사가

예수님께 말했다'라고 한 것으로부터 그들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역시 그들처럼 영적 진리를 거절하거나 환영하게 된다.

주님께서 죽음에 놓이도록 허용하심에 대한 이유는 제 23-28절에서 서술되고 있다.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죽음은 태초로부터 예견된 그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 즉, 주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오신 것이다. 그분의 적들이 그분께 최악의 짓을 하도록 내버려두신 이유는 악이 선을 이길 능력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주님은 육체의 죽음이란 영혼의 끝없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고 실제의 힘은 영혼에 있음을 인간에게 보여주셔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악을 단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거절한다면, 이는 하느님을 거절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거절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사후의 삶에서도 어두운 데에 거하도록 자신을 스스로 저주하게 된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말씀 전반의 가르침에 대한 상징적인 구체화이다. 이것은 우리가 영혼이 육체보다 중요하여 이 세상에서의 쾌락, 지위 혹은 편안 등 무엇이든지 간에 영혼의 중요함을 고수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고 주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모습이다. 기독교인이라고 함은 그리스도의 본보기와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말한다. 주님의 본보기나 가르침 속에는 세상욕이나 자아중심을 위한 변명이 결코 들어 있지 않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일 것이다.”라고 외치신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이것은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암시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구절도 염두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의 “죽음”, 즉 “밀알이...죽으면,” “자기 목숨을...미워함,”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리라...” 등에서와 같은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그분이 입으셨던 인성 속에 든 이기적인 자극 모두가 죽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25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이다.

질문 정리

- 1) 주님의 공생애는 몇 년인가?
- 2) 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자주 가셨는가?

- 3) 왜 주님은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 초에 그곳으로 가셨는가?
- 4) 주님은 그날 어떤 동물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 5) 왜 사람들은 그분을 환영했는가?
- 6) 사람들은 어떤 가지를 들고 그분을 환영했는가?
- 7)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는가?
- 8) 호산나란 무슨 뜻인가?
- 9) 왜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는가?
- 10) 누가 그분의 입성을 보고 화를 냈는가?
- 11) 어떤 이방인들이 그분을 보고자 했는가?
- 12) 어느 제자가 그들을 주님께 안내했는가?
- 13) 주님은 죽음의 필요성을 무엇으로 설명하셨는가?
- 14)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15)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들은 왜 진리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가?
- 16) 주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그분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인가?
- 17)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무엇인가?
- 18)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함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9)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3년 2) 축제 때문에 3) 과월절 4) 나귀 5) 주님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 6) 종려나무 가지 7) 호산나 8) 지금 구하소서 9) 왕의 표시, 예언의 성취
- 10)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 11) 그리스인 12) 필립보와 안드레아
- 13) 밀알의 비유 14) 이기적인 삶을 버려야 한다 15) 원하지 않았기 때문
- 16) 인간의 칭찬을 사랑했기 때문 17) 신성한 진리
- 18) 세상적인 추론 또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성을 종처럼 여겨야 함
- 19) 말씀의 글자적 의미에 있는 신성한 진리

포도나무의 비유

머리말

모든 생명과 선함이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됨을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과 연관 지어 보면서 이를 확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제 15장

15장: 1.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다. 2.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조리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잘 가꾸신다. 3. 너희는 내 교훈을 받아 이미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다. 4.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 나를 떠난 사람은 잘려 나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 7.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또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8.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왔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10.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11.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13.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14.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벗이 된다. 15.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 주었다. 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 주실 것이다. 17.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도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 두어라. 19. 너희가 만일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은 너희를 한집안 식구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가려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20. 종은 그 주인보다 더 나를 수가 없다고 한 내말을 기억하여라. 그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21. 그들은 너희가 내 제자라 해서 이렇게 대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보내신 분을 모르고 있다. 22. 내가 와서 그들에게 일러 주지 않았던들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게 되었다. 23.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24. 내가 일찌기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앞에서 하지 않았던들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나와 또 나의 아버지까지 미워한다. 25. 이리하여 그들의 율법서에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26.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 너희에게 보낼 협조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27.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교리요점

- * 모든 생명과 모든 선함은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된다.
- * 우리가 주님의 본보기를 따를 때만이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생산된다.

상응 공부

포도나무 = 신성한 진리로서의 주님

포도 = 선행의 일

해설

“한편, 노아는 포도원을 가꾸는 첫 농군이 되었는데...”라는 창세기 9장 20절이 있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포도밭과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 등이 언급되는 첫 번째 구절에 해당된다. 아담과 이브와 그 후손들로 묘사되는 태고 교회는 “천적인 상태”, 즉 주님만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 마음 상태로서 그분이 그들의 마음 안으로 유입시켜 주시는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인간들이 계발되던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의지(마음)가 이기적으로 되어 버리자 그분으로부터 유입된 진리가 그들의 변질된 의지로 인해 거짓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태고교회는 거짓과 악이라는 큰 홍수로 멸망했던 것이다. 그 후 주님이 인간 안의 의지와 이해성을 분리시켜 주셔서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이 느낀 그대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교회는 노아로 대표되는 고대 교회였다. 고대 교회는 “영적인 상태”였다. 고대 교회란 인간이 진리를 이해성 속에 받은 다음 그 진리를 수궁하여 순종함으로써 새로운 의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해주셨던 시대를 뜻한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9장 20절에서 노아가 포도밭을 가꾸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포도밭은 영적인 교회를, 포도나무는 영적인 진리를 그리고 포도는 영적인 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세기 9장 21절에서는 “하루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라고 기록된다. 이는 고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경이로운 진리들을 자신들을 찬양하는데 이용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경향의 끝이 바벨탑의 이야기로 전개되고, 결국 고대교회도 황폐해진 후 흩어져 멸망하고 말았다.

앞서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본 이유는 그 내용이 본문의 내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주님은 고대 교회의 말기 썸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 새 말씀을 세상에 주셨는데, 그 국가는 진정한 교회가 아닌 단지 진정한 교회를 표현하는 교회에 불과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교회가 다시 포도밭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이사야 5장 1-7절을 통해 명백히 알 수 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 위에 덮어 씌워 놓은 그들의 전통들이 위의 구절에 있는 진정한 열매대신 생산된 “들 포도”인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교회 역시 그 끝에 가까웠고, 주님은 그분의 사도들을 통하여 세상에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설비하고 계셨다. 우리는 본문의 가르침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유다가

마지막 배반의 계획을 실행하러 나간 다음 성만찬이 끝난 직 후에 열 한 제자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임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이 열 한 제자들에게 진실로 말씀하신 바는 “이전 교회들이 해왔던 식을 되풀이 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진리가 너희 스스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착각하지 말며 내 진리에 너희들의 사상을 섞지 말라”라는 것이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라고 거듭하여 당부하셨다. 가장 높은 의미에서 포도나무란 “신성한 진리로서의 주님”을 표현한다. 앞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음을 배웠다. 그래서 그분은 같은 복음서인 이곳에서 “나는 포도나무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공부하지 않고 우리의 인도를 그분께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 곧 눈에 보이는 모든 선 안에 결코 생명이 없게 된다. 한마디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도들은 주님이 맡기신 임무에 충실했으나, 뒤의 첫 기독교회는 이주 오래 전의 교회들이 했던 것 같이 그분의 가르침을 거절하거나 뒤집기 시작하여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스스로 분리 되어졌다. 주님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견하셔서 파트모스섬에 있는 요한에게 주어진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미리 묘사해 주셨던 것이다. 우리는 간혹 주변에 있는 교회의 설교나 가르침의 기초들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보다 오히려 바울이나 후기 사람들이 언급했던 것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는 듯 한 느낌을 갖게 된다. 이런 느낌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의 기초 교리는 서기 325년경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우리는 그것이 결국 인간들의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나무 가지에 불과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주님은 이런 인위적인 전통들과 뒤튼린 역사적 흐름을 정화하심으로써 신성한 진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이해력으로 말씀을 읽도록 해주시기 위해 다시 오셨다. 새교회의 모토는 “믿음의 신비에 대해서 지적으로 접근하여 이해하는 것이 이제 허용되었다”라는 것이다 (진정한 기독교 종교 508-3). 그렇다할지라도 이 말이 우리가 신성한 진리를 새로운 방법으로 이상하게 비꼬아 보려고 하거나 그것을 우리의 편리에 맞춰 보겠다는 심산에서 나온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이 천 여 년 전 그분의 마지막 만찬에서 열 한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나를 떠난 사람은 잘려나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버린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라고 당부하신다. 이러한 새로운 진리에 대한 공부를 접한 이들이 장차 새교회인이 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섭리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항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열매가 헛되다는 것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는 주님의 말씀이다.

질문 정리

- 1) 본문은 주님의 어느 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졌는가?
- 2) 본문에서 주님은 당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3)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부르셨는가?
- 4) 주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 제자들이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5)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 6)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7) 주님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까닭은 무엇인가?
- 8) 주님은 그분의 계명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9)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삶이 쉽다고 말씀하셨는가?
- 10)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주셨는가?
- 11) 포도나무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2) 포도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2) 포도나무 3) 가지들
- 4) “내안에 거하라” 5) 밖에 던지워... 6) 그분의 계명에 순종
- 7)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8) 서로 사랑하라 9) 아니다
- 10) 세상에 의해 미움 받고 박해 받는다 11) 신성한 진리 12) 영적인 선함

부활절 (4)

머리말

요한복음에서 강조된 부활 사건은 마리아가 일어나신 주님을 인식한 것 그리고 토마의 의심과 그것의 해결이다. 본과에서는 부활의 일반적인 의미와 제자들의 상태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서 본문: 요한복음 20장

20장: 1.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의 일이었다.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무덤에 가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다. 2. 그래서 그 여자는 달음질을 하여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가서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하고 알려 주었다. 3.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곧 떠나 무덤으로 향하였다. 4. 두 사람이 같이 달음질쳐 갔지만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가 먼저 무덤에 다다랐다. 5. 그는 몸을 굽혀 수의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6. 곧 뒤따라 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 가 그도 역시 수의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7.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수의와 함께 흩어져 있지 않고 따로 잘 개켜져 있었다. 8.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9. 그들은 그 때까지도 예수가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성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10. 두 제자는 숙소로 다시 돌아갔다.

11. 한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12.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체를 모셨던 자리 머리맡에 앉아 있었고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13.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누군가가 제 주님을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14. 뒤를 돌아다보았더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인 줄은 미처 몰랐다. 15.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줄 알고 “여보셔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 갔거든 어디에다 모셨는지 알려 주셔요. 내가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는 예수께 돌아 서서 히브리말로 “라뵤니” 하고 불렀다. (이 말은 “선생님이여” 라는 뜻이다.) 17.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내 형제들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 곧 내 하느님이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하고 일러 주셨다. 18.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 뵈던 일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일러 주신 말씀을 전하였다.

19.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단아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 오셔서 그들 한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20.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21.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22.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24. 열 두 제자 중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다. 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자 토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어 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 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토마도 같이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들어 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27. 그리고 토마에게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 보아라. 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28. 토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대답하자 29.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30.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들도 수없이 행하셨다.

31.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교리 요약

- * 우리는 사후 영의 몸을 가지고 계속 살게 된다.
- * 주님은 그분의 인성을 신성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영화를 이루셨다.
- *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생각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상응 공부

여인 = 애착

매장 = 부활 혹은 선한 인격의 경우 거듭남

고운 베 = 자연적인 인간 속의 진리

향료 = 선으로부터 비롯된 내면에 든 자연적 진리

수건 = 자연적 인간의 기억

해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활절에 관하여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삶이 사후에도 계속 이어져 죽음에 어떻게 처해졌는지 간에 그것이 비극이 아닌 더 새롭고 풍요로운 삶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진실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명백한 교훈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위의 사항 외에도 주님의 부활에서 더 깊이 있는 교훈도 얻을 수 있다.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당시 선한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에 속한 용어가 아닌 선함을 전혀 생각해내지 못했다. 삼 년 동안 줄곧 주님을 따르며 그분에게서 배웠던 제자들까지 역시 그분이 말씀하시는 왕국을 지상의 왕국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죽게 되시자 모든 희망이 끝난 것처럼 느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은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의 체험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녀는 일찍이 주님께서 일곱 마귀를 내쫓아 준 여인이었다. 그녀 역시 제자들처럼 주님을 믿고 사랑했으나, 그들과 같은 출세에 대한 기대는 없었다. 그녀는 주님이 가버린 후에도 미래에 관심이 있었고, 그분의 시신을 위해서라도 뭔가 일하여 그분을 섬기려고 했다. 그녀는 본문 이전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교육수준이나 세상적 지위가 높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상 이상의 높은 지성도 소유하지 않았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의 시신을 감은 고운 베란 그분에 관한 자연적인 사상을 표현한다. 그리고 시신에 바를 향료란 그들의 심정 속에 든 선함에 의해 자연적인 사상에 추가되는 품성들을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향료는 “선으로부터 온 내면에 있는 자연적인 교리”를 표현한다. 즉, 우리가 배우고자 하여 얻게 된 진리는 억지로 배워서 얻은 진리보다 더욱 깊게 우리를 감화시켜 준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많은 이들이 말씀의 글자로부터 진리를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할 때가 흔하다. 무덤을 봉인한 돌이란 종교지도자들에 의해 말씀의 글자로부터 얻은 진리를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여 왜곡된 진리들을 뜻한다.

주님의 부활은 여인들에게 처음 알려졌는데, 여인이란 애착을 표현한다. 그리고 여인들로 인해서 남자들에게도 부활이 알려졌다. 이는 우리의 심정에 사랑함이 없으면 어떤 영적인 시야도 결코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주님을 즉시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후 그분을 본 최초의 실제 인물이다. 그녀는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그분을 알아보았다. 말씀 속에서 이름이란 어떤 인격의 전반적인 특질을 표현한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각 개인의 특질을 알고 계신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내 형제들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 곧 내 하느님이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고 전하여라”라고 이르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전달하라고 하신 이유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이들이 그분을 인간이 아닌 하느님으로 인식할 때까지 그들이 가졌던 세상적인 생각 수준이상으로 그들의 주님에 대한 생각을 들어 올려야만 함을 제자들에게 지적해 주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 하느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가 여느 사람들과 같이 자연계의 힘을 지니고 계신 분으로 하느님을 간주한다면, 우리의 모든 이상향이나 열망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존재하게 된다. 설사 우리가 선하며 유용한 인격자가 되려고 결심할지라도, 우리는 단지 타인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만을 최선의 목표로 설정할 뿐이다. 만약 우리가 복음서 속의 많은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일부 종파와 같이 우리의 하느님이 당신을 경배하고 헌금을 바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로서 간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주실 수도 있는 분으로 비쳐지게 해서 그분을 매우 강경한 통치자시며 협소한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타인을 다룰 때도 위와 같은 하느님의 특성을 본떠서

그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만물의 최초의 원인 곧 최초의 물질적인 세포를 창조하셔서 어떤 것이 어떤 법칙에 따라 발달되어졌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믿어야 할 것과 행동해야 할 것을 스스로 결정지어야 한다고 여기며 한 인간의 사상이 다른 사람의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판단하게 되어 결국 어떤 고정된 진리도 세상에 없다고 결론짓게 된다. 게다가 우주에서 활동 중인 무한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인간이 유한하여 그분에 관해 전혀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결국 위와 같은 사람들에 속하고 만다.

기독교인 사이에도 그리스도에 관해 믿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즉,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인정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지금까지 존재한 사람들 중 최고의 인간정도로만 간주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사항은 주님의 가르침 중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은 받아들이면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분 역시 국한된 나라나 사람들을 위해 가르치셨어. 그분이 오늘날 가르치신다면 아마 조금은 달라지실 거야.”라는 식으로 생각하며 자기에게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가르침을 배제할 자유가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어떤 구절은 과장시켜 말하고 또 다른 구절은 왜곡시키거나 과소평가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이 되신 분으로서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대로 살아내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확실히 지녀야 할 이상향을 주셨다. 또한 그분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삶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과 진정한 영혼의 형체를 만들기 위해 육체가 사용되는 것만이 중요함을 보여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사상을 오래 전 지상에 계셨던 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이상의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끌어올리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고 생각하는 데 까지 이르러야 한다. 주님은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제자들에게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본문의 토마에게 베풀어 주셨던 바와 같이 그분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적합하게 그분을 맞추어 주신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여 그분을 보는 능력과 이해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면 그분은 우리의 이해성 속에서 일어나시게 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사는 이 새 시대에 우리의 이해성에서 일어나시되 가장 확실한 일어나심(부활), 즉 말씀의 내적 의미를 열어 놓으셨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말씀의 합리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우리를 위해 설비해 놓으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받도록

배려해 두신 것이다. 우리가 이 수단들을 사용한다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더 밝아지고 말씀에 대한 공부는 언제나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더해 줄 것이다. 비록 우리가 자아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 앉혀져 이 세상에 있다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살게 된다.

질문 정리

- 1) 주님은 종려주일에 어떤 동물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 2) 군중은 뭐라고 소리쳤는가?
- 3) 군중들은 주님이 무엇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었는가?
- 4) 군중들이 주님이 지상 왕국의 왕이 아니심을 발견하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5) 주님은 어느 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 6) 십자가에서 내려진 주님의 시신은 어디에 모셔졌는가?
- 7) 누가 주님의 시신을 모셨는가?
- 8) 누가 일요일 이른 아침 처음 무덤에 갔는가?
- 9) 그 여자는 왜 무덤에 갔는가?
- 10) 그녀는 무엇을 발견했는가?
- 11)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무덤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12) 마리아는 무덤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 13) 주님은 그녀에게 나타나실 때 당신을 어떻게 알도록 하셨는가?
- 14) 왜 주님은 그분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 15)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 16) 이 때 어떤 제자가 그곳에 있지 않았는가?
- 17) 토마는 주님이 살아 계심을 어떻게 해야 믿겠다고 말했는가?
- 18) 주님은 그를 어떻게 확신시켜 주셨는가?
- 19) 그 후 주님은 토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0) 요한은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은 일들에 관해 뭐라고 말했는가?
- 21) 매장함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22) 무덤을 막은 돌이란 무엇을 표현하는가?

23) 수의(고운 베)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1) 나귀 2) 호산나 3) 로마를 정복함 4) 그분을 거절했다 5) 금요일 6) 새 무덤에 안장되었다.
7) 아라마태아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8) 막달라 여자 마리아 9) 향을 시신에 바르려고 10) 돌이
굴려져 있었다 11) 수의 12) 두 천사 13) 이름을 부르심으로 14) 아직 올라 가지지 않았기 때문
15) 닫혀 있는 문으로 들어오셨다 16) 토마 17) “나는 내 눈으로 보고..내 손으로 만져 보아야..”
18) 다시 나타나심으로 19)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20) 기록하기에는 너무 많다 21)
부활 22) 하느님에 관한 거짓 사상 23) 주님에 관한 제자들의 사상

37

여자와 용

머리말

본문에는 아주 인상 깊은 묘사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를 먼저 기억해 두면 점차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성서본문: 요한계시록 12장

12장: 1. 그리고 하늘에는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별이 열두 개 달린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나타났습니다. 2. 그 여자는 뱃속에 아이를 가졌으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3.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고 머리마다 왕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4. 그 용은 자기 꼬리로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막 해산하려는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그 아기를 삼켜 버리려고 그 여자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5.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었습니다. 별안간 그 아기는 하느님과 그분의 옥좌가 있는 곳으로 들려올라 갔고 6.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곳은 하느님께서 천 이백 육십 일 동안 그 여자를 먹여 살리시려고 마련해 두신 곳이었습니다.

7. 그 때 하늘에서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천사 미가엘이 자기 부하 천사들을 거느리고 그 용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 용은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맞서 싸웠지만 8. 당해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그들이 발붙일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9.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계를 속여서 어지럽히던 늙은 뱀인데, 이제 그놈은 땅으로 떨어졌고 그 부하들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10. 그 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들은 쫓겨났다.

밤낮으로 우리 하느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들이 쫓겨났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나타났고

하느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11.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진리의 힘으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싸웠다.

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악마가

크게 노하여 내려갔으니

땅과 바다는 화를 입을 것이다.”

13. 그 용은 자기가 땅에 떨어진 것을 깨닫자 그 사내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14.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가지고 있어서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 가 거기에서 삼년 반 동안 그 뱀의 공격을 받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15. 그 뱀은 그 여자의 뒤에서 입으로부터 강물처럼 물을 토해 내어 그 물로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 했습니다. 16. 그러나 땅이 입을 벌려 용이 토해 낸 강물을 마시어 그 여자를 구해 냈습니다. 17. 그러자 용은 그 여자에 대하여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위해서 증언하는 일에 충성스러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떠나 가 18. 바닷가에 섰습니다.

교리 요점

- * 물질주의라는 이 큰 용은 우리가 신성한 진리를 무시해버리게 하는 묘책을 수단으로 우리를 시험하려고 우리 곁에 언제나 현존하고 있다.
- * 만일 우리가 일상 생활을 우리의 참 교리에 머물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이 용은 우리를 해칠 수 없다.
- * 새 교회조차도 “믿음 만의 교리”를 수단으로 살아보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롭지는 않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상응 공부

- * 여자 = 새교회
- * 여자의 아기 = 새교회의 교리
- * 용 = 세상사랑
- * 날개 = 영적인 이해성
- * 홍수 = 거짓 추론들

해설

계시록의 앞부분은 첫 기독교회의 타락에 대한 묘사, 즉 그 교회들이 진정한 포도나무인 주님으로부터 그들 스스로 잘려 나가게 된 과정과 그로 인해 그분께서 말씀을 봉하고 있던 봉인을 떼심으로서 그 교회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거행하게 되심을 보여준다. 요한의 환상은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 영계에서 실제로 거행될 것에 관한 예언이기도 하다. 스웨덴북은 “항구적인 기독교 천국은 말씀속의 더 깊은 진리가 밝혀질 때까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며 고백하면서 자신이 구원되었다고 확신했던 모든 기독교인들은 진정한 진리의 빛으로 그들의 진정한 마음 상태를 비춰보고 알게 될 때까지 “가상의 천국”에서 살도록 허용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선과 악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 분리됨으로써, 악한 자는 지옥에서 자신의 거처를 발견하게 되고 선한 자는 천국에서 자신의 영원한 거처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스웨덴북은 “이 심판은 서기 1757년에 거행되었고, 1770년 6월 19일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분을 추종했던 열 두 명의 사도들을 영계의 전역으로 파견하여 새교회를 건립하게 될 교리를 선포하도록 명령하셨다. 이 일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지상의 새교회도 출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본문에서의 태양을 입은 여자가 이러한 새교회를 상징한다. 태양이란 주님을 사랑함에서 비롯된 영화로움과 상응되고, 이 영화 속에서 천국에서의 새교회가 이뤄지게 된다. 그 여자의 발아래 있는 달이란 지상의 새교회 사람들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총명과 믿음을 그린다. 그 여자의 왕관에 달린 별들은 이 새교회가 소유하게 될 신성한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상징한다. 우리는 간혹 이 새교회가 말씀 속에서 신부 또는 주님의 아내라고 불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는 새교회의 교리를 의미하고, 이 아기를 위협해 온 큰 붉은 용이란 이전 교회에서 발달된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추론으로 이 새 교리와 싸우려 하는 악을 상징한다. 이 싸움으로 인해 이전 교회는 몰락하게 된다. 이는 세상의 악의 근원에 대한 책임이 있는 “늪은 뱀 (창세기 3:1-5)”과도 같고, 이것이 연속된 교회는 타락과 몰락을 초래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 몰락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바램과 영적인 사고가 아닌 세상적이고 과학적인 논리성으로 추론하고자 하여 초래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용”을 거둬서 만나게 된다. 이 용은 인간속의 이기심이 자라는 만큼 커져갔고, 물리적인 세계에 관한 인간의 지식이 늘어감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인간의 자만심과 더불어 인간의 영적 성장에 대항하는 강력한 적이 되었다. 스웨덴북은 “이 용은 특별히 “믿음만으로”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한다. 이것은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 부르는 개혁교회의 핵심 교리에 해당된다. 이 교리의 본질은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써 성취된 속죄는 이 세상에서 가진 인간의 삶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신앙 고백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 교리를 가진 교회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이 교리 대로 살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교리는 여전히 많은 기독교회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며, 안타깝게도 영적인 가치보다 세속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변명의 여지를 제공해 준다. 간혹 우리는 “주님은 정말로 사랑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언젠가 모든 이를 천국으로 끌어 올려주시지 않겠어? 그러니 나 또한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괜찮을 거야”라는 논쟁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러한 주장의 기초가 되는 “믿음만 으로의” 교리는 허점을 드러내고 만다. 에텐의 시대이후 이 용은 일곱 개의 머리와 열 개의 뿔을 획득해왔다. 여기서 머리들이란 추론의 다양함을 그리고 뿔들이란 용이 가진 추론의 힘을 상징한다. 그의 머리들에 있는 왕관이란 자신의 논쟁에 대한 근거를 위해 말쑥을 비꼬아 만든 각종 서술들을 의미한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백히 제시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 곧 주님 안에 거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는 “하느님과 그분의 옥좌가 있는 곳으로 들려 올라갔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비록 새교회의 교리가 말씀의 내적인 면 혹은 외적인 면인 글자 상에서 가르쳐지더라도 천국에 새교회가 건립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은 이 용에 대항하여 싸워서 그를 땅에 떨어뜨렸다.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뒤의 참고문헌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용에 저항할 때 천사들이 우리를 돕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그 다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여자에게 주어져서 “삼 년 반 동안” 견딜 수 있는 자양분을 공급받는 광야에 그녀의 처소가 주어졌다. 독수리의 날개란 영적인 것에 관련된 생각과 지적인 시야에서 비롯된 보호와 힘을 상징한다. 우리 교회의 가르침은 세속적인 것 위로 우리의 사상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더 높은 이해를 주고 있어서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계획과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준다. 여인이 삼 년 반 동안 받는 자양분이란 새교회의 초기시대동안 그 교회가 작고 약해서 당장 파괴될 것처럼 위험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지상의 새교회를 돌보시며 보호하실 것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땅은 입을 벌려 용이 여자를 파괴하려고 입에서 토해낸 홍수를 삼켜버렸다. 여기서의 홍수란 먼 옛날 태고교회인들을 멸하게 한 때의 홍수와 같이 이기심과 세상욕으로 발달된 거짓의 큰 덩어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땅은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상징이다. 참 교회는 진정한 교리를 받아들이며, 그 교리를 사랑하는 각 개인의 삶 속에서 건설되어져 왔다. 용이 내놓는 각종 거짓논쟁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즉시 명백해지고, 그들의 이해성 속에 이미 알고 있는 진리만으로도

완전히 분쇄되고 말 것이다.

질문 정리

- 1) 요한은 누구인가?
- 2) 그는 고령이 되었을 때 어디로 유배되었는가?
- 3) 주님은 거기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 4) 그에게 주어진 첫 환상은 무엇인가?
- 5) 계시록 전체는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가?
- 6) 첫 기독교회에 자라난 악들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 7) 본문에서 요한은 먼저 무엇을 보았는가?
- 8) 이 환상의 일부를 설명해보자.
- 9) 여인과 그 아이를 위협하기 위해 무엇이 나타났는가?
- 10) 용의 모습은 어떠한가?
- 11) 그 아기는 어떻게 구해졌는가?
- 12) 누가 용에 대하여 싸웠는가?
- 13) 여인은 어떻게 구해졌는가?
- 14) 여인과 그 아이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용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가장 사랑 받은 사도
- 2) 파트모스섬
- 3) 환상
- 4) 영화 되신 주님
- 5) 재림
- 6) 봉인이 떼어짐으로
- 7) 태양을 입은 여자
- 8) 달을 밟고, 열 두 개의 별이 달린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 9) 용
- 10) 일곱 머리, 열 빨, 일곱 왕관
- 11) 천국으로 들려올라 갔다
- 12) 미가엘과 천사들
- 13)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광야에 있는 처소로 날아갔다
- 14) 새교회와 그 교회속의 진리
- 15) “믿음만으로”의 교리

두 짐승이 정복되다

머리말

본문은 제 12장과 연관되어지며 우리 마음속의 악과 이해성 속의 거짓이 우리 안과 세상에서 발달하려는 교회에 맞서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는가를 보여준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13장, 19장 11-21절

13장: 1. 또 나는 짐승 하나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이 열 개이고 머리는 일곱이었습니다. 그 뿔에는 각각 관이 하나씩 씌워져 있었으며 그 머리마다 하나님께 모독이 되는 이름이 씌여 있었습니다. 2.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았는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짐승은 그 용으로부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3. 그 짐승은 머리 하나에 치명상을 입어서 거의 죽게 되었었지만 그 상처가 나았습니다. 이것을 본 온 세상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며 그 짐승을 따라 갔습니다. 4. 그리고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짐승에게도 절을 하며 “이 짐승처럼 힘센 자가 어디 있는가? 누가 이 짐승을 당해 낼 수 있겠는가?” 하고 외쳤습니다.

5.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지껄일 입을 받았고 마흔 두 달 동안 세도를 부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6. 그래서 그 짐승은 하느님을 모독하기 시작했고 하느님의 이름과 하느님의 집을 모독했으며 하늘에서 사는 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7.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길 힘을 받았고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8. 그러므로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천지창조 때부터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자들은 모두 그에게 절을 할 것입니다.

9.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10. “잡혀 갈 사람은 잡혀 갈 것이며 칼을 맞아 죽을 사람은 칼을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11. 이번에는 또 다른 짐승 하나가 땅에서 올라 오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었으며 용처럼 말을 했습니다. 12.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과 땅 위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회복된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13. 또 그 짐승은 여러 가지 큰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땅에 불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14.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기적을 가지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또 땅 위에 사는 사람들더러 칼을 맞고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15. 그리고 둘째 짐승이 권한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게도 하였습니다. 16. 또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낙인을 받게 하였습니다. 17. 그리고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표시하는 숫자의 낙인이 찍힌 사람 외에는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18. 바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리한 사람은 그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이해 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 수는 육백 육십육입니다.

19장: 11.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흰 말이 있었고 “신의”와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12.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썼으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분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13. 그분은 피에 젖은 옷을 입으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14.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15. 그분의 입에서는 모든 나라를 쳐부술 예리한 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친히 쇠지팡이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느님의 분노의 포도를 담은 술틀을 밟아서 진노의 포도주를 짜내실 것입니다. 16.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모든 왕의 왕, 모든 군주의 군주”라는 칭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17. 나는 또 태양 안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늘 높이 날고 있는 모든 세에게 큰 소리로, “자, 다 같이 하느님의 큰 잔치에 오너라. 18. 왕들과 장성들과 장사들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과 모든 자유인과 노예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살코기를 먹어라” 하고 외쳤습니다. 19. 또 나는 그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흰 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0. 그런데 그 짐승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잡이로서 기적을 행하여 짐승의 낙인이 찍힌 자들과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 자들을 현혹시킨 그 거짓 예언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산 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21.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흰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온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교리 요약

- * ‘용’과 ‘짐승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애쓴다.
- * 말씀이 열린 이유는 위와 같은 설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 * 우리 모두는 우리 앞에 펼쳐진 열려진 말씀이란 “잔치”에 초대되어져 있다.

상응 공부

- 표범 - 말씀 속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사랑함
- 곰 -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 사자 = 나쁜 측면에서 말씀을 왜곡시키는 악의 세력
- 666 - 말씀 속의 모든 진리가 왜곡됨

해설

제 12장에서 기술된 환상은 새교회가 기독교 세계에서 발견하게 될 지적인 반발을 묘사해 준다. 본문은 12장의 환상에 뒤따르는 것인데, 이는 옛 교회의 “믿음만의 교리”가 뒷받침해줄 때 마음속에 든 이기심으로부터 있게 되는 더 깊은 반발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개혁 또는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스스로 분리되어 나왔으며 그 교리의 기본적인

근거는 로마 가톨릭에서 연유된다는 점이다. 사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위의 믿음만의 교리를 추종하지는 않았지만, 그들 역시 또 다른 방향인 성직자 직을 지상의 영적인 권위자로 삼는 방식으로써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 악이 파괴하는 것은 계시록 17과 18장에서 기록된 환상에서 묘사된다. 스웨덴북은 '13장의 두 짐승이란 개혁교회의 성직자와 평신도들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모든 프로테스탄트교회의 성직자들을 일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주된 교리인 "믿음만의 교리"를 자신들의 삶에서 확증한 사람들만을 의미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한 개인이 지상의 어떤 교회 조직의 일원이 됨으로써 구원받게 된다, 혹은 저주받게 된다는 등의 주장을 해서는 안 됨을 명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얼마나 발달시켰는지 그리고 그렇게 발달시킨 사랑을 자신의 삶에 얼마나 적용했는가에 따라 인간이 구원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교회 조직이든지 간에 그 속에는 거듭 나아가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관련된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교회도 좋고 저 교회도 좋다"라고 하는 대중적인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을 인도할 진정한 진리를 갈망하며 진리를 획득한 만큼 더 나은 행복을 찾게 될 것이다. 새교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느님으로 인정하며 말씀의 내적 의미에 든 순수한 진리 위에 기초를 둔다. 우리는 주님을 최대의 권위자로 인정하며 그분의 진리들을 공부하여 삶에 놓는 정도만큼 새교회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선 참고문헌을 주의 깊게 읽어보자. 이 문헌을 보면 믿음만의 교리를 받아 삶에 응용하는 사람은 본문에서 그려진 짐승같이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표범이란 말씀 속의 진리를 왜곡시키려는 탐욕 또는 애착을 의미한다. 곰이란 말씀의 글자를 읽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해 나타나는 오류의 범람을 의미한다. 사자란 좋은 측면에서 신성한 진리의 권능을 의미하지만, 본문에서는 추론으로 인해 진리와 같은 겉모습을 한 거짓의 권능을 의미한다.

그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받은 치명상은 성경에서 선행과 선한 일이 끊임없이 명령되고 있는 사실과 관련된다. 그리고 이 치명상이 치료되었다고 함은 교리의 머리가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율법을 성취할 수도 없어서 또 다른 구원의 수단이 설비되었다. 그 수단이란 인간이 그리스도의 자비와 의를 믿는 것이며,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해 고통 받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를 거두셨다는 것 등을 믿으면 된다.'라는 추론들에 의해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성직자들을 표현하는 둘째 짐승이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말하고 가르치고 쓰는 것 등을 마치 주님의 신성한 진리인 듯 여겨 진리가 왜곡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위의 인용문을 토대로 환상이 표현하는 것과 그 환상의 세부사항 속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보편적인 이해를 갖게 될 것이다. 그 세부사항을 모두 살펴보는 것은 지면 관계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히 18절만 살펴보도록 한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생각 속에 감춰진 어떤 행동의 동기나 방법을 빨리 읽고 있을 때 “나는 그 자의 수를 깨고 있어...”라고 말한다. 우리가 정말 즐거움이라면, 우리는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교의 근원이 되는 거짓을 뒷받침하는 것들과 그 교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여전히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기간을 염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숫자 666이란 말씀 속의 모든 진리가 위의 것들로 인해 거짓으로 됨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은 천국 밖으로 용을 내던졌으나 그 용은 여전히 지상에 살아남아 있었다. 두 짐승은 이 용이 적극성을 띤 결과인 것이다. 우리는 19장에서 천사들의 사회가 돕는다할지라도 이 짐승을 쳐부숴 주실 분은 오로지 주님뿐이심을 발견하게 된다. 스웨덴북은 “거짓 예언자”를 둘째 짐승과 동일시한다. 11절에서 ‘천국이 열렸다’는 말은 주님의 재림으로 말씀의 내적 의미가 열려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흰 말을 타신 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될 주님에 관한 것이다. 주님이 잔치에 초대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뜻이다.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응하면,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의 홍수로부터 들이닥치는 시험들을 똑바로 보도록 하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된다.

질문 정리

- 1) 제 12장에서 요한은 먼저 무엇을 보았는가?
- 2) 무엇이 여자를 위협했는가?
- 3) 용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 4) 여자의 아기는 어떻게 구원되었는가?
- 5) 여자는 어디로 갔는가?
- 6) 누가 용과 싸웠는가?

- 7) 누가 승리했는가?
- 8) 여자는 어떻게 구해졌는가?
- 9) 본문에서 무엇이 먼저 등장되는가?
- 10) 짐승의 모습은 어떠한가?
- 11) 그의 머리에 무엇이 발생했는가?
- 12) 둘째 짐승은 무엇과 같았는가?
- 13) 이 환상에서 용은 어떤 부분을 담당했는가?
- 14) 짐승의 수는 무엇인가?
- 15) 둘째 본문에서 천국이 열리자 무엇이 나타났는가?
- 16) 승마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 17) 승마자는 어떤 세 가지로 불리는가?
- 18) 누가 흰말을 타신 분을 뒤따르고 있는가?
- 19) 어떤 잔치가 주어졌는가?
- 20) 짐승은 어떻게 되었는가?
- 21) 두 짐승은 각기 무엇을 그리는가?
- 22) 숫자 666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23) 하늘이 열림은 무엇을 뜻하는가?

질문의 답

- 1) 태양을 입은 여자 2) 용 3) 일곱 머리, 열 뿔
- 4) 하느님에게 들려 올라갔다 5) 광야 6) 미가엘 7) 미가엘
- 8) 독수리 날개 9) 모든 세에게 하느님의 큰 잔치에 오너라
- 10) 짐승 11) 일곱 머리, 열 뿔, 열 왕관 12) 상처받았다
- 13) 어린양처럼 두 뿔이 있다 14)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 15) 666 16) 흰말 17) 불꽃같은 눈, 많은 왕관, 피에 젖은 옷
- 18) 신의와 진실, 하느님의 말씀, 왕의 왕 19) 군대들
- 20) 불못에 던져졌다

- 21) 첫 짐승 -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기적인 바램
 둘째 짐승 - 겉으로 순진한 듯 나타나는 이기적인 바램
 22) 말씀 속의 모든 진리가 왜곡됨 23) 말씀의 내적 의미가 밝혀짐

39

요한 환상의 끝

머리말

성경을 마감하는 구절에 다음의 간단명료한 몇 가지 교훈들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우리 모두가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주님의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 여부가 자유로운채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신의 총명이나 의지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천국적인 행복에의 길이다. 다섯째, 선택은 우리의 것이지만 그 선택은 이 세상에서 행해져야만 하며 사후에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섯째, 죽음에서 일어나서 영화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하느님 으로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느님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혹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 라는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2장 8-21절

22장: 8.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나서 나에게 이것들을 보여 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9. 그러자 그는 “이러지 말아라. 나도 너나 네 형제인 예언자들이나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중에 지나지 않는다. 경배는 하느님께 돌려라”하고 말했습니다. 10. 그는 이어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때가 가까왔으니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아라. 11.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어라. 올바른 사람은 그대로 올바른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라.”

12.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자기 행적대로 갚아 주기 위해서 상을 가지고 가겠다.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얻고 성문으로 그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이 뺀 사람은 행복하다. 15. 개들과 미술장이들과 음란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일삼는 자들은 다 문 밖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16.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모든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에서 돋은 그의 자손이며 빛나는 샅별이다.” 17.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도 “오소서!”하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시십시오. 18.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말해 둡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실 때에 이 책에 기록된 재난도 덧붙여서 주실 것입니다. 19. 또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떼어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 대한 그의 몫을 하느님께서 떼어 버리실 것입니다. 20. 이 모든 계시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21. 주 예수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교리 요약

- * 주님은 말씀의 속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봉인을 떼심으로써 말씀의 내적 의미를 밝혀 두셨다.
- * 우리의 육체가 영혼의 성장과 거듭남을 위해 필수적이듯이, 세상에 조직된 새교회는 내적 교회의 존재와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상응 공부

생명나무 = 신성한 선으로서의 주님
생명나무의 열매 = 순수하게 선한 일
강 = 말씀으로부터의 진리
천사 = 주님의 특사

해설

우리는 본문의 구절들을 인류에 대한 주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여기기도 한다. 비록 주님의 재림은 계시록이 쓰인 후 1700년이 지나서까지도 거행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본문을 통해 그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는 것과 그 예언을 받는 길도 미리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님은 본문에서 우리를 격려해주실 뿐만 아니라 깊이 새겨야 할 엄숙한 경고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새교회 안에서 양육되거나 이 교회로 인도되는 사람이 주님에 의해 택해졌음을 의미하는데, 새교회인이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그들에게 부여된 특별한 능력이 주님의 새교회가 발달되는데 유용하게 쓰이도록 만들어졌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 해야 할 고유의 일을 각자 찾으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교회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모색해 간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에 대한 지혜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책임을 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선택은 제 11절에 표현되어 있다. 주님은 많은 이들이 그분의 재림에서 그분을 영접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계셨다. 주님은 그분의 진리를 원치 않은 이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데,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스웨덴복음은 ‘새교회는 매우 천천히 성장할 것이며, 그 교회의 진리는 아주 오랫동안 소수에 의해 존속될 것이다’라고 명백히 말한다. 이 말은 새교회인이 겪게 되는 시험들 중의 하나가 그 안에 있음을 암시해 주기도 한다. 즉,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서 실망하는 시험일 것이다. 게다가 이 실망은 또 다른 시험을 야기한다. 이에 대한 경고가 제 18절과 19절에서 언급된다. 주님이 발달시키 시려는 영적 교회와는 별개인 인간에 대한 찬양, 실적을 위한 출판, 외부적 활동 혹은 교인 수 등의 것에 자신이 매이도록 유혹되는 것 역시 새교회인에 대한 시험인 것이다. 이는 그러한 것들이 우상숭배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으로 위와 같은 우상들에게 스스로를 굴복시키는 것에 대한 근거로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에 알맞게 가르침을

해석하거나 수식해 보려고 하는 것 등은 새교회인들에게 있어서 큰 시험인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시험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더 이상 새교회인이 되지 못한다. 게다가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예배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신성한 진리로서 더 이상 찾지 않으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결국 자아와 세상을 예배하게 되고 만다.

주님은 제 13절에서 또 다시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성서 첫 구절에서 우리 앞에 놓인 이상향은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는 것이었다. 이 말씀은 인간 안에 천국적인 본성과 지상적인 본성이 있고 그것들이 에덴의 동산이 의미하는 상태로 발달되어 감을 의미한다. 큰 강이 에덴의 동산을 적시우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은 주님 대신 자아 쪽으로 돌아서서 천국적인 상태에서 더욱 멀어져 갔는데, 이러한 인류의 악은 모든 것을 멸할 정도로 되어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어야만”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런 다음 비록 느리지만 위쪽으로 상승되기 시작하여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순수한 강을 다시 발견하는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예루살렘에 관한 요한의 환상이 있을 때까지 이어진다.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고 순종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확신케 해준다. 요한이 절해야겠다고 인식했던 천사는 자신역시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요한에게 말했다. 그리고 주님은 16절에서 천사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심으로써 명백히 하고 계신다. 그래서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의 응답이 그러하도록 성경의 마지막 절에서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하시며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주 예수의 품위(grace)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라고 기록된 것이다.

질문 정리

- 1) 본문에서 요한은 환상을 보여준 천사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 2) 그 천사는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3) 알파와 오메가란 무엇을 뜻하는가?
- 4) 누가 생명나무를 차지하고 거룩한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 5) 주 하느님은 누구이신가?
- 6)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초대를 하고 계신가?

- 7) 그분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사항은 무엇인가?
- 8) 우리 교회는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 9)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배우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인가?
- 10) 강과 생명나무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1) 왜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친숙한가?

질문의 답

- 1) 자기가 경배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2) 하나님께 경배하라
- 3) 처음과 마지막 4) 주님께 순종하는 이들 5) 예수 그리스도
- 6) 나에게 오라 7) 성경의 말씀을 더하거나 떼어버리는 것
- 8) 거룩한 성 9) 우리는 여기서 영원한 선택을 하기 때문
- 10) 강 - 말씀의 진리, 생명나무 - 신성한 사랑 11) 축도문에서 사용되기 때문

40

새교회 날(2)

머리말

본과는 매해 6월 셋째 주일을 위해 계획된 것이다. 새교회의 이름의 의미와 그 이름이 주어진 까닭을 주로 살펴본다.

성서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12절

21장: 1. 그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2.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 그 때 나는 옥좌로부터 올려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느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느님이 되어서 4.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5. 그 때 옥좌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하고 말씀하신 뒤 다시금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6.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7. 승리하는 자는 이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8. 그러나 비겁한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 흉측스러운 자와 살인자와 간음한 자와 미술장과 우상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장자들이 차지할 곳은 불과 유행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9. 마지막 일곱 가지 재난이 가득히 담긴 일곱 대접을 손에 든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그 신부를 너에게 보여 주겠다”하고 말했습니다. 10. 그리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 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에 싸여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백옥 같았습니다. 12.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 두 대문이 있었고 그 열 두 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있었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교리 요점

* 오늘날 전 세계는 새교회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데, 새교회인들은 그 가르침을 알고자 하는 이들을 도와야 한다.

해설

앞서 우리는 거룩한 성의 세무사항을 살펴보면서 그 성이 우리가 속하는 교회의 이상향을 묘사한 것이며, 그 묘사는 인류가 세상적인 과학이나 철학 같은 부분에서 큰 진전을 이루는 중에 있게 될 새 시대를 위해 주님 당신에 의해 주어진 삶의 모형이라는 것을 공부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이상향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새로운 진전을 만들 때마다 자신을 찬양하려는 쪽으로 쉽게 유혹되기 때문이다. 이런 자아찬양은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행동할 힘이 주님으로부터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한다. 만약 우리가 이룩한 업적들을 선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안내를 주님께에서 찾으려 그분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학과 같은 고등 교육을 받으면서 배워야 할 세상적인 지식이 많음을 보고 허둥대다가 자신의 삶이 영원에 비해 얼마나 짧은가를 망각하게 되는 유혹에 빠진다. 또한 우리 영혼이 살아야 할 세계에 관한 지식에 흥미를 잃기도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즐기도록 원하시며, 그 안에 있는 것이 유용해지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은 우리가 날마다 향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과 주님께 연결되게 해 줄 우리 속마음의 더 높은 평면을 희미하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 중간부분인 8절에서 주님의 법칙에 순종할 의무를 잇는 이들에 대한 꾸짖음이 발견된다. 많은 이들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성취해낼 때까지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거나 성경을 시대에 뒤떨어지는 책으로 간주하고 소홀히 다룬다. 또한 이 세상의 삶 너머에 뭔가가 있다면 사후에 발견하게 될 때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하면서 영적인 것들에 관한 것을 배우기를 등한시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짐작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영원히 갖게 될 인격을 매일 형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내일의 것은 내일에, 그렇게 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체 그럴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동의 한 바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두신다. 그 이유는 주님께에서 인간을 본능적으로만 행동하는 동물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의 인간의 시작 초부터 그분의 존재와 질서에 관해 진보해 가는 계시를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인간이 소경 상태에서 결코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해두셨던 것이다.

현대에 접어들어 우리는 공부하고 배워야 할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이를 통제하여 방향 짓게 해줄 천국의 지식도 많이 갖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며 생명의 물을 거저 마시는 대신 지옥 쪽으로 인도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이는 우리의 과오인 것이다.

질문 정리

- 1) 오늘 우리는 어떤 날을 기념하는가?
- 2) 왜 우리는 6월 19일을 “새교회 날”이라고 부르는가?
- 3) 우리 교회의 이름의 근원은 무엇인가?
- 4) 누가 거룩한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을 통해 내려오는 모습을 처음 보았는가?
- 5) 성은 무엇에 상응하는가?
- 6) 성벽은 무엇에 상응하는가?
- 7) 단어 예루살렘은 무엇을 뜻하는가?
- 8) 왜 세상은 마지막 계시를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는가?
- 9) 세상의 지식과 주님에 관한 지식 중 어느 것이 보다 더 중요한가?
- 10) 주님은 재림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 11) 왜 주님은 인간에게 선택하는 자유를 주셨는가?
- 12) 주님이 악을 허용하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 13)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큰 시험은 무엇인가?
- 14) 새교회인으로서의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새교회 날 2) 순정기독교 791항 참조 3) 거룩한 성 새예루살렘
- 4) 사도 요한 5) 교리 6) 말씀 글자 7) 평화의 장소
- 8) 인간이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9) 주님에 관한 지식
- 10) 말씀의 내적 의미를 밝히심으로

- 11) 주님과 이웃사랑은 반드시 자유롭게 선택되어야 하므로
- 12) 인간의 자유를 보존하시기 위해 필요하므로 13) 자기 총명의 자랑
- 14) 말씀과 스웨덴북의 저서를 수단으로 이웃이 주님께로 인도되도록 도움